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회색부패에 관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은 중 환

희색부패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광 호

이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은 종 환

은 종 환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김 상 헌 (인)

부 위 원 장 최 태 현 (인)

위 원 문 명 재 (인)

위 원 이 삼 열 (인)

위 원 정 광 호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회색부패를 탐구하는데 있다.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은 집단 간 차이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집단의 속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개념 또한 모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과 사회의 관습을 대비시켜 회색부패의 개념을 관행화된 회색부패와 특권화된 회색부패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환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고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이 실제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가능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Peters&Welch(1978)의 연구를 토대로 부패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발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상황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단이나 처벌강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총 13개의 시나리오로 측정된 부패인식의 정도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시나리오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공공분야 종사자 인지 아닌지, 종교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 일관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것은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는 사회의 관행으로 수용되지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법, 규정의 규제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패인식수준의 결과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높은 부패인식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회색부패는 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총4개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회색부패의 유형은 각 부패의 상황이나 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는 패턴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이나 물건을 매개로 하는 유형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거래행위인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익적 의미가 강하거나 사회 전통문화의 관습에 따라서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문화의 특성, 그리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부패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해당 부패의 유형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색부패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와 속한 조직의 문화가 법규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회색부패에 대해 관용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관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르려는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회색부패 현상이 사회의 관습과 관행과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직접적인 흑색부패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곧 부패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망라하고 이들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처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관심은 김영란법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란법은 회색부패 현상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흑색부패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법이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은 과도한 회색부패를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당한 행동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된다. 회색부패의 관점에서 김영란법은 백색부패와 흑색부패를 구분하여 회색지대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사라진 회색지대의 의미는 기존의 관행과 결부되어 의미화 되던 회색부패가 이제는 공식규범과 결부되어 명확하게 의미화 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명확한 법규정의 존재는 사람들이 부패판단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부패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의한 과도한 식사, 선물, 경조사에 대한 경계선 설정은 또 새로운 형태의 부정청탁 행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관행에서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연결되는 부패 문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선해야할 관행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 관행의 결과라 볼 수 있는 부정수급 등과 같은 부정한 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한 행동을 관행화 시키는 이유에 대해 우선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회색부패가 발생하는지 회색부패가 발생하는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를 특권화된 회색부패와 관행화된 회색부패로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탐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행정, 정책에 심각한 위협일 것이라 예상되며 추후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많은 폐쇄적 엘리트 계층에서 그 관행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를 탐구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회색부패의 현상을 망라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현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부패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회색부패, 김영란법, 부정청탁, 부패, 사회교환이론, 부패인식

학번: 2013-30694

I.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II. 이론적 쟁점 및 선행연구	11
1. 부패 및 회색부패의 정의	11
1) 부패 정의	11
2) 회색부패의 정의	19
(1) 회색부패의 재정의	19
(2) 관행화된 회색부패(Customized Gray Corruption, II 유형)	25
(3) 특권화된 회색부패(Privileged Gray Corruption, III 유형)	27
3) 회색부패의 재정의와 이론적 쟁점	30
2. 회색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	32
1) 경제교환이론-Rose-Acker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33
(1) 경제교환이론의 주요 내용	33
(2) 경제교환이론과 회색부패의 쟁점	37
2) 사회교환이론-인류학의 부패연구를 중심으로	40
(1)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내용	40
(2) 사회교환이론과 회색부패의 쟁점	45
3) 회색부패 인식에 관한 이론	47
(1) 사회인구학적 변인	48
(2) 개인 가치관	52
(3) 사회제도, 조직문화	60

(4) 회색부패 측정에 관한 논의-Peters & Welch(1978)의 연구사례	67
3. 회색부패 연구의 의의	72
Ⅲ. 연구문제 및 자료수집	77
1. 연구문제	77
2. 자료수집	87
1) 자료수집 방식: 설문조사	87
2) 조사대상 및 표본 선정	87
3) 조사기간	89
4) 설문조사 결과	90
Ⅳ. 회색부패의 측정과 유형	92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92
2. 회색부패의 측정과 인식분석: 회색부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93
1) 시나리오의 구성	93
2) 시나리오의 측정 결과	101
3. 시나리오 별 회색부패 유형의 탐색	109
1) 선물형 회색부패	110
2)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11
3)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11
4)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12
5)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12
6) 피해은폐형 회색부패	113

7) 배려형 회색부패	113
8) 회색부패 유형화의 시사점	114

V. 회색부패 인식의 유관요인 116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116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	125
1)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126
(1) 시나리오1	126
(2) 시나리오5	127
(3) 시나리오12	128
2)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29
(1) 시나리오2	129
(2) 시나리오8	131
3)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33
(1) 시나리오3	133
(2) 시나리오13	134
4)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36
5)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137
6) 선물형 회색부패	139
(1) 시나리오7	139
(2) 시나리오9	140
(3) 시나리오11	142
7) 배려형 회색부패	143
8) 분석결과의 종합	145

3. 회색부패의 상황과 경험	148
1) 적당한 거짓말과 조직문화	148
2) 부패경험과 공공선	154
3) 회색부패 발생에 관한 이론화	156
VI. 결론	160
1. 이론적 시사점	160
2. 정책적 시사점	16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3
참고문헌	165
부록: 설문지	182

<표 그림 차례>

<표 1> 하이덴하이머의 회색부패 정의	20
<표 2> 수정된 회색부패의 정의	24
<표 3> 경제학과 인류학에서의 부패연구의 특성	47
<표 4> 공직체계의 유형과 한국의 공직체계	65
<표 5> 개인/조직문화에 따른 부패인식 정도	83
<표 6> 설문조사 협조기관	89
<표 7> 설문조사 조사 결과	90
<표 8> 시나리오의 측정	94
<표 9> 시나리오의 측정과 내용	99
<표 10> 시나리오의 기초통계	101
<표 11> 시나리오 별 처벌강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표	103
<표 12> 처벌강도에 대한 요인적재량	109
<표 13> 회색부패의 유형	114
<표 14> 기초분석에서의 독립변수 및 측정	118
<표 15> 적당한 거짓말 변수의 측정	121
<표 16> 조직문화-법 규범 강조 정도	122
<표 17> 과거-공공선	123
<표 18> 과거 부패 경험	124
<표 19> 시나리오1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27
<표 20> 시나리오5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28
<표 21> 시나리오12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29
<표 22> 시나리오2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31
<표 23> 시나리오8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32

<표 24> 시나리오3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34
<표 25> 시나리오13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35
<표 26> 시나리오4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37
<표 27> 시나리오6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38
<표 28> 시나리오7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40
<표 29> 시나리오9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41
<표 30> 시나리오11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43
<표 31> 시나리오10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145
<표 32> 기초분석 결과의 종합	146
<표 33> 회색부패의 상황	153
<표 34> 회색부패와 부패경험	156
<표 35> 회색부패의 상황과 경험	158
<그림 1> Sandholtz & Taagepera(2005)의 문화구분	55
<그림 2> 연구문제의 흐름	86
<그림 3> 부패이다 아니다의 응답비율	107
<그림 4> 처벌강도에 대한 각 시나리오 별 표준편차	108
<그림 5> 회색부패 기초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119
<그림 6> 상황과 경험에 따른 회색부패 인식과의 관련성	125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회색부패(Gray Corruption)는 흑색부패(Black Corruption), 백색부패(White Corruption)와 대비되어 부패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패, 처벌을 해야 할지 아닌지 모호한 부패를 말한다.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 관심은 주로 부패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탐구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 관심은 많은 경우 더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첫째, 기존의 부패 연구 경향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부패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음 여러 가지 이유로 부패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연구대상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많은 부패 연구들은 회색부패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확실한 흑색부패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회색부패를 탐구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회색부패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며, 나아가 이를 어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며, 이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관하여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회색부패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예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적당한 금액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 금액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즉 김영란법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3,5,1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부패와의 연결고리가 인정되고 그 이하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는 회색부패의 문제

와 밀접히 관련된다. 즉 동일한 행동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은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의심받는 반면에 그 이하는 부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즉 부패인것과 아닌 것, 처벌 받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회색부패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란법이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관용하는 이유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과 사교나 의례 그리고 부조 등을 위해” 활용될 경우 허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하는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도 부패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부패행동이 관용받기도 또는 비난받기도 하는 것일까.

부패의 구체적 현상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양한 부패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범죄행위와 별 다를 바 없는 부패 현상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부패라 생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할 것이다. 반면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는 사소하고 애매모호한 부패 현상들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여 주변 동료의 관훈상제에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한다면 이는 부패한 행위일까 아닐까.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위배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행위이지만 사회의 관습 상 경조사비를 10만원 지출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부딪치는 부패의 문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문제들이다.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경찰이 신호위반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감해 준다거나, 행정부 소속의 국회 협력관이 국회의원실을 계속 출입하며 보좌관들에게 지출의 범위 내에서 계속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국회의원이 매 년 500만원의 합법적 정치후원금을 내는 선거구의 지역주민을 위해 압력을 행사해 해당 지역주민의 소유지 용지변경을 해준다든지 하는 일 등은 합법

과 불법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적 상규와 아닌 것 사이의 애매한 경계에 위치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부패현상은 복합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연구가 바로 회색부패(Gray Corruption)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즉, 회색부패는 부패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는 것(Heidenheimer, 1970)¹⁾에 관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색부패 현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회색부패의 연구가 미진한 것은 연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회색부패는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이는 부패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있지만 회색부패를 정의하는데 있어 집단의 차이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하이덴하이머의 정의는 집단의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하기에 회색부패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구축이 어렵다. Peters&Welch(1978)은 부패의 구성요소를 세분하여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였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구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두 번째로 회색부패는 측정이 어렵다. 회색부패는 빙산모형에 따를 때 수면 아래 존재하는 부패이다. 수면아래 존재하는 부패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측정이 어려운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는 회색부패와 일반적인 부패(흑색부패)와의 관련성이나 회색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는 부패연구에 많은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회색부패 연구는 첫째, 부패의 실체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후술하겠지만 기존의 부패연구는 범죄행위에 가

1) 나아가 이러한 회색부패는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Peters&Welch, 1978).

까운 흑색부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색부패에 대한 접근은 부패연구에서 꼭 필요하지만 간과된 부분이었다.

특히 부패는 흔히 빙산 모형(iceberg model)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실제 관찰할 수 있는 부패현상은 수면위에 있는 일부에 불과하고 수면아래 있는 관찰할 수 없는 부패의 현상과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부패에 관한 연구는 일부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회색부패에 관한 연구는 수면아래에 위치하는 빙산에 대한 탐사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회색부패가 형성 또는 완화되는지, 그리고 회색부패와 부패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사는 부패연구에 풍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는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이다. 곧 시행될 예정인 소위 김영란법은 부패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다. 그러나 지나친 적극성이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해치고 권력의 집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식사, 선물 등의 시장경제에 지나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즉 김영란법으로 구체화될 논쟁은 회색부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쟁점들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쟁점의 핵심은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부패의 요소들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들 사이에 빚어지는 혼란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식사대접, 선물문화나 명절 인사문화는 지나칠 경우 부패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이거나 미풍양속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실 상 김영란법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 문화적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패의 부정적 현상들만을 제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부패이론은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부패이론은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부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편익과 부패행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부패

행동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사회교환이론은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와 상황을 강조한다. 따라서 왜 어떤 부패는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가진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회색부패를 탐구하는 데 있다. 회색부패는 애매모호한 부패를 말하는 것이지만 부패 또한 그 정의에서부터 애매모호하다. 부패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패의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불확정적이라는 점에 있다. 즉 부패개념 자체가 역사성과 문화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패 정의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패와 회색부패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부패 개념 정의의 불확실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패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에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이러한 지대가 바로 회색부패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회색부패는 부패연구에 있어 부패 정의의 모호함의 문제와 결부된 회색지대에 돋보기를 확대하여 회색부패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부패 정의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를 호소하면서 시작하는 부패연구들은 매우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부패 정의’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특정 부패현상(예를 들어 뇌물)에 집중하거나 국가 수준의 데이터들(Corruption Perception Index) 등을 활용하거나 참여관찰을 통해 하나의 사례나 쟁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빙산의 일부에 관한 연구이어서 부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패연구의 개념으로부터 부패 정의가 왜

모호한지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회색부패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회색부패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회색부패 현상을 부패 이론의 연장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크게 경제교환행위이론과 사회교환이론으로 나누어 회색부패 연구와의 관련성을 탐구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연구문제들을 토대로 회색부패의 현상을 관찰 측정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식으로, 부패를 개인의 경제적 교환행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기반 하여 개인의 인센티브(incentive)에 따른 비용과 편익(cost and benefit)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하여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제도적 개선이 대안이 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부패현상은 제한적이다. 부패를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보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부패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정치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합리적 인간관에 부합하지 않는 부패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어려워진다.

반면, 부패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은 정치경제학적 입장과는 반대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류학은 그 연구방법의 특성 상 특정한 사회나 공동체의 특수한 문화적 현상에 집중하며, 참여관찰의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참여 관찰의 방법을 활용한 부패 연구는 그 현상을 그 사회만의 독특한 교환행위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교환행위는 서구산업사회의 관점에서는 부패이지만 현지의 문화적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부패가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전관예우’현상, 이나 촌지(寸志)²⁾라던 지, 중국의 판시현상, 러시아의 블랏과 같은 현상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독특한 결과로 이해 될 수도 있는

2) 물론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관예우나 촌지를 부패라 생각한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연구의 전체적 측면을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체계적 연구(systemic research)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부패연구의 비체계성은 비단 부패연구에서 뿐 아니라 부패 문제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정책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 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벤처여검사 사건”³⁾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당하고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을 중심으로 소위 김영란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표결을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 부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대가성 여부 입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다. 나아가 이법은 부패의 적용범위를 언론인과 사립학교의 교육자까지 확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하고 ‘사소한’ 부정부패 행위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기업가가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부패행동이 되고 그 이하는 관용할 수 있는 친교 관계이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떡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민간 기업인들끼리 사업논의를 하기 위해 5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부패가 아닌 것과 비교한다면, 그 금액의 크기가 작아서 부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부패행동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의 반대의견을 개진할

3) 소위 벤츠여검사 사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검사와 변호사 간에 발생한 일이다.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해주었지만 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다(<http://news.joins.com/article/17343622>; 검색일:2016.3.1.)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의 배경에는 우리는 부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패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가 존재한다. 무엇이 부패이고 아닌지에 대해 각자의 개인들은 동일한 행동들에 대해서 부패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다른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회색부패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부패 개념들과 회색부패에 대한 탐색을 통해 회색부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은 집단의 판단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바 집단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면 다시금 회색부패의 개념은 혼란스러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회색부패 개념을 찾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회색부패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념적 탐구를 통해 도출된 두 개의 회색부패를 중심으로 각각의 회색부패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해 볼 것이다.

회색부패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탐사를 바탕으로 실제 회색부패의 현상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될 것인데 이 때 중요한 것은 회색부패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 아이디어는 Peters&Welch(1978)에서 구체화 되어 있다. 그들은 부패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부패를 4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부패행위를 하는 공직자의 특성이며, 두 번째는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사람, 즉 청탁자이다. 세 번째는 청탁자가 청탁하는 내용(favor)이며, 네 번째는 공직자가 청탁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payoff)이다. 네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부패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패는 명확히 부패이며 다른 부패는 부패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총13개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부패를 포함하는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회색부패의 특성에 따라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적 과정을 통해 측정된 시나리오들이 회색부패와 부패 사이의 다양한 국면들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나아가 시나리오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기에 때문에 광범위한 회색부패 현상을 모두 시나리오에 기반 해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13개에 대한 특정한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요인분석의 방법을 통해 특정한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시키고 명명하는 작업을 거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향후 회색부패 연구의 탐색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측정할 수 있는데 패턴을 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측정한 개인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차이에 따라 회색부패에 대한 판단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회색부패에 대한 기초적 측정과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변수를 발굴해 보았다. 첫 번째 변수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변수이다. 흔히 부패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부패를 조장하는 문화나 사회적 구조로부터 온 것인지의 논쟁이 존재한다 (Granovetter,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 규범에 대한 준수와 거짓말에 대한 용인도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법규범 준수 의식과 부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부딪치는 거짓말에 대한 생각과 부패인식과의 관련성은 탐구해보지 못하였다. 또한 나아가 공동체의 공식 규율이라 볼 수 있는 법규범에 대한 준수의식과 개인의 양심과 관련되는 거짓말에 대한 생각의 상호 작용에 따라 크게 네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지는데, 1) 법규범을 준수하고 거짓말에 엄격한 집단, 2) 법규범을 준수하나 거짓말에 관대한 집단, 3) 법규범에 관대하고 거짓말에 엄격한 집단, 4) 법규범과 거짓말에 모두 관대한 집단이 그것이다.

이 집단별 성향에 따라 부패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집단 규율과 개인 양심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과거의 부패경험이다. 부패 경험이 향후 부패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서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과거의 부패 경험은 부패를 더욱 비판적으로 보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패를 일상에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로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부패경험이 과거의 도덕 수준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들로부터 다시금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쟁점 및 선행연구

1. 부패 및 회색부패의 정의

1) 부패 정의

Sandholtz & Koetzle(2000:34)는 부패 정의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부패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이다. 즉 부패는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영역이 무엇인지 사적영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하지 못하다. 물론 명약관화한 것들이 존재한다. 공적영역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공 책임이라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공공책임이라 규정되지 않았지만 공공책임이라 생각되어지는 문제들, 반대로 공공책임이 아니라 생각되지만 공공책임이라 규정된 문제들⁴⁾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시공간과 상황적 맥락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둘째, 부패는 부패행위자들 사이의 교환행위라는 것이다. 즉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무엇인가를 교환(exchange)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교환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또는 추상적 법 주체와의 교환행위로까지 확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겉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교환행위이지만 그 목적이나 내용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능하며 심지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4)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의 문제에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한겨레:2015.4.6.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273.html: 검색일(2016.4.6.)

서도 교환행위가 발생가능하다.

셋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기준의 위배라는 점이다. 이는 부패 정의의 가장 까다로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2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첫째는 가치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란이다. 즉 어떤 가치기준을 위배하였을 때 부패라 생각되어지고 어떤 가치기준은 위배하여도 부패라 생각되어지지 않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살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금기시 하는 행위들의 경우에는 논란이 적겠지만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법규의 준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부패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패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호한 부패 정의의 요소들 속에서 부패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부패인지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Nye, 1967; Heidenheimer, 1970; Peters & Welch, 1978; Husted, 1999). 이러한 일치된 부패 정의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패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지는 애매모호함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패의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관점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정의들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을 밝힌 다음,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부패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를 정의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는 부패의 정의와 관련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89:4-6)에 따르면 부패에 대한 정의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직자의 역할 내지는 책임과 관련된 관점, 두 번째는 시장 중

심의 관점, 세 번째는 공익과 관련된 관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학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부패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Scott, 1972:3). 공익적 관점(public interest), 여론적 관점(public opinion), 법적 규율 관점(legal norms)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되는 공익적 관점을 제외한 총 5가지의 부패 정의의 관점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공직 중심 정의(public office centered definition)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부패를 정의한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는 공적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부패 정의가 결정된다. 공적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율이 정하는 공직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구체적 상황 속에서 법이나 규율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적 책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패 정의의 모호함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시장 중심 정의(market centered definition)이다. 이는 주요 경제주체들 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회적 관계들을 이해하며, 공직자들이 공공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행동의 한 유형으로 부패를 이해한다. 이는 부패를 시장 교환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면이 있으나 시장 교환의 어떤 특성이 부패로 연결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국 공익이나 공공의무, 법적 규율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는 공익 중심(public interest centered)의 정의이다. 공적 직위나 책임이 아니라 공공질서나 공익적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공공이익이 침해되거나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패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세 번째 정의 또한 공공이익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 즉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곧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익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 정의의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는 여론 중심의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는 대중 여론이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패라고 규정짓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국가나 문화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부패에 대한 대중의 생각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정의이지만 부패 정의의 외연을 규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여론 또한 공적의무, 공익,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구성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론 그 자체로만 부패를 판단하는 것은 부패의 실질적 구성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여론적 정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패라 판단하는 사람이 100%가 아니라면 어느 비율 이상이 되면 부패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문제 또한 존재한다.

다섯째는 법적 규율 중심의 정의이다. 이 접근은 법이나 규율로 정의한 것을 부패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법의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부패를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첫째는 그 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패의 문제는 없는가이다. 즉 법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은 엘리트들의 결과물일수도, 민주주의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또한 법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패의 정의 방식들은 부패의 중요한 측면들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공적 의무, 공익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적 접근 방식은 부패행위를 시장 교환과 유사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부패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여론적 정의와 법적 규율에 따른 정의 또한 부패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준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부패 정의의 어려움은 부패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속성에 기인한다. 즉 부패라고 할 때 특정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기준에 대한 일치된 합의의 부재는 부패 정의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무엇이 공익인지, 합법인지, 공적의무인지 등의 문제는 특정한 가치판단을 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는 곧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며 결국 개념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Johnston(2005:12) 또한 “남용(abuse), 공공영역(public), 사적영역(private), 이익(benefit)”의 정의, 즉 외포와 내연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패 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로부터 우리는 부패 정의에 있어서 가치판단에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공직중심의 정의로부터 무엇이 공적의무인지, 공적책임인지 아닌지가 부패판단의 주요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적의무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율로 규정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도덕상식이나 윤리기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중심의 정의로부터 공적의무를 위배한 자기 이익 극대화 행동이기 때문에 공적의무의 위반이 무엇인지의 쟁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공익중심의 정의에서는 무엇이 공익(公益)인지가 가치판단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네 번째는 여론중심의 정의이다. 여론중심의 정의는 무엇이 여론의 부패판단기준인지에 대해 답을 주지는 않지만 이 정의에 따를 때 부패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법적 규율 중심의 정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법과 규율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패의 정의로부터 부패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공적의무위배 여부, 법과 규율의 위배여부 도덕 및 윤리의 위배여부, 공익의 침해 여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여론중심의 정의에 따를 때 부패판단은 위의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의무의 위배 여부는 법과 규정을 위배하였는지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였는가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결국 부패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3가지 중요한 이슈는 첫째, 이 행동이 법이나 규율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사회가 받아들이는 윤리 및 도덕적 가치

를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셋째 사회의 공동이익 내지는 공익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가 부패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추출해 볼 수 있다.

만약 부패를 판단함에 있어 법, 윤리, 공익적 판단이 일치할 때에는 부패판단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패판단의 모호함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Torsello(2011:7)는 “법은 무엇이 부패이고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실행 그리고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법이 제공하는 부패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만약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의가 법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면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부패판단 기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실행이 정치 엘리트들(elites)에 의해 주도되고 그들이 일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법은 권력계층에 유리하게 되거나 사문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패판단은 대중의 인식과 법의 인식에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된다(Gledhill, 2004; Pardo 2004a).

즉 권력에 더 강한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의 속성은 부패인식에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Harrison(2004)은 권력이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라고 생각되는 행동일지라도 권력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은 선물, 사회적 의무 등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부패라고 이해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뇌물, 부패라고 부르지 않고, 전관예우(前官禮遇)라든지 명절떡값 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행위의 부정적 의미를 감추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법 그 자체로도 부패의 애매모호함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문자화 된 법률로 구체화 된 부패의 범위는 해석의 열린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 현실에서 부패판단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체제의 성

격에 따라 법의 제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부패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Morzol & Ogorek, 1992:62). 자의적 법 제정 및 적용의 반복은 법규범과 윤리규범의 괴리를 유발한다. 즉 윤리적으로는 옳은 행위여도 불법일 수 있는 반면에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벤츠여검사 사건은 법의 부패인식과 국민의 부패인식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이다. 벤츠여검사가 받은 차량 및 금품은 법인식에 의할 때 뇌물로 판단되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로 판단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무죄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여론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는 결국 김영란 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5년 3월 27일 통과되어 1년 반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 그리고 무엇이 공익인가의 문제로 나아가면 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다양한 사회의 윤리 및 도덕 가치관은 상충되는 판단기준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가치관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에 더 가중치를 줄 것인지에 따라 동일한 행동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벤담 식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공익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롤스 식의 최소극대화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삶의 질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나 경제발전과 같은 양적 성장을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Abraham & Schendel(2005)은 부패를 국가로부터 정당화되는 행동과 국민들로부터 정당화되는 행동을 구별하였다. 즉 법에 의한 부패 판단과 윤리적, 공익적 부패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

에서 Lomnitz(1995:41)는 멕시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 농촌 지역 사람들의 경우 법인식과는 달리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멕시코 농촌 지역에서 정부의 관점에서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하여 윤리적 죄의식을 가지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상의 점에서 보면 부패 정의에 있어 애매모호함의 문제는 부패 판단에 있어서 법이나 규율과 같은 공식적 규범, 그리고 윤리나 도덕이나 같은 개인의 가치판단의 기준, 그리고 공익이나 사회의 집단 이익의 침해와 같은 복합적 기준들이 상호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현상들(범죄라고 인식되는 뇌물, 부정청탁 등의 행위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이다. 보편적으로 부패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경제학자들-대표적으로 Rose-Ackerman, Klitgarrd-이 경제적 교환의 관점에서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의 원인과 처방을 탐색하여 부패현상의 일정부분을 다루어왔다.

반면 부패현상의 사회적 맥락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부패 현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여 왔다. 전자와 같은 연구는 부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지만 부패의 애매모호한 현상에 대해서는 회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 부패의 사회적의미를 탐색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부패 연구의 체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한 부패 현상에 천착하고자 한다. 이를 지칭하는 부패현상, 즉 회색부패는 부패의 중요한 국면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로부터 시작해서 부패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회색부패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2) 회색부패의 정의

(1) 회색부패의 재정의

회색부패를 처음으로 정의한 학자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70)이다. 그는 부패를 흑색, 회색, 백색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대중과 공무원 간의 부패인식의 합의여부이다. 즉, 흑색부패는 대중과 공무원 모두가 나쁜 행위에 대해 부패라 인식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에 백색부패는 대중과 공무원 모두가 나쁜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고, 처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회색부패는 해당 행위가 흑색인지, 백색인지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하이덴하이머는 이러한 회색부패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이덴하이머가 회색 부패 인식의 기준점을 공무원과 대중으로 구분한 것은 부패의 정의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패 현상은 정부 현상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향후의 연구인 Peters & Welch(1978)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회색부패의 속성을 공무원과 대중이 아닌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는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며 부패의 외연을 넓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즉 부패가 단순히 공무원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 공적 영역을 개인의 직무 개념으로 이해한 공적 책임 또는 공익(public interest)과 연계시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Peters & Welch(1978)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어 설명하면서 내집단은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공무원 집단을 말하고, 외집단은 일반대중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점에서 그들은 내집단을 (정치적) 엘리트집단으로, 외집단을 대중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상의 설명을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대중과 엘리트가 부패행위에 대해 관대한지 엄격한지에 대해 구별을 하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때 회색부패에 해당하는 유형은 Ⅱ,Ⅲ 유형이 된다.

<표 1> 하이덴하이머의 회색부패 정의

부패행위		대중, 국민, 외집단	
		관대	엄격
공무원, 엘리트, 내집단	관대	백색부패(Ⅰ), 일상행위	회색부패(Ⅱ)
	엄격	회색부패(Ⅲ)	흑색부패(Ⅳ)

여기서 회색부패 정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회색부패를 구분하는 준거집단인 공무원, 내집단, 엘리트와 대중, 국민, 외집단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는 권력과 자원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중이나 국민은 일반적으로 여론 내지는 유권자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다면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부패현상들은 각기 다양한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패현상을 주도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집단과 아닌 집단은 부패현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기업가사이의 부패와 판사-변호사 사이의 부패 현상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세무공무원-기업가 사이에서의 내집단은 세무공무원과 기업가이고 외집단은 국민이라고 한다면 외집단의 범주 안에 판사와 변호사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반면 판사-변호사 사이의 부패 현상에 대해서는 세

무공무원과 기업가가 외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내집단이면서 동시에 외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색부패의 현상을 단순히 공무원과 국민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엇이라고 보아서는 논의의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회색부패에 대한 판단을 집단의 속성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단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집단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색부패의 판단 준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하이덴하이머는 회색부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색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임을 지적하였다. 즉 위의 <표1>에서 도출된 회색부패 유형2, 유형3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됨을 지적하였다. 회색부패는 엘리트 집단과 대중집단의 인식의 차이(gap)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엘리트와 국민을 포함하는 대중 전체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하이덴하이머의 우려와 일치한다.

그러나 회색부패의 유형2,3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회색부패 정의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회색부패 유형3은 엘리트 집단에서는 관대하지만 대중에게는 엄격한 회색부패 유형이다. 이러한 회색부패는 권력계층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부패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헤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적으로 구성된 권력계층일수록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대통령들의 친인척의 부패 적발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신뢰 수준이 급격한 하락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회색부패 유형2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는 관용 받지만 오히려 엘리트 집단으로부터는 처벌받는 회색부패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부패의 유형은 일종의 관행화된 부패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인해 민주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관행화된 부패는 종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형성해온 사회적 관행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다는 어떤 점에서 법이나 규범이 적당히 수용할 필요가 있는 행동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에 금주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 국민이 일제히 금주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제조 유통하고 범죄세력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처럼, 관행화된 부패 그 자체가 민주적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회색부패의 개념은 집단을 그 준거로 삼음으로써 그 자체로 모호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집단의 성격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며, 부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내집단과 외집단의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단에 의존하는 회색부패의 판단기준은 다시금 모호함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회색부패 개념의 모호함은 다시금 회색부패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추론을 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의 판단을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이 가지고 있는 내집단, 엘리트, 공무원과 외집단, 대중, 국민이 가지고 있는 준거 기준을 제도적 차원으로 추상화 시켜 재정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개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Harbermas, 2000). 하버마스는 법의 의미를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민주주의 차원과 사회맥락적 차원이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를 과거 부르주아 계급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지배계층이 된 부르주아 계급이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 규율인 법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삼권분립에 기반 한 입법과정을 통해 절차적으로 제도화 시켜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인 일반 국민 전체를 공식적으로 규율하고 설득 없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法)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은 이상적으로

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타당성(공정성)을 가져야 하지만 사실적(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는 간극(gap)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은 사실성과 타당성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현대 산업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잡성은 법과 현실 사이에 더 큰 간극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나아가 하버마스는 국가가 제도화된 공식세계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세계를 구별하였다. 공식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은 법이나 공식적 규율이다. 반면 생활세계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장이다. 이곳에서의 규율은 공식세계와의 규율과 간극(gap)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공식세계의 규율인 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공식적 규율인 반면에 생활세계에서의 규율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람사이의 규율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제도화한 공식세계와 일상생활 세계 사이의 간극(gap)은 정치의 성장점이자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간극의 의미가 바로 생활세계에서의 민주주의의 결과물과 공식세계에서 절차적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의 결과물과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보면 하버마스는 부르주의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치투쟁의 장소로 공식세계와 생활세계의 간극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간극에서 무엇이 정당한가의 토론이 발생하며 이는 공론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론장에서의 토의 민주주의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한 바 있다(유홍림, 1997). 이러한 공론장에서의 토론은 무엇이 공동체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의 장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정치와 토의 민주주의가 아닌 부패와 회색부패의 구조의 논의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내집단, 공무원, 엘리트 집단이 의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제도화된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공식세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 규범으로 대표된다. 외집단, 대중, 국민은 일상의 생활세계에서의 규범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공식세계에서 부패라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것, 생활세계에서 부패라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어 보면 총4개의 부패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공식세계(국가의 제도)와 생활세계의 습관, 규범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색부패의 현상은 공식세계와 생활세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나 규칙과 같은 상위규범이 있으며, 실제 일상생활의 가치기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토대로 구성된 하위 규범의 관점으로 회색 부패의 현상을 재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규범은 정치적 엘리트들, 공무원들이 주도하여 만든 준거라는 점에서 내집단의 준거틀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된 생활규범이나 관습, 습관, 상식과 같은 하위규범은 대중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외집단, 국민,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식세계와 생활세계의 가치기준에 따라 흑색, 회색, 백색 부패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표2>에서와 같이 공식세계와 생활세계가 모두 부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흑색부패, 공식세계와 생활세계가 모두가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행위, 공식세계와 생활세계의 부패 인식이 엇갈리는 영역은 회색부패의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⁵⁾.

5) 애초의 개념에 따르면 백색부패(White Corruption)는 상위규범에서는 불법이어 부패라 판단되지만 하위규범에서는 매우 관대한 유형이어서 회색부패(II)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색부패와 백색부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에 부재에 있다. 즉 백색부패는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에 이른 부패임에 비해 회색부패는 처벌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패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공식세계와 생활세계 모두가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백색부패가 아니라 일상행위이다.

<표 2> 수정된 회색부패의 정의

부패행위		생활세계	
		엄격	관대
공식세계	불법(不法)	회색부패(I)	회색부패(II)
	합법(合法)	회색부패(III)	일상행위

위와 같이 재정의된 회색부패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회색부패의 성질을 가지지만 부패 판단의 관용 주체가 공식세계나 생활세계나에 따라 개념적으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상반되는 회색부패의 개념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르게 명명할 필요가 있다.

(2) 관행화된 회색부패(Customized Gray Corruption, II유형)

회색부패(II)의 유형은 공식세계의 규율이라 볼 수 있는 법이나 규율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만 생활세계의 대중들은 관대하게 인식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라 볼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각종 경조사에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경조사비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말미암아 10만원 정도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경우 규정에는 분명히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심각한 부정부패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공익에 큰 침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규율위배는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이해될 수도 있고, 법을 위배하지만 사회의 이익이 증진된다면 관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적 관습과 유사한 구조나 의미를 가질 때 쉽게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스승의 날과 같은 사회적으로 긍정되는 행사에 있어 선물(gift)과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색부패의 유형은 대중이 넓게 관용하되 법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회색부패(Customized Gray Corruption)로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회색부패가 하이덴하이머가 지적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국민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인식과 일반 대중의 인식간의 괴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인식과 법인식 간의 불균형이 지속될 때 법의 지배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적 질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의 누적이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중 회색부패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사회관습은 공동체의 질서와 통합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을 부패라 규정하고 금기시 할 경우 사회적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한 문화가 외삽된 법이나 규정에 의해 사라질 경우 발생하는 질서의 공백 상태인 아노미(anomy)상태의 사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중 회색부패의 경우 오히려 그것을 사회적으로 금기시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법의 관용범위를 늘려주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허용해줄 때 민주적 질서가 강고해 질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3) 특권화된 회색부패(Privileged Gray Corruption, III유형)

반대로 법은 합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하지 않지만 대중들은 엄격하게 인식하는 유형의 회색부패(III)행위 또한 있다. 이러한 부패는 관행화된 회색부패와는 상반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즉 법은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는 부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여론이나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비난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또한 법망을 피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은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법이나 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 법이나 공식적 규율의 맹점을 잘 알고 있어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단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법이나 제도 규율을 제정 집행 관리하거나 심사하는 영역(예를들어 사법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대중에게 공개되게 되면 큰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받는다는 점에서 업무처리의 구조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전문화된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업무처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외부의 접근이 어렵고, 전문화 될수록 외부의 감시나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 업무문화는 폐쇄적 집단문화를 가지거나 특권화된 형태의 조직적 특성을 가지는 집단과도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특권화된, 폐쇄된 조직은 만약 그 집단의 직업 문화가 부정한 행동에 대해 관대하거나 이를 부정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부상조라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는 문화를 가졌다면 폐쇄적 조직문화와 함께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가 오히려 만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은폐되는 성향이 있다. 즉 비윤리적 성격이 강하나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이

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여론에 의한 새로운 규제나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흑색부패의 형태로 변화해 나아갈 수 있기에 이러한 형태의 부패의 보편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부패의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前官禮遇)와 같은 현상도 단어 자체의 의미와 현상의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관예우의 단어 자체는 과거의 관리를 예의로 대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상은 전관에 대한 부정한 경제적 소득을 올려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소수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식인 집단이나 폐쇄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보의 외부유출이 제한적일 수 있는 집단에서 형성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들 수 있겠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법시험 선발자들 만을 뽑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충원하였기 때문에 폐쇄적 조직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사적 연결망과 폐쇄적 집단주의 문화는 법조삼륜이라는 말로도 드러나듯이 상부상조의 문화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 집단문화는 그들이 가진 법지식과 관계의 은폐성을 활용해 전관예우라는 말로 정당화 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법조계는 구조적으로 사법형성과정에서 법조계의 독립성은 잘 확보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지만 법조계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를 가속화시킨다(이국운, 2012a,2012b)

그러나 법조계 비리사건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전관예우 사례 의혹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사례들을 보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법망을 피해 또는 형해화 된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숨김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 등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전관예우 방지법이 있지만 그것을 피해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대형로펌에 취업하여 전관을 활용하여 단시간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고소득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회색부패는 특수화된 엘리트 집단의 이익추구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특권화 된 회색부패(privileged gray corruption)이라 볼 수 있다.

특권화된 회색부패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엘리트 계층이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법의 지배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법인식과 대중인식의 괴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인 국민에 의한 지배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이 관용하는(customized) 대중회색부패와는 달리 대중이 수용하지 못하는(unacceptable) 특권화 된 회색부패는 이러한 회색부패를 방지될 경우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권층의 부패현상에 대해 현대의 대중들이 만족할만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즉 대중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패를 계속 방지할 경우 정부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여 이의 정당성까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권화 된 회색부패가 가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성격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권적 지위 즉 일반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법조계 전관예우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만연할 경우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비용을 치루더라도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것이고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층간의 격차와 상실감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 회색부패에 대한 방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지배층,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의 질서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회색부패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라는 하이덴하이머의 지적은 특권화된 회색부패에는 매우 타당한 말이지만 관행화된 회색

부패에는 명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Ⅲ의 회색부패의 유형은 법은 관용하되 대중이 엄격하게 판단하며, 소수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지배층의 자기이익 추구의 행동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 회색부패의 재정의와 이론적 쟁점

이상의 논의를 보면 기존의 회색부패의 개념은 집단의 정의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구별되는 두 개의 회색부패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를 하버마스의 공식세계와 생활세계의 개념으로부터 두 개의 구별되는 회색부패를 추출하였다. 이는 관행화된 회색부패와 특권화된 회색부패이다. 이러한 회색부패는 관용하는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지만 공통된 성격도 가진다.

공통되는 회색부패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애매모호함(ambiguity)”이다. 즉, 동일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 내지는 집단은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부패라고 인식되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닌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경계에 위치하며 애매한 판단이 등장한다. 특권화된 회색부패는 다수가 부패라 생각하기에 모호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회색부패의 재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는 공식세계의 관점에서는 부패가 아니기에 애매모호한 부패라 할 수 있다.

그 애매모호함의 배경에는 부패를 판단하는 가치들 간의 충돌이 존재한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공식세계와 생활세계의 규범간의 가치충돌이라 볼 수 있다. 가치의 충돌은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낳게 되며 이는 부패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역동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회색부패의 특징은 집단 간 또는 사람들 간의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difference)”이다. 즉, 어떤 사람 내지는 집단은 부패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은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집단 간 개인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회색부패의 공통된 특성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사회적 합의의 부재’이다. 즉 부패인지 아닌지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세계와 생활세계간의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회색부패의 존재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회색부패에 관한 이야기는 부패정의와 관련된 이슈에서 심심치 않게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가 않다(예외적으로 Peters & Welch, 1978; 고길곤 & 조수연, 2012). 이러한 배경에는 부패를 다루는 이론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까지 부패를 다루는 주류 연구 분야에서는 부패를 국가수준의 문제로 보고 경제적 교환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행위는 국가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별 서열을 부여할 수 있는 지수(Index)를 개발 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폐습으로 간주 되어왔다.

반면 회색부패의 문제는 일단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르는 부패이다. 또한 회색부패는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사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부패현상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별로 부패를 서열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회색부패를 다루는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주장으로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입장에서 부패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일군의 학자들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참여관찰에 바탕을 둔 인류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생활현장에 대한 참여를 통해 상위규범에서는 부패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부패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를 탐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정체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회색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

본 연구에서 다루는 큰 이론적 쟁점은 경제적 교환 이론과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경제적 교환이론은 기존의 부패이론을 대표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흑색부패 현상을 설명하는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회색부패 현상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교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경제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부패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교환행위이다. 또한 합리적 계산 능력이 있는 인간이 표준적인 인간이다. 그러하기에 부패행위는 측정가능하고 인간 사이에 보편화될 수 있는 무엇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회적 교환이론에서는 사회적 의미와 맥락성을 중시한다. 여기서의 부패행위는 부패라는 사회적 의미가 담긴 교환행위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인간은 사회적으로 의미 구성된 인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행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한편으로는 부패로 규정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물이나 교환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다의성을 지닌다.

사회교환이론에 바탕으로 두고 부패이론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시발점을 본 논문에서는 Peters & Welch(1978)의 연구에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피고 이를 4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체계적 탐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이를 계승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1) 경제교환이론-Rose-Acker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1) 경제교환이론의 주요 내용

Rose-Ackerman(1978, 2006)으로 대표되는 부패에 대한 경제 교환 이론적 관점은 회색부패에 대한 직접적 관심보다는 부패연구를 이론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녀는 부패를 경제 교환행위(economic exchange)로 이해하였다. 즉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Becker(1968)와 Klitgaard(1988) 또한 부패를 경제적 교환행위의 일종으로 이해하며 이를 체계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부패행위의 함수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부패의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교환행위가 부패를 어떻게 구조화 시켜 바라보는 지를 잘 보여준다. Becker(1968:172)는 부패가 사악한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이라는 합리적 경제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Klitgaard(1988)는 부패함수를 구체화 하였다. 그는 부패 행동을 다음과 같은 함수로 구체화 하였다.

Klitgaard의 부패함수

$$C=M+D+H-A$$

C=Corruption(부패행동 가능성)

+M=Monopoly(경제적 지대(rents)가 발생할 수 있는 독점적 구조의 정도)

+D=Discretion(지대를 재량껏 분배할 수 있는 권력의 정도)

+H=Hidden information(부패행동에 활용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A=Accountability(정부나 시민사회가 부패행동을 감시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역량)

즉 이러한 구조 하에서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의 부패 행동은 정부의 역할이 독점적일수록, 그리고 정부 자원의 분배가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존할수록, 그리고 재량의 사용에 있어서의 판단이 정부나 공무원들만의 비밀정보에 의존할수록 부패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강할수록 부패행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부패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이론을 제공한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기본전제는 주인이 자신의 목적을 대신 추구해주는 대리인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부패 연구에서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리인은 공무원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이론에 바탕을 둔 부패연구에 있어서 부패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인센티브(incentive)의 구조에 의존한다.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이 행동하는 것이 대리인의 이익을 극대화되도록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리인(공무원)은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하므로 그 행동에 따른 비용과 편익(benefit)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부패행동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부패행동을 했을 경우의 비용과 편익과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과 편익을 형량 하여 부패행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Ackerman 주장의 핵심이다. 물론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private individuals and firms)은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든지 금품을 줄 의향이 있다고 전제한다 (Rose-Ackerman, 1999:31).

결국 주인-대리인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인이 아닌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이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공무원 사인(私人)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즉 대리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때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주인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 즉 대리인의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부패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즉 주인의 이익을 저버림으로써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Rose-Ackerman, 1978; Inman, 1987).

한편 Klitgaard(1988)은 부패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또한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경제적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지를 살펴 본 것이다. 자원의 왜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유한 집단, 즉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정치적 권력이 있는 집단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결속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자들 또한 부패의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 기존의 시장의 인센티브 모형을 바탕으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치와 관료의 제도에 기반한 부패 모형은 시장질서의 왜곡과 함께 민주적 정치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Rose-Ackerman, 1978).

이후 경제학적 연구들에 기반 한 연구들은 냉전시대의 붕괴와 더불어 일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구소련권 국가의 붕괴와 이들 국가들의 경제부흥이 국제기구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경제부흥을 저해하는 가장 장벽으로 부패를 지목하게 된 것이다. 이때 활발한 부패연구들을 진행한 학자들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주된 특성을 가진다(Johnston, 2005; Wedel, 2012).

첫째 부패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부패는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부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실제 반부패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구는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었다(Wedel, 2012). Lambsdorff(2006:4)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평가하며 부패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부패의 역기능에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부패현상을 국가에 내재된 현상이라고 가정하고 정부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연구들

이 국가수준의 분석단위로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부류의 연구들의 해결책은 아직 정부의 근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든다. 개발도상국의 개혁과 변화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줄이는 것을 통해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소련권 국가들의 붕괴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은 오히려 부패의 만연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존재한다(Shelley 1994, 1995; Stark 1990, 1992, Harrison 2004).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무원의 부패가 아닌 민간인의 범죄를 촉발시킨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Nelson & Kuzes, 1995:51).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의 바우처 제도의 보급을 들 수 있다. 러시아에 시장원리를 적용한 바우처 보급은 오히려 이를 매개로 한 부패를 활성화 시켰다. 이는 결국 부패를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Lambsdorff & Cornelius, 2000:76-77).

셋째, 부패는 지대를 추구하고 뇌물을 교환하는 관료들의 일회성 행동이라는 것이다(Wedel, 2012:467). 이와 같은 부패에 대한 이해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이라고 보는 관점과 맥락이 동일하다. 즉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부패는 독립적 공무원의 행동이고, 누구나 부패라고 생각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에 대한 인식은 부패를 저지르는 상황,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패들(흑색, 백색 부패)에 대해 상대적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를 1회적 거래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패를 거래함으로써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지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관계들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부패는 분석가능하고 서열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만들어내는 많은 지수들은 이러한 입장을 전제할 때 설득력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수들은 한국가의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기준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2) 경제교환이론과 회색부패의 쟁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부패에 대한 경제적 교환이론에서의 회색부패와 관련 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패의 정의와 관련하여서이다. 경제적 교환이론의 입장에서의 부패는 주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의는 부패 정의로 널리 알려진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이라 볼 수 있다. 즉 공무원이 공적 의무를 위배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교환이론의 입장에서 무엇이 공적의무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즉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모호함의 문제를 피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구별이 뚜렷한 뇌물과 같은 흑색부패에 가까운 행위들을 대상으로 그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에 외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부패에 대한 경제적 교환 이론적 접근은 회색부패의 정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교환이론에서의 부패의 정의는 흑색부패의 경우를 전제한다. 즉 경제적 교환이론에서 부패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부패이며, 처벌되어 마땅한 행위로 간주된다. Rose-Ackerman의 연구 또한 부패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뇌물(bribery)을 가장 전형적인 예로 생각하였다.

둘째 부패의 현상과 관련하여서 이다. 부패의 경제적 교환 이론적 입장에서는 부패를 일회성 게임으로 이해한다. 즉 각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든 기업가이든 항상 뇌물을 줄 의사와 받을 의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조건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부패라는 교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부패 현상은 다양한 이유로 일회성 게임이 아니다. 부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동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

간에 상호신뢰를 전제한다.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신뢰가 구축된 관계에서는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패 거래 행위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관계의 양상이 변화한다. 또한 학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법조계 전 관예우와 같이 학연혈연지연으로 중첩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현직 판검사들의 전관에 대한 예우는 향후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였을 경우 또 다시 현직 판검사들의 전관에 대한 예우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부패의 원인과 관련하여서이다. 경제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의 부패 현상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부패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도덕적 비용까지 계산해서 부패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부패 행동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한 집단이라면 자신이 부패행동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은 집단의 암묵적 규율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Banfield(1958)는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였다. 즉 비도덕적 가족주의 하에서의 부패가 오히려 더 일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집단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통해 집단의 특성이나 문화가 부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부패 행동의 동기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많은 인류학 연구들에서는 법, 공식규율 등에서는 부패로 규정되지만 생활관습, 관행, 사회문화 등에서는 부패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하는 많은 행동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 부패로 또는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적 교환의 관점에서는 부패행동이라 해석될 수 있어도 다른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들이 존재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호혜적 행동들이나, 사회적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행동들, 일의 효율을 추구하거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공식적 규율을 위배하고 하위의 문화들을 활용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부패의 일반화 가능성과 관련하여서 이다. 경제적 교환이론에서의 부패는 일반화 가능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흑색부패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는 세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이 되고, 측정될 수 있는 무엇이 된다. CPI지수와 같은 전 세계적 지표가 개발 적용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별 부패 수준을 측정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흑색부패의 측면만을 고려했기에 가능한 주장이다. 회색부패나 백색부패 현상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달리한다. 처벌에 대한 의사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흑색부패의 경우에는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백색은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회색부패에 있어서는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가 상반되거나 애매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 Persson et al.(2013)은 왜 부패방지전략이 실패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반 한 부패에 대한 설명이나 방지전략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패가 만연한 케냐와 우간다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패의 문제는 오히려 집합행동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였다. 즉 주인-대리인이론에서의 주인은 부패하지 않는 주인이라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반부패 정책은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부패하거나 비윤리적인 인간들 사이의 집합행동의 문제로 이를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결론적으로 경제적 교환이론에 기반을 둔 부패연구는 부패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 범위는 제한적이다. 즉 단순한 1회성의 흑색부패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풍부한 부패현상 특히 회색부패 현상과 백색부패 등 부패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폭

넓은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2) 사회교환이론-인류학의 부패연구를 중심으로

(1)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내용

부패현상에 대하여 경제적 모델을 구축하여 연역적으로 부패현상을 접근한 경제적 교환 이론적 입장과는 달리 인류학에서는 참여관찰에 토대를 두고 귀납적으로 부패현상을 탐구하였다. 따라서 인류학에서의 부패현상은 법에 기반한 상위규범이 아닌 생활현장에서의 하위규범에 대한 탐색이며 다양한 부패의 회색지대(gray area)에 관한 참여 관찰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류학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인 관점(holistic perspectiv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개의 독립된 기능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현상이 기능하고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K. Polanyi(2001)의 관점에서도 계승된다. 그는 배태(embeddedness)의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현상을 독립된 개인의 자유 활동의 결과로 이해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 즉 종교, 정치, 사회적 관계들 등이 배태되어 형성된 제도라고 이해한다. 이와 같은 폴라니의 관점은 합리적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하는 형식주의자(formalist)들의 입장과 대비되는 주관주의자적 입장(substantivist)을 지닌다.

인류학적 입장에서의 부패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前)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사회, 후기식민주의 사회 등 세계의 다양한 국가 및 사회에서의 부패현상들에 참여 관찰한 성과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인류학적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론 중 하나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사회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류학에서의 연구들은 부패를 탐구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관찰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Wedel, 2012).

많은 부패와 관련된 인류학 연구들은 실제로 부패라는 제목 하에 수행된 것은 아니다(Worldbank, 2006). 이러한 까닭은 인류학적 연구의 특성 때문이다. 참여관찰을 통한 현지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인류학적 연구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연구자료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현지주민들의 행동을 부패라고 규정 짓기 어려운 점등은 현상을 부패라고 명명짓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의 연구들은 부패와 관련되는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누적하고 있다.

특히 인류학은 부패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상행위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누적하고 있다 즉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선물교환행위, 사회적 연대, 호혜적 관계, 재분배, 비공식적 경제행위, 거래, 도덕과 관련된 경제행위, 정실주의, 연고주의, 관계망분석 등 부패현상과 관련된 많은 사회현상들에 관한 참여관찰적 연구 성과들을 누적하고 있다(Torsello, 2011:2-3).

부패와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들을 정리한 D. Torsello(2011:3)은 부패와 인류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부패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적절하다. 인류학에서 공공영역은 사적영역과 명확히 구별 짓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제도나 구조 같은 것들은 다른 영역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나 기관 같은 것들도 인간들의 생각과 의미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주관적 생각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료제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공공영역을 규정 짓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규정하는 부패의 정의와는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또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부패의 동기에 관하여 다른 사회문화적 조건을 강조한다. Hasty(2005:272)는 부패의 동기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동만이 아니며 권력과 특권 책임감에 대해 사회문화

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동기에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즉 부패를 경제적 교환행위에 제한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Schneider & Schneider(1999, 2008)는 시실리안 마피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일회적 교환이 아닌 부패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Yang(1994, 2002)의 경우에는 중국의 관시(gwanxixue)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선물 교환의 문화가 경제 발전에 오히려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Humphrey & Sneath(2004)의 연구는 국가 간의 문화차이 보다는 그 사회의 경제와 정부의 조건이 높은 수준의 뇌물과 낮은 수준의 정부신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인류학적 연구는 기존의 주류 부패연구들의 관점과는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와 같은 주류학자들이 고안한 지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단위로 부패지수가 측정되고 서열화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류학에서의 부패연구와 CPI지수가 제시하는 결과 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CPI지수는 상위20위 안에 드는 청렴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인류학에서 일본은 비공식적 영역의 일상행위들의 관찰을 근거로 부패한 사회로 이해된다.

인류학에서 부패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Pardo(2004)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라는 것이다(Pardo,2004:7). 즉 법, 사회규범 등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의 충돌과 갈등의 문제로 이해할 때 일반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부패현상과 정부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패현상의 중요한 부분이며 어떠한 행동들이 정부에 의해 또는 엘리트들에 의해 이해되고 간과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현상들은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어 정당화되고 보호받는 부패현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Shore and Haller(2005)는 푸코의 관점에서 부패현상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부패현상의 본질이 합법여부, 도덕성 여부, 여론의 의견이 아니라 정

부가 만들어내는 관행적 부패현상에 대한 의미(semantic of governance)에 주목하였다. Gupta(1995) 또한 인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시민들이 부패 현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지에 관심을 두었다. 인도인들이 희소성 있는 정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뇌물과 인맥을 활용하는지를 관찰하였다. Gupta는 비록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패행동은 비도덕적이고 불법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부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희석되는 현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인류학자들에 의해 부패는 도덕적 가치의 충돌 현상이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Pardo(2004)는 도덕적 판단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패는 일관되게 정의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Yang(2002)은 중국의 관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국인들의 관시 현상은 단순히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도덕, 가치관, 비공식적 네트워크, 교환의 특성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며 이를 합리적 관점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Rivkin-Fish(2005)는 구소련체제 붕괴이후 슬로바키아의 시골지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부패 현상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소련 붕괴이후 사람들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심리적 위축감을 부패 현상을 매개로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부패 현상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를 유지 및 강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기에 발생한다는 점에 핵심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있다. 즉 그는 부패의 현상은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과 유사 하며 비록 법규범은 부패라 규정할 지라도 현장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유사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De Sardan(1999) 또한 아프리카에서의 만연한 부패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e Sardan은 아프리카에 부패가 흔한 이유는 그것이 일상에 만연하고 관행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선물주고 받기, 중계 해주기, 사적 네트워크, 권위적 문화, 재분배 관습 등은 모두 합리적 시장 주의가 아닌 도덕 경제(moral economy)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서양의 주류 부패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로 보이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덕적 관습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교환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부패로 보이는 교환 행위를 거절하는 행위는 오히려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Hasty(2005)는 아프리카 지역의 반부패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부패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기원칙(self-discipline)적 행동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사소한 부정행위들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인식된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즉 이런 점에서 보면 도덕 가치들이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들은 사람들의 부패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며, 어떤 현상들은 심지어 도덕적인 행동이 곧 부패한 행동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hore(2005)는 EU civil service를 대상으로 부패현상을 탐구하였다. 그는 부패를 EU 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막스 베버의 합리적-법적 모형의 관점(Weberian legal-rational model)에서는 부패로 이해할지라도 EU civil service 구성원들이 속한 나라의 법적 문화적 전통의 관점에서는 부패가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오히려 EU 구성원들의 부패처럼 보이는 행동은 EU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Parry(2000) 또한 Shore(2005)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행동들은 때때로 과장되어 규정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경제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부패라 규정하고 이 부패들을 과거의 전통적 관습이나 문화를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고길곤·조수연(2012), 고길곤·이보라(2012)는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행'에 주목하였다. 고길곤·이보라(2012)의 논문에서는 관행을 부패 용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행화된

부패는 사소한 부패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게 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그들은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관행화된 부패를 선택하는 것이 진화우월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이 됨을 분석하였다.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과 부패가 결합하고 이러한 관행화된 부패가 만연할 경우 부패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에게 우월한 전략이고 나아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길곤·조수연(2012)의 논문에서는 시민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시민의 관행수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관행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행이 왜 부패의 주요한 요인인지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으며, 나아가 관행을 단순히 부패이지만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관행에 대한 논의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사회교환이론과 회색부패의 쟁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부패에 대한 사회교환이론에 바탕을 둔 인류학과 회색부패와 관련 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패의 정의와 관련된 쟁점이다. 인류학에서는 일관되고 일반화된 부패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해당 사례들의 의미들을 밝히는 데 주목하였을 뿐 이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들의 의미의 확장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부패 현상 내지는 회색부패현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회색부패 현상의 체계적 연구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패의 현상과 관련된 쟁점이다. 인류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패와 관련되는 현상에 대한 의미 탐색에 주목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부패는 일

종의 교환행위로 이해되며 여기서의 교환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담긴 교환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회색부패의 현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교환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류학의 연구들은 참여관찰에 기반한 연구라는 특성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population)의 특성에 대한 엄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인류학에서는 회색부패 현상에 대한 편린들을 수집하고 있을 뿐 전체적 그림이나 구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패의 원인과 관련된 쟁점이다. 회색부패와 관련된 많은 인류학적 연구에서 부패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된 사회구성망 속에서 여러 형태의 교환행위가 발생하며 이러한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부패행위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교환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호혜적 행위, 사회적 의무, 집단관행, 집단이익행위 등-행위이며 이를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회색부패 현상에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색부패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지 못하는 즉, 회색부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네 번째로 부패 현상의 일반화 가능성과 관련하여서이다. 인류학의 연구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많은 부패관련 연구 성과들을 누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의 누적이 부패 현상을 일반적으로 설명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인류학의 연구들은 회색부패 현상의 의미에 관하여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학의 연구들은 연구방법의 특성상 일반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표 3> 경제학과 인류학에서의 부패연구의 특성

구분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
부패 판단	부패	애매모호	부패
처벌 희망	처벌 바라지 않음	애매모호	처벌 바람
경제학적 접근 (경제교환)	-	-	연구대상 (체계적)
인류학적 접근 (사회교환)	연구대상 (사례연구 중심)	연구대상 (사례연구 중심)	-

이제까지의 논의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패 연구는 부패정의의 논란이 적은 흑색부패를 대상으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인류학의 관점에서 부패 연구는 사회적 교환의 의미를 담은 백색부패와 회색부패의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참여관찰에 기반 한 연구여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이론들의 특성을 종합해 보건대, 회색부패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교환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교환이론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회색부패 현상을 포괄하여 부패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Peters&Welch(1978)의 연구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3) 회색부패 인식에 관한 이론

회색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예외적으로 박광국, 1995; 조은경&이정주,2006; 변지은 등, 2007; 고길곤&조수연, 2013; 장이랑&박흥식, 2014; Welch&Peters 1977; Atkinson & Mancuso, 1985; Dolan et al.(1988), Mancuso, 1993; Jackson & Smith, 1993).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부패용인이나 관행 수용 등을 종속변수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인식과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들은 상당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은 해외 연구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변수로 나타난다. Gibbons(1990), Grabosky et al.(1987)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Atkinson 과 Mancuso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Gardiner(1970)은 Gibbons와는 반대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Jackson&Smith(1993)은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는 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하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진종순 & 서성아, 2007; 조은경 & 이정주, 2006). 이는 고연령자가 가족주의나 연고주의, 유교문화와 같은 전통문화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성별에 관하여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패에 더 엄격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된다(Welch & Peters, 1977; Jackson & Smith, 1993). 또한 Grabosky et al.(1987)의 경우 특히 화이트칼라 부패행위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엄격한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부패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차이가 있다는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패행동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진종순 & 서성아, 2007).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박광국, 1995). 한편, 고길곤과 조수연(2012:229-230)의 경우 관행의 유형에 따라 성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떡값이나

리베이트와 같이 남성이 노출빈도가 높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남자들이 더 관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육 수준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Welch & Peters(1977)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행위에 관대함을 주장한 반면, Gardiner(1970), Jackson & Smith(1993)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Atkinson & Mancuso (1985)는 교육 수준은 부패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고 하였다. Welch & Peters(1977)의 경우 표본이 주상원의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사회나 윤리적 가치를 더 학습하기 때문에 부패에 엄격한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진종순 & 서성아, 2007)이 있는 반면에 저학력자일수록 부패가 더 만연하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부패에 엄격한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김준석 외, 2011). 교육 수준 또한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ruex(2010)는 부패용인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일관된 설명변수는 교육수준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인 네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서구 관료제나 합리적 시스템을 학습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에 엄격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Truex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사회소망성 편향의(social desirabil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설문의 구조가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묻는 것이고, 사회적 소망성이 반영되더라도 설문조사 대상자 전반적으로 발생하며 결과적으로는 응답자간의 차이가 반영되기 때문에 편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Johnston(1990)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패인식에 상반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어떠한 부패나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공무원의 절도 행위에 대해 관대한 반면, 정실주의에 대해서

는 엄격한 성향을 나타내었다. 즉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자신들의 계층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Welch & Peters(1977)는 정치나 입법부 활동 경력이 일 년 이상인 사람은 아닌 사람에 비해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한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색부패를 내부자 외부자로 구분하였을 때는 이해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가설이다. 즉 내부자는 부패에 관대하고 외부자는 부패에 엄격함을 주장하는 반면에 여기서의 경력기간은 오히려 부패에 대한 엄격함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활동 경력을 통해 체화된 규범이나 관행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를 부패에 대해 더 엄격하게도 또는 반대로 관대하게도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Jackson & Smith(1995)는 신입과 선임자는 중간 경력의 사원들에 비해 부패에 더 엄격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선임자인 경우에는 조직의 내부자로서 적응하거나 순응해야한다는 압박이 적고 은퇴에 대한 기대는 조직의 집단 윤리로부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것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변수는 부패에 대한 관용정도에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Atkinson & Mancuso, 1985). 또한 Jackson & Smith(1993)은 수도 지역의 의원들이 비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수도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공식적 규율이나 법에 대한 준거기준을 더 강하게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Chang&Kerr(2016)은 정치 부패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인의 내부-외부자의 이론틀(insider-outsider framework)을 구성하였다. 이 이론틀의 핵심은 특정 네트워크의 내부자들은 내부자들끼리의 끊임없는 정보 및 의견교환을 통해 부정행동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부자들을 두가지 형태로 나누었는데 한 가지는 내부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자들과 정치적, 감정적 입장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유형이다. 반면 외부자들은 이익이나 입장을 공유하지 않고, 내부

의 정보나 의견에 대한 접근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행동에 내부자에 비해 부정행동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고위관료(장관)에 대한 개인의 부패인식이 개인이 내부자 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이 내부 네트워크와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정치적 감정적 입장⁶⁾을 유사하게 가져 갈수록 부패에 대한 허용범위가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 또한 부패의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연구되었다(La Porta et al., 1997). La Porta et al.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무슬림과 동방정교는 권위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시민참여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각 국가의 종교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부패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위와 같은 권위적 특성을 가지는 종교는 부패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eisman(2000)은 개신교 전통이 낮은 부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Sandholtz & Gray(2003)은 Treisman의 연구의 샘플이 64개국에 제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연구대상을 확장할 경우 개신교의 효과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관한 공통된 비판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패에 대한 반응은 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시간과 공간,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의미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패인식에 대한 조사가 어떤 나라나 지역,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지에 따라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설명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독립변수의 측정은 이익관련성은 공직사회의 네트워크에 사적 네트워크가 있는지로, 정치적 입장과 감정적 입장은 당파성과 인종에 대한 측정으로 변수화 하였다.

(2) 개인 가치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은 부패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에 있어 가치판단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부패의 개념상법, 공공이익, 윤리 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 데 이는 회색부패는 부패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색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회색부패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여러가치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부패현상이기 때문이다.

Gibbons(1990)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총 29개의 요소들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방 정당 선호, 개인의 소외의 정도, 지방정당 선호, 과거 부패 사건에 대한 지식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eters & Welch(1978) 또한 지역별로 정치문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성향에 내재한 가치관 성향이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끼친다고 보았다. 이는 Welch & Peters(197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유주의자와 적극적 자유주의자인 경우 부패에 비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념을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다양한 이념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은 문화와 부패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Husted 1999; Barr & Serra 2010; Serra 2006; Cameron et al. 2009; La Porta et al. 1997; Fisman & Miguel 2007; Uslaner 2004; Lipset & Lenz 2000; Banuri & Eckel 2012; Treisman 2000; Lambsdorff 2006). 부패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문화(culture)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 연구 되었다. 신뢰, 종교, 제도적 특성과 같은 구

체적 변수로 탐구되기도 하는 반면, 가치, 규범, 도덕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 주요한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설명변수들을 통칭하는 말로도 이해되기도 하였다(Banuri & Eckel, 2012:2).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나 믿음(Huntington, 2000)으로 정의된다. 사회규범 및 제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사회규범 및 제도는 법이나 규칙, 제도와 같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하위조직 및 분야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형태로도 구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Harrison & Huntington, 2000). 가치관은 사람들 사이가 아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변수들은 부패를 포함한 비공식적 거래의 성사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e-Ackerman, 1999). 즉 문화변수들은 부패 행위들을 정당화(legitimate)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사적 신뢰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부패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Ackerman, 1999:97). 즉 사적 신뢰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교환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의미로 이해되어 부패의 부정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신뢰(Trust)변수는 국가 수준의 부패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토 되었다. Adsera et al.(2000)과 Uslaner(2004)는 World Value Survey 데이터와 TI(Transparency Index)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신뢰는 부패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반대로 부패의 감소는 신뢰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시계열분석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편 Lambsdorf(2002)는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를 구분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부패행위는 2명이상의 사람사이에서 나타남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이상 사이에 강한 사적신뢰가 없으면 부패가 발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적신뢰와 부패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뇌물공여자가 자신의 청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과 부패수준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Husted(1999)는 Hofstede의 문화연구에 바탕을 두고 문화와 부패의 관계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해당연구에서 부패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⁷⁾이다. 즉 권위에의 순응 정도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이다. 이 설문은 물질적 성공이 삶의 질을 좌우 한다는 설문에 기반한다⁸⁾. 물질적 성공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질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속적 가치 성향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부패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threatened by uncertainty or unknown situations)이다. 불확실성에 위협을 느낄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패로 인한 편익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되었다.

인간행동에 사회적 규범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양하게 주장되어져 왔다. Akerlof(1980)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규범은 인간 활동의 조건부 협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것이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개인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Lewis(1982)가 언급한 것과 같이 죄책감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 발생한다. 즉 이러한 죄책감은 비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곧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용(moral cost)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Elster, 1989; Torgler,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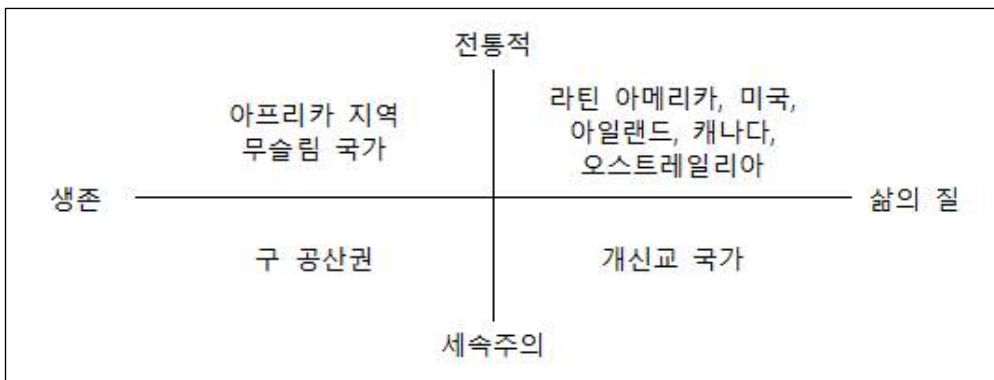
Sandholtz & Taagepera(2005)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7) 이 변수는 권력이 없는 구성원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되었다(Husted, 1999: p.343)

8) 이러한 설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Lambsdorf, 2008).

이하 ‘WVS’)를 토대로 두 가지 문화적 차원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문화적 차원은 전통적 문화 VS. 세속주의(secularism)이었다. 두 번째 문화적 차원은 생존(survival) VS. 자기표현(self-expression) 차원이었다.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 경제적 생존을 우선시 하는지 아니면 자기표현이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지이다. 그들은 연구에서 생존 지향의 국가가 전통 지향의 국가에 비해 더 강하게 부패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GDP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1> Sandholtz & Taagepera(2005)의 문화구분



Lipset & Lenz(2000)는 가족주의(familism)의 개념에 착안하여 부패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WVS(World Value Survey)의 “가족들이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설문과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문을 활용하였다. 국가수준의 회귀분석의 결과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할수록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이 떨어지며 부패행위가 가족에게는 이로운 반면 다른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에는 해롭다면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성공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부패수준이 나타남을 강조하였다

(Lipset & Lenz, 2000).

박흥식(2003)은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유교윤리 및 집단주의의 문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유교윤리 및 집단주의 문화를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네 가지는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이다. 그는 Triandis & Gelfand(1998)의 논의에 기초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모두 수직적 수평적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평적 태도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4가지 차원의 특징에 관하여 Triandis & Gelfand(1998)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독립성- 구성원은 집단과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 (2)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경쟁과 자기만족-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 지위 획득을 추구한다.
- (3)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 상호의존성-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공동 목표를 강조하지만, 권위에 잘 굴복하지 않는다.
- (4)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 집단적 가족성(family integrity)-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그것을 희생하며 권위에 기꺼이 복종한다.

그리고 그들은 각 차원 당 4개의 설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은 Singelis et al.(1995), Kim & Kim(1997)의 연구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박흥식은 이러한 설문을 활용하여 개인, 집단, 수직, 수평적 차원을 측정하였지만 일부분항에 대해서는 한국인 정서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신뢰도 도출에 실패한 문항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설문을 바탕으로 박흥식은 4가지 문화차원과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는 내부고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수평적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을 지지하는 태도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부고발의 문제는 이시영 등(2016)에 따르면 조직내부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문제로 볼 것인지를 나누어진다. 이런 점에서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부고발자 문제를 조직내부의 문제로 이해하는 반면 수평적집단주의자들은 보다 보편적 집단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 이를 국가수준의 문제로 이해하고 내부고발을 지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Torfason et al.(2013)은 국가수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는 팁을 주고 받는 문화권과 그렇지 않은 문화권을 비교하여 팁을 주고받는 문화권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팁의 문화는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교환행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뇌물과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부패행위를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Ariely(2012)는 부정직에 관한 정직한 진실(Honest truth about dishonesty)이라는 책을 통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지에 관하여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많은 실험의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인간은 이기적 동기와 비이기적 동기 사이에서 행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존재라는 것이다(강은숙, 2014:24). 즉 자신이 정당화 할 수 있는 심리적 범위 안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애리얼리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전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특정한 도둑이나 범죄자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판매금액 가운데 소수의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매출액의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의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강은숙(2014:24-25)은 D.Ariely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의 행위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100% 영향을 받지 않고 도덕성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사람들은 때때로 부정행동을 하지만 그 크기는 이기적이고 합리적 동기에 의해서 예측된 양만큼은 되지 않는다. 셋째, 부정의 크기는 상황변수(매개변수)의 내용-예를 들어, 자아가 고갈된 피곤한 상황, 자신에 대해 자긍심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 종교적 규범을 떠올리는 상황,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타인의 부정행동을 목격하는 상황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위와 같은 상황적 맥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리얼리는 다양한 조건들을 부여한 실험 설계를 통해 특정한 조건이 양심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침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짝퉁 선글라스를 낀 사람과 실제 진품 선글라스를 낀 사람⁹⁾사이에서 사소한 부정행위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가 양심의 허용범위의 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보통사람의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은 Mars(1982)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그는 회사나 조직 내에서의 조작행위(fiddling)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회사나 조직의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민속지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통사람들이 빈번히 회사 자금을 다소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그것은 사소한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으며, 회사 또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9) 그러나 실제로 두 집단 모두 진짜 명품 선글라스를 착용하였으며, 피실험자에게는 짝퉁 내지는 진품으로 정보를 구분하여 전달하였다.

없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회사 안의 직원이나, 회사 밖의 사람이냐에 따라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낮은 임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특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Horning(1970)은 발전소 직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발전소 직원에게 발전소의 자산을 개인자산으로 보는지,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지, 주인 없는 자산으로 보는 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발전소의 재산을 주인 없는 자산으로 보는 집단이 발전소 재산에 대한 탈취에 가장 관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도덕적 판단이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허용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Mancuso(1993)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역할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집단 내에서 작동하는 인센티브를 분석하여 양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 집단(Muddlers)과 있는 집단(Entrepreneurs)을 구분 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허용범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Hollinger와 Clark(1983)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장하였다. 즉,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행위나 조직 내 일탈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Gronbeck(1990)의 연구와 Malec & Gardiner(1987)의 연구는 사회에서 널리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부패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음에 관하여서도 보고 하였다. 특히 말렉과 가드너는 시카고 밖에서는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들은 시카고 내에서는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였다(Malec & Gardiner, 1987:275).

즉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을 토대로 내재된 다양한

가치관들은 회색부패를 포함한 부패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덕, 윤리, 공공이익과 같은 부패인식과 내용적으로 밀접한 가치관 뿐만 아니라 팁(tip), 선물, 사회적 관행과 같은 형식적으로 유사한 행위들에게까지 부패에 대한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회색부패에 대한 모호한 판단이 비단 내용적 모호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식적 행동을 통해서도 모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든다.

(3) 사회제도, 조직문화

Johnston(2005:7)은 부패참여와 제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시장, 엘리트 카르텔, 정치집단, 공식적 권력자의 특성과 같은 그 사회의 제도적 성격은 부패 참여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Pardo(2005)는 부패를 낮은 수준의 부패와 제도적 부패로 구분하여 이탈리아의 공공 헬스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낮은 수준의 부패는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행위임에 비해 제도적 수준의 부패는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의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패행위로 다르게 접근해야함을 주장하였다. Evans(1995)는 제도적 역량과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콩고와 같은 착취적 국가에는 관료적 제도, 즉 실적주의에 기반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료적 제도의 부재는 관료적 독립성을 저해하여 부패가 쉽게 유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Colombatto(2003) 또한 부패는 어떤 경우에 관행화 되는지에 관하여 제도적 관점에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부패행동은 제도의 미비 내지는 제도의 실패에서 비롯될 때 관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세 개의 제도적 유형을 구별하여 부패가 관행화된 경우를 지적하였다. 발전된 국가, 전체주의 국가, 개발도상국 국가 여부에 따라 부패가 관행화된 유형이 지적되었다.

공통된 결론은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행동의 의미이다. 즉 부패행동이 개인의 탐욕이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관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관용은 언급된 3개 유형의 정치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패에 대해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중시하는 일군의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패의 정의에 관하여 부패가 정의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과 같은 공식적 규율로부터 시작한다. Nye(1967)의 접근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를 공적의무로부터 이탈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Huntington(2006)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부패에 관하여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헌팅턴은 부패의 기능적 측면을 지적하였다. 즉,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효율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패는 오히려 경제적 효율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가와 기업가의 욕구에 따른 부패행동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팅턴은 부패를 “근대화에 따른 공공 복지와 사적이익 사이의 구별에 따른 부산물(Huntington, 2006:61)”이라고 보았다.

헌팅턴의 이러한 주장은 주로 근대화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막스베버의 관료제적 국가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의 근거에는 공공과 민간(public and private)의 엄격한 구별이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은 근대화된 국가모형을 전제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근대화라는 외재적으로 삽입된 정부모델을 따르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기반한 공공과 민간 구분이라는 외형만을 따르고 그것의 실질적 의미는 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Scott(1969)는 부패에 대해 공식적 법규범의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부패를 정의하는 데 있어 법에 의한 기준으로만 정의한다면 법에 의해 포함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부패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패 정의는 부패의 실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어렵게 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어렵게 함을 지적하였다.

Scott(1969)는 부패를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정치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부패는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숨겨진 수단이다. 즉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수단과 경로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코트는 “부패가 과연 경제발전과 국가 통합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Nye, 1967)”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패행동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면 그 행위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패행위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 있으며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Scott, 1972). 즉 그는 스피드머니(speed money)와 같은 예를 통해 부패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하고 관료적 능률을 증가시켜 공식적 법규범과 실제생활의 간극을 메워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다른 부패에 대한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Scott의 전제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부패 행위가 사회적 통합을 가속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 즉 부패 행위를 통해 누가 손해를 받고 이익을 얻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부패 행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부(wealth)나 권력(power)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러한 행동의 누적은 부와 자원, 권력의 불평등을 가속시켜 오히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Rocca(1992)는 중국에서의 참여관찰 연구를 통해 부패를 착취적 부패와 창조적 부패로 구분하여, 부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착취적 부패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부패임에 비해 창조적 부패는 근대화로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부패로 분류하였다.

한편 변지은 등(1997)은 부패에 대한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단

주의적인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조직 중심적 성향을 지적한다. 조직 중심적 성향은 집단을 마치 가족과 같이 생각하게 요구하며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여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연구에서 변지은 등의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부패용인도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하지 않아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의 연구 설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집단주의적 성향이 집단의 응집력을 강하게 하기는 하지만 부패 용인에 대하여 단순히 부패용인의 정도를 강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더라도 그 집단이 윤리경영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집단의 방향은 오히려 부패용인과는 반대 방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부패를 용인할 거라는 생각은 부패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사회적 의무나 책임, 윤리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집단이 도덕적일 경우 오히려 집단에 대한 응집력은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집단의 문화 정향을 단순히 집단주의적인지 아닌지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향이 집단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방향성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집단주의적이면서 윤리 경영을 하는 지 여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윤리 경영과 비윤리적 행동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경영학의 오랜 연구주제라 볼 수 있다. Posner & Schmidt(1984)는 미국의 관리자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비윤리적 행동은 특히 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도 직속 상사와 동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윤대혁(2005)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이 조직원의 행동에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한 결과 분석결과 윤리경영은 조직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하는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책임형과 규범형의 윤리 경영을 할 경우 유의미하게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성과형으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과중심의 운영이 부패행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이 윤리경영을 할 경우 그러한 문화가 조직 구성원에도 영향을 끼쳐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또한 만약 조직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조직이 윤리적으로 경영된다면 오히려 부패에 엄격한 문화를 구성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윤건수(2015)는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을 자리문화로 정의하였다. 그는 기존의 관료 문화, 행정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제 관리해야 할 것이라 전제하는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관료 행정문화는 필연적으로 통합적이고 맥락적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한국 행정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을 찾기 위해 언어의 은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공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한국 관료문화의 특성을 찾으려 시도한다.

그는 공직문화를 자리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체계의 유형을 공직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로 구별하고 공직과 공직의 관계를 개인적인지 아니면 업무 중심의 비개인적인지를 구별하였다(윤건수, 2015:10). 그리고 한국 공직문화의 역사성과 맥락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공직 체계는 폐쇄적이면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특성이 있고, 또한 관료제의 공식적 규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실적주의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연, 혈연, 지연의 문화가 존재하는 개인적 특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권력과 정실주의적 특성을 상위 관료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윤건수는 국가수준의 문화 연구와 조직이나 개인수준의 문화연구에서 문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Hofstede et al.(1990)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면서 국가 수준의 문화 연구는 그 국가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임에 비해, 조직이나 개인 수준의 문화는 ‘관행’이 문화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표 4> 공직체계의 유형과 한국의 공직체계

공직과 사회 공직과 공직	폐쇄적(closed): 높은 진입장벽	개방적(open): 낮은 진입장벽
개인적 (personal)	공직체계 - 가산제 - 족벌주의 공직자 - 세습과 상속 공직=재산	공직체계 - 엽관제 - 정실주의 공직자 - 권력과의 친분 공직=선물(답례품, 전리품)
비개인적 (impersonal)	공직체계 - 관료제 bureaucracy - 실적제 meritocracy 공직자 - 경쟁과 승진 공직=서열(계급)	공직체계 -전문직체계 -실적제 공직자 -전문가 규범과 시장 공직=직업
출처: 윤건수(2015:p10), 그림1을 바탕으로 변형		

한편 부패행동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부패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간은 그의 주변에 어느 정도 충분한 부패한 인간이 있을 경우 쉽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Dong et al., 2012).

첫 번째 이론적 주장은 주변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 부패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신 또한 부패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Andvig & Moene:1990, Murphy et al.:1991, Acemoglu:1995, Sah:2007). 주변에 부패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와와 거래

는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주변에 부패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거래 또한 적발에 따른 비용이나 거래 중에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패행위의 안정적 교환은 부패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또한 Tirole(1996)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배제당할 수 있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ong et al.(201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데이터와 개인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부패의향은 주변 동료들 뿐 아니라 타인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크게 의존함을 밝혔다. 또한 부패의향은 과거 부패수준과 강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행동경제학의 연구에서도 조건부 협력(conditional cooperation)이 발생하는 구조를 연구하였다(Rabin, 1998; Falk & Fehr, 2002). Rabin과 Falk & Fehr 연구에서의 조건부 협력의 핵심은 상호호혜성(reciprocity)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이러한 관점은 부패의 협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부패가 만연한 사회나 조직에서는 죄책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부패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적게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Spichtig & Traxler(2011)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이나 규율의 위배로부터 자신을 통제하는 강력한 방법은 자신이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규율이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즉 주변에 사람들이 규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규율 위배에 대한 비용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에 비해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행동 이후에도 다시금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Brass et al.(1998)은 행동의 코드(code of conduct)를 강조한다. 즉, 속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허용하는 행동코드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집단 문화나 상위 관리

자층에서 허용하는 행동들은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비윤리적이더라도 조직 내에서는 관행화된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정행동이 외부의 시선으로는 비윤리적이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동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 회색부패 측정에 관한 논의-Peters & Welch(1978)의 연구사례

Peters & Welch(1978)은 부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회색부패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부패의 정의 자체의 애매모호함이 부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기존의 부패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의 개념들-예를 들어 공익, 공직, 남용 등-이 무엇이 부패이고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으며 이는 일찍이 하이덴하이머가 지적한 회색부패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개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보다는 부패의 구체적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부패 행위를 4가지 구성요소로 구별하였다. ①공무원(public official), ②거래 상대방인 고객(recipient, donor), ③공무원이 고객에게 주는 혜택(favor), ④공무원이 받게 되는 보상(payoff)이 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 구성요소에 관하여 이 요소들의 어떤 특성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인지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성요소인 공무원에 관하여는 특정한 공무원의 행동이 공식적인 공공 의무에 해당하는 지 안하는 지에 따라 부패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보았다. 또한 공무원들의 공직 특성에 따라 특히 정치적 역할에 따라(예 판사에 비해 국회의원은 보다 관대하게 인식될 것으로 예상) 달라질 것이라 보았다. 이는 판사의 직무가 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고객에 대하여서는 공무원과 어떤 관계냐에 의존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해당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투표권을 가진 주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부패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보았다. 또한 고객이 한 명인지 아니면 기업이나 여러 명인지에 따라 부패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보았다.

세 번째는 공무원이 고객에게 주는 “혜택(favor)”의 특성이다. 혜택의 특성이 사익을 추구할수록, 비선거구 지역에 줄수록 심각한 부패로 인식할 것이라 보았으며 또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되어 질 때 심각한 부패로 인식될 것이라 보았다.

네 번째는 공무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상(payoff)에 관한 것이다. 저자들은 가장 영향력이 크고 명백한 요소로 보이는 것은 “보상의 크기”라고 보았다. 즉 경제적 보상을 할 경우 돈의 규모에 따라 부패 인식의 정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또한 보상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부패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았다. 즉 시간적 격차가 클수록 인과관계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상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부패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위와 같은 네 가지 특성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부패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흑색 내지는 백색 부패로 고려될 만한 성질의 설문을 제외하고 회색부패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하는 설문을 10개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미국 전국의 주의원들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측정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 사회적 합의가 높은 행위, 불법행위, 보상(payoff)의 크기가 클수록, 중립적 공무원(판사, 비정치적 역할을 하는 공무원)일수록 심각한 부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 주었다. 가운데 가장 부패로 생각하지 않는 응답 값은 “Law School” 질문으로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친구 또는 친척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

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뚜렷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사회에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추천장 문화는 Law School 질문에서의 행위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일상행위와 형태와 의미가 유사할수록 이러한 행동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Peters & Welch(1978)의 설문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차용되어 다른 문화권과 시간을 두고 측정되었다(Atkinson & Mancuso, 1985; Mancuso, 1993; Jackson & Smith, 1993). 이러한 연구는 문화권에 따른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Dolan et al.(1988)은 기존의 부패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미리 선정한 설문을 응답자에게 부여하고 부패인지 아닌 지만을 응답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부패를 여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들은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을 수집하기 위하여 Q-methodology를 활용하여 응답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인식의 이면에는 법적, 윤리적, 개인적 가치들이 혼합되어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며 가치들에 대한 의존의 차이는 개인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 Truex(2010)는 853명의 네팔인 들을 대상으로 부패용인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의 다양한 유형들을 고려하여 설문을 설계하였다. 이때 고려 대상이 된 부패의 차원은 ① 큰 부패인지 사소한 부패인지, ② 뇌물의 형태가 현금인지, 선물인지, ③ 공무원인지 아닌지, ④ 정치인인지, 관료인지 ⑤ 불법행위인지, 정부서비스인지, ⑥ 뇌물을 주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⑦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패 용인의 수준이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일 관대하였다. 즉 부패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부패 용인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Peters & Welch 부류의 연구들이 회색부패 연구에 주는 쟁점 또한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의 정의에 관한 쟁점이다. Peters와 Welch의 연구는 부패 정의의 애매모호함을 부패 행위의 4가지 구성요소들의 특성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부패 정의의 애매모호함을 4가지 요소들의 조건에 의존해서 체계적으로 재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4가지 요소들의 특성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일반 시민들 전체라면 이는 여론 중심적 정의에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들 연구에서 부패 행동을 4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이들의 조건에 따라 부패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이론적 탐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에 대하여 나열하였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부패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부패의 현상에 관하여 이다. Peters와 Welch 또한 회색부패 현상의 주요한 특징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부패인 것과 아닌 것으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집단과 대중,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거나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Peters와 Welch의 논문에서 또한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실제 존재하는 지 또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탐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해당 연구가 남겨 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회색부패의 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회색부패에 대한 판단은 시간 공간을 달리할 것이며 그 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규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회색부패의 조건의 의미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이다. Peters와 Welch는 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직접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동일한 현상에 대해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은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도 부패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해당

연구에서는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패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해당 연구는 부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냉전시대의 끝과 전 세계적 경제부흥을 위한 서구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외삽은 부패 연구에 대해서도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경제모델에 기반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Peters와 Welch가 후속연구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회색부패 현상을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도 시인하였듯이 1978년의 연구는 기술적 측정만을 하였을 뿐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패현상의 인식 차이, 특히 회색부패 현상의 인식 차이가 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패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차이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개인의 객관적 지표라면 개인의 주관적 특성, 즉 가치관이나 문화, 관계의 특성에 따라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객관적 주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관계의 특성들 또한 부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색부패의 양상들 또한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패의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부패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색부패 현상의 사회적 의미가 경제적 교환이 아닌 호혜적 관계의 교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 소외된 이웃을 위한 행동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회색부패 연구의 의의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건대, 회색부패의 문제는 부패의 정의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패 정의의 문제에 있어 관련된 모호한 개념이 회색부패 연구에 첫 번째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부패 정의의 유형을 나열해 본 결과 부패 정의와 관련된 주요 판단 근거는 합법인지 아닌지, 비윤리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아닌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론적 쟁점에서 경제교환이론은 체계적이나 부패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다양한 부패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교환이론의 입장은 부패 연구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Peters & Welch(1978)로부터 시작된 부패연구의 체계적 시도는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패를 그 구성요소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측정하면 회색부패 뿐 아니라 흑색부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부패의 다양한 양상을 4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회색부패 현상과 흑색부패 현상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양상을 관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회색부패와 흑색부패의 양상이 이론적으로 도출된 회색 및 흑색부패의 특징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논란이 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실제 한국 사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그것 자체로 불변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 현상이 배태되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색부패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유형화가 가능한지를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를 유형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는 회색부패와

흑색부패의 구분 나아가 회색부패 안에서도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압축된 유형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및 조직문화 그리고 부패경험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종래의 흑색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사회규율이나 관행적 행위 그리고 과거의 자신 주변에서의 부패 경험이 현재의 부패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즉 회색부패의 현상은 우리 일상 속에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그러하며 이러한 변수들이 흑색부패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회색부패와 흑색부패와의 관련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회색부패와 흑색부패 모두에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부패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가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부패 연구의 주류관점은 부패 정의의 모호함을 시인한 다음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경제적 교환 행위를 부패라 가정하고 그 부패행위의 구조와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를 없애고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의 부패는 순수한 경제적 교환행위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맥락이 혼재하는 부패행위이다. 즉 애매모호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패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 완결성을 지녔을지라도 현실의 부패 현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패를 사회악이며 사라져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 현상에서의 부패는 합리적 개인의 이익교환행위로만 판단할 수 없기에 현실의 부패현상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 받으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에 기반 한 부패 처방은

부패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erssons et al., 2013).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부패를 이해하는 데 있어 회색부패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회색부패는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부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며 이에 대한 처방도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는 현실의 부패 현상들을 보다 적나라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쉽게 관찰하거나 부딪치는 문제이지만 이제까지 적절한 학문적 조명을 받지 못한 부패의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패현상은 흑색, 회색, 백색으로 분류할 수 있고 회색부패는 중요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이나 규정과 같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상위규범에서는 부패라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나 관례에 따르면 부패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관행화된 부패(customary corruption)이 있는 반면에 법이나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불법이 아닌 것 즉 법에 의해서는 관용되지만, 사회의 상식이나 관례 여론에 비추어보면 용납되지 않는 법의 구멍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형태의 부패(Loophole Corruption)가 존재한다. 이러한 회색부패는 법의 지배를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법의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회색부패의 첫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관습과 법의규정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유형의 회색부패와는 달리 법의 구멍에 의해 발생하는 두 번째 유형의 회색부패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devastating)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폐쇄적으로 구성된 법을 잘 아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 그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평등을 파괴하는 강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일차적으로 회색부패 현상의 탐구를 통해 부패 현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이념형(ideal type)으로 구성된 부패와 회색부패에 대한 틀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색부패가 부패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반대방향으로는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회색부패에 대한 연구는 실제 부패현상을 탐구함으로써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부패를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식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혼재된 회색부패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부패현상에 대해서 왜 어떤 집단은 관대하고 다른 집단은 엄격한지, 또는 어떤 가치관은 엄격하고 관대한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직접적으로는 곧 시행될 예정인 소위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김영란법은 단순히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세세한 법규범을 도입하여 시행 시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이면에는 상충하는 가치와 논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를 탐구하는 회색부패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모호함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행정/정책학에 만연한 모호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연구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호함의 문제 배경에 존재하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개념적 요소들에 대해 개념적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가치판단 요소가 중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민할 때 모호한 문제들에 새로운

연구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자료수집

1. 연구문제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회색부패에 대한 구체적 관심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부패에 관한 연구는 우리 일상에서 직접 마주치는 부패현상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색부패현상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를 탐구하고자 한다. 회색부패를 탐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회색부패의 현상은 다른 흑색부패 현상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를 유형화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나아가 부패의 상황이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¹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색부패에 대한 측정은 부패인식, 관행수용도, 부조리한 관행, 부패관행 등의 이름으로 측정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연구는 Peters&Welch(1977, 1978a, 1978b)의 연구 이래 부패를 체계적 4가지 요소로 측정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Peters&Welch, 1978a, 1978b, 1980; Johnstone, 1991; Gorta&Forell, 1994; Jackson&Smith, 1995), 국내 연구는 일상의 부패 관행이나 부조리한 관행을 활용하여 측정된 경우도 더 많이 존재한다(윤인진·조대엽, 2001; 박선웅, 1998; 박주봉·김용세, 1998; 송창근·박흥식, 1994; 고길곤·조수연, 2012; 고길곤·이보라, 2012; 서원석·이덕로, 2016; Lascoumes & Tomescu-Hatt, 2008;

10) 단, 본 연구에서의 주된 연구대상은 관행화된 회색부패로 한정 된다. 특권화된 회색부패는 회색부패의 중요한 연구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으로는 측정이 어렵다. 왜냐하면 특권화된 계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표본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쇄적 문화로 말미암아 진솔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참여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Gong, Wang & Ren, 2015). 앞선 외국의 사례들은 국내의 일상적 부패행동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국내연구는 부패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관행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모호한 부패현상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어 전형적인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하지 않아 회색부패 현상과 흑색부패 현상을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를 어떠한 부패 이론으로 설명가능한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ers&Welch의 부패의 체계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논란이 될 수 있는 회색부패를 포함하는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회색부패를 측정하고 시나리오들 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회색부패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특성들이 부패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색부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최대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시나리오들을 많이 구성하면 할수록 풍부한 회색부패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는 유리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시나리오는 측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해치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유형화 될 것인지 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회색부패의 측정과 유형화를 바탕으로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던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우선 탐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아직까지 부패인식과의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가치관 및 조직문화, 그리고 과거 부패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대표적으로 고길곤·조수연., 2012; Johnstone, 198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회색부패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은 세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첫째, 회색부패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들 간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회색부패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회색부패 별 시나리오에 내재하는 사회교환의 의미를 포함하는 회색부패의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련성 분석은 회색부패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흑색부패로 판별되는 시나리오와 함께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성을 가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회색부패와 흑색부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향후 김영란법 등 회색부패를 통제를 통한 부패통제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법은 회색부패 현상에 대한 통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통제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색부패에 대한 통제에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회색부패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정책심화와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유형화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앞서 탐구되었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두고, 이제까지 부패내지는 회색부패의 인식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던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관행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말은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윤인진·조대엽, 2001; 박선웅, 1998; 박주봉·김용세, 1998; 송창근·박

흥식, 1994; 조선일·배정아, 2006; 고길곤·조수연, 2012).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부패와 관행에 대한 탐구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부패화 된 관행”이거나 “부조리한 관행”이어서 구체적으로 관행과 회색부패 간의 실증적 탐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 관행유형으로 선택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다거나,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인사 혜택을 주는 경우, 직무와 관련되는 기업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다거나, 명절을 기점으로 선물을 받는 행위, 건설 리베이트나,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과 같이 부패에 가까운 관행으로만 연구를 제한함으로써 관행과 회색부패의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윤인진·조대엽, 2001; 박선웅, 1998; 박주봉·김용세, 1998; 송창근·박흥식, 1994; 조선일·배정아, 2006; 고길곤·조수연, 2012).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관행의 사실적 의미, 즉 우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하는 관례나 습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진 집단적 행동양식’의 의미를 살려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우리 사회의 관행은 적당한 거짓말 이다. 이러한 관행을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이라는 점이다. 즉, 적당한 거짓말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관행화된 행동이다¹¹⁾.

둘째는 지나친 경우 공동체의 질서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나친 거짓말은 관계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셋째는 부패인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탐구되지 못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가운데 적당한 거짓말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는 D.Ariely(2012)가 사람들이 사소한 부정행동을 하는 이유로 지적인 ‘양심의 허용범위’이다. 애리얼리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부정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안에서 수

11) 실제 본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적당한 거짓말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설문에 대해 평균 값이 5점 만점에 평균 3.55로 높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양심(良心)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종의 도덕의식이라 볼 수 있다¹²⁾. 거짓말은 개인들이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저버리고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엄정식, 2012). 그러나 양심과 지나친 거짓말은 도덕기준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반면에 거짓말이 아닌 ‘적당한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된다는 점에서 관행적 의미가 강하다.

또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논리는 상황에 의존한다. 거짓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한 하병학(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거짓말이 사상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정은 결과적 정당성이 확보될 경우이다. 즉,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이나 다수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한다거나 다수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극복하는 논리로 기능할 때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Keohane(2006)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조건부 정당성(contingent legitimacy)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 간의 좁히기 어려운 다문화 상황에서 협상이나 합의를 위해 조건부 정당성이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국가간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한 합의는 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ohane(2006)의 논리 또한 결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짓말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적당한 거짓말에 대한 수용정도는 현실이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거짓말이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다수의 관계나 이익을 위해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조건부 정당성(contingent legitimacy)의 논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적당한 거짓말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거짓말을 해야한다는 조건부 정당성에 대한 허용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거짓말을 강하게 수용하는 사람은 조건부 정당성을 강하게 수용하는 것이며, 반대로 상황에 따른 적당한 거짓말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상

12) 출처: 두산 대백과사전

황적 논리와 관계없이 개인의 양심이나 가치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당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수용되는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적당한 거짓말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부패인지 아닌지 모호한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상황적 정당성의 논리를 받아들여 관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다음으로는 조직문화에 관한 인식이다. K. Polanyi(2001)가 지적하였듯이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에는 전체적인 관점, 즉 종교, 정치, 사회적 관계들 등이 배태되어 형성된다. 조직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주로 속한 조직이 어떠한 문화인가에 따라서도 개인의 회색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자신이 속한 지배적인 조직문화가 법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조직에 속한 개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대로 자신이 속한 조직이 법이나 규범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 조직에 속한 개인은 조직의 문화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의 규율이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적 경향에 동화되어 개인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상황적 논리를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조직문화가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과 판단에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은 조직문화에 순응할 수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거리를 두거나 또는 반대로 행동할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gap)는 조직의 논리 및 문화와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할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 조건부 정당성을 수용하는 정도와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가 법이나 규정의 준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념적으로 4가지 형태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I유형)은 개인의 차원에서 조건부 정당성에 대한 수용이 낮

고 조직 또한 법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문화에 속한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개인과 조직 모두 상황 보다는 원칙과 규범에 따라 부패를 인식하는 성향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부패에 엄격한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두 번째 유형(II유형)은 개인은 엄격한 원칙을 중시하지만 조직은 관대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조직에서는 관용되는 부패라 할지라도 개인의 가치에 따라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황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의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부패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유형(III유형)은 개인은 조건부 정당성을 강하게 수용한다. 즉 상황에 따라 적당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넓게 관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은 상황보다는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법과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 명확한 흑색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 상황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대한 성향을 보일 것이라 예측된다.

끝으로 조직 또한 법규범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 또한 상황적 논리를 강하게 받아들일 경우 회색부패와 흑색부패 모두에 대해서 관대한 성향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표 5> 개인/조직문화에 따른 부패인식 정도

조직문화 \ 개인가치	조건부 정당성 약한 수용	조건부 정당성 강한수용
조직 법규범 강조	1)부패인식 엄격	3)개인은 관대 조직은 엄격
조직 법규범 강조안함	2)개인은 엄격 조직은 관대	4)부패인식 관대

이런 점에서 보면 위에서 설명한 유형들 간에 부패인식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이나 사회 안에서의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 수 축적되어 왔다. 과거에 비윤리적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개인의 도덕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Ford & Richardson, 1994; Kohlberg, 1969; Power, Higgins, & Kohlberg, 1989; Trevino & Youngblood, 1990). 두 번째 방향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Cressey & Moore, 1983; Laczniak & Inderrieden, 1987; Mathews, 1987; McCabe & Trevino, 1992; McCabe, Trevino, & Butterfield, 1996).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나쁜 사과(bad apples)가 통 안의 사과들을 다 썩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나쁜 통(bad barrels)이 통 안의 사과를 썩게 하는 것인지를 논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Trevino & Youngblood, 1990).

그러나 Granovetter(2006)가 지적하였듯이 나쁜 사과의 관점은 사회화의 과정을 가벼이 여기고 나쁜 통의 관점은 개인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적절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Jones(1991)는 도덕적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속성이 이슈의 특성과 연결되어 개인의 도덕적 결정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가치와 조직문화가 유사할 때와 아니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식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네가지 구분된 유형에 따라 그리고 부패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반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문화가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법과 규범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가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모호한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정향에 따라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를 받아들이나 아니냐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주된 변수는 '과거의 부패

경험'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패 경험은 부패에 대한 인식에 엄격하게 만드는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Chang&Kerr, 2016; Ulbig& Miller, 2012). 특히 Ulbig&Miller, 2012의 연구는 커다란 부패(Grand Corruption) 스캔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부패인식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커다란 부패 스캔들은 그와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위치에 있는 지배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흑색부패와 같은 명백한 부패에 대해서만 실증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Chang&Kerr(2016)의 논리에 따르면 부패 경험에 대해 자신이 내부자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외부자라고 느끼는지에 따라 부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흑색부패 또는 커다란 부패스캔들(Grand Corruption)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이 그것을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그 현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커다란 부패는 범죄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스스로를 범죄자와 유사하다고 느끼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흑색부패에 대한 부패 경험은 결과적으로 부패에 대한 엄격한 인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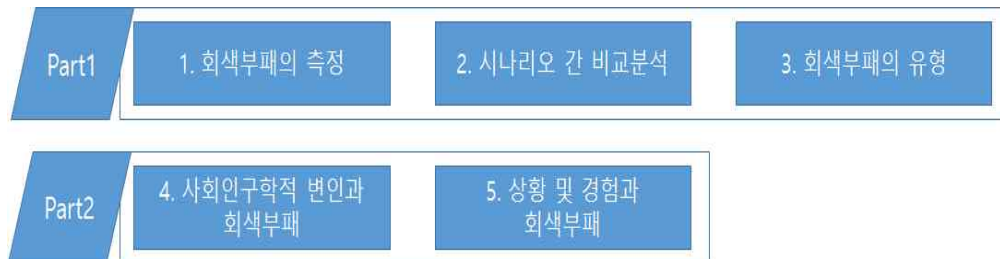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경험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회색부패 현상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흑색부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회색부패에 대한 부패 경험은 부패의 관용폭을 넓히게 기능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점에서 보면 부패에 대한 경험 자체가 부패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패에 대한 경험은 어떤 것에 매개되었을 때 현재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부패를 경험하였을 당시의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의식에 주목하였다. 공동선(common good)은 학

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선(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善), 즉 공익성으로서 공동선(共同善)(출처:행정학 용어사전)”의 의미로 이해된다. 공동체의 이익과 선을 우선하는 사람이 부패를 경험하였을 때는 이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였을 것이라 기대되는 반면에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패 경험이 오히려 부패에 적응하게 하거나 부패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에 대한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해 과거의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매개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연구문제의 흐름



이제까지 서술한 연구문제 및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회색부패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설문지 방법으로 측정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는 측정된 설문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며, ③ 측정된 시나리오 간의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④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탐구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⑤ 압축된 유형을 바탕으로 부패 인식과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때 새롭게 탐구될 변수는 첫 번째는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행동이며 이론적으로는

상황적 정당성의 의미를 지닌 ‘사소한 거짓말’과의 관련성이며, 두 번째는 과거 부패경험이 현재 부패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과거의 공동선에 대한 의식을 매개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Part1과 Part2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식: 설문조사

위와 같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자기 응답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의 방법이나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의 방법은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가 있으며, 양적 자료는 주관적 응답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설문조사 방식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의 방식을 택하였다(김태일&서주현, 1998).

2) 조사대상 및 표본 선정

조사대상은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며, 연구의 목적상 공공분야 종사자와 민간분야 종사자를 균등하게 각각 500명씩 표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해당 지역 내에서 최대한 무작위로 표본을 수집하려 시도 하였다. 표본의

수집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각 권역별 다양한 기관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¹³⁾를 만들었다. 그러한 다음 각 권역의 지인들에게 그들의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온라인 SNS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전송하여 확산시켜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총1430개의 설문지를 수거할 수 있었다. 그 중 응답이 절반이하인 24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주로 근무하는 곳이 없는 94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1312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¹⁴⁾.

연구자가 접촉한 설문응답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권역별 인구를 고려하여 기관별로 30-50부 가량의 응답을 요청하였다.

13)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goo.gl/forms/3OVsE0XG3J> 이 링크를 따라 설문 응답을 하면 자동으로 응답 값이 설문 조사자에게 전송된다.

14)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설문은 측정하지 않았다.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병무청이 협조를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명시 할 경우 자칫 지방병무청 간의 경쟁을 부추겨 진실한 설문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역에 관한 설문은 제외하였다. 이는 각 지방 병무청 방문에서 설문을 설명할 때 특별히 강조된 내용이기도 하다.

<표 6> 설문조사 협조기관

권역	설문응답기관-행정부	설문응답기관-나머지
서울, 경기, 인천	해양수산부 인천지청 서울지방병무청 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지방병무청 경기도청	금융감독원 새누리당 당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여성IT 기업인 연합회 농협중앙회 안성지부 용인은하수아파트 부녀회 의정부래미안아파트 부녀회 OneFineDinner 삼성전자
강원	강원지방병무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세대학교(원주)
대전, 세종, 충청	병무청본청 대전지방병무청 교육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주) 이니스프리
대구, 경북	대구지방병무청	경북대학교 임상심리 상담소 대구영신고등학교 43기 동창회 대구계명대학교 건축학과
전북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광주, 전남	광주지방병무청	목포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과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방병무청	해군사관학교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제주	제주사법연수원	제주대학교 로스쿨

3)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의 상 심의면제를 통보받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최종 데이터가 수집된 날짜는 2016년 4월 10일이다.

4)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다소 과다 표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력수준은 대졸이상이 83.4%에 해당하였으며, 월 가계소득은 300-500만 사이의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아래 또는 위 수준으로 갈수록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7> 설문조사 조사 결과

성별	관측수	비율(%)
남자	736	56.23
여자	573	43.77
Total	1309	100.00
연령대	관측수	비율(%)
20대	277	21.16
30대	486	37.12
40대	357	27.27
50대 이상	189	14.44
Total	1,309	100.00
학력	관측수	비율(%)
고졸미만	5	0.43
고졸	212	16.23
대졸이상	1,089	83.38
Total	1,306	100.00
월 가계소득	관측수	비율(%)
월200만원 미만	156	11.97
월200-300만원 미만	333	25.56
월300-500만원 미만	506	38.83
월500-800만원 미만	242	18.57
월800만원 이상	66	5.07
Total	1,303	100.00
종교	관측수	비율(%)
불교	190	14.54
천주교	128	9.79
기독교	277	21.19
기타종교	5	0.38
무교	707	54.09
Total	1,307	100.00

본 연구에서 표본은 모집단을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대가 525명으로 전체 표본의 37.42%를 차지하고 있고, 대졸이상이 82.9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변수간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주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IV. 회색부패의 측정과 유형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본 장에서 탐구될 연구문제는 회색부패의 측정과 비교분석이며, 나아가 회색부패의 유형을 탐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과정은 회색부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회색부패를 측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 회색부패를 측정한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회색부패의 이념적(ideal) 특성과 실제 결과들을 비교하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앞서 측정되고 비교분석된 관행화된 회색부패를 유형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앞서의 13개의 시나리오들을 각각을 분석하는 것보다 적절히 유형화 시킬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유형화된 시나리오들은 향후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나리오들을 유형화 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간의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탐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요인분석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강도에 대한 시나리오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간의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패인지 아닌지의 값은 앞선 기초분석에서 연구되었기도 하였으며, 이분형 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강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회색부패 판단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으며, 나아가 부패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인분석의 절차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는 요인값을 도

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값을 바탕으로 회전을 하면 가장 적절하게 시나리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의 요인적재량이 도출되게 된다. 이 요인적재량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나리오들끼리 묶어 유형을 판별하게 된다. 김청택(2016)의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요인분석은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의 시사점을 강화하고 분석을 간결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¹⁵⁾.

2. 회색부패의 측정과 인식분석: 회색부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1) 시나리오의 구성

‘회색부패’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1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는 사회적 교환행위와 경제적 교환행위 이론에 바탕을 둔 것에 관한 것이다. 회색부패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Heidenheimer(1970)의 회색부패 정의에 2가지 요소를 따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회색부패는 부패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 그리고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것을 회색부패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별을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다. 부패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판단은 “부패이다”와 “부패가 아니다”의 양분형으로 설문 응답방식을 구성하였다. 이는 부패인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특히 회색부패와 같은 애매모호한 현상에 대해 적극적

15) 본 연구에서 요인값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 회전방식으로는 사각회전(oblique) 방식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직각회전 방식은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분석방법인 사각회전을 활용하였다 (김청택, 2016).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는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는 4점의 서열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심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5점 척도를 배제하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구현 된 종속변수의 측정 방식은 <표8>과 같다.

근본적으로 부패판단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부패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가치판단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즉 부패정의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부패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불법여부, 도덕 및 윤리의 위배여부, 공익의 침해여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와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관의 가중치의 차이 등은 부패판단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부패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것보다 처벌에 대한 강도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응답이면에 내재하는 가치판단적 요소를 풍부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표 8> 시나리오의 측정

시나리오					
위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위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그렇다면 회색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회색부패 시나리오는 연구자의 주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때 고려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Peters&Welch(1978)가 부패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활용한 방법이다. 그들은 부패를 하나의 교환행위로 이해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 행동에서 발생하는 교환행위의 특성을 4개의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는 ①공무원(public official), ②거래

상대방인 고객(recipient, donor), ③공무원이 고객에게 주는 혜택(favor), ④공무원이 받게 되는 보상(payoff)이 그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 엄격해지거나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도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구성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 고려된 사항은 부패행위의 의미(意味)이다. 부패는 단순한 경제적 교환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회적 교환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이 경제적 교환으로서의 의미도 가지지만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거나 호혜적 행동으로 규정되는 의미를 지닌 행동들의 경우 부패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거나 관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사회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고려된 사항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음직한 만한 일들로 구성하였다. 현재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행정정책학의 실천적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시나리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1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 구성하게 되었다. 실제 설문과정에서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되 앞 설문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이질적인 성격의 시나리오들을 앞뒤로 배치하여 측정하였다.

가장 표준적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2이다. 공무원이 기업가에게 인허가를 발급해주고 현금200만원을 받은 이야기이며 이는 흑색부패에 가까운 성격을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법적 윤리적, 공익적으로 판단할 때 부정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가지 부패 교환의 구성요소들을 바꾸어 나가며 부패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시나리오 5의 경우 시나리오 12와 거의 유사하되 공무원이 아닌 판사가 그리고 인허가가 아니라 유리한 결정으로 전환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즉 행정부 공무원이 아닌 법조계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차이를 측정해 보

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의 경우 시나리오 12와 달리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등장 하였으며 인허가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구성되었다. 시나리오 1의 특이점은 이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를 때 연간 정치후원금 500만원은 합법적으로 후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2조에 따를 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나리오 7의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상대방과 그에 대상 보상에서 시나리오 12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업가가 아닌 직장상관의 부인이 청탁자이며, 인허가를 발급해주고 직장상관으로부터 양주를 얻어먹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양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와 가격만큼의 경제적 보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직장 상관과의 관계의 증진이라는 중첩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Heyman & Ariely(2004)는 사회에는 화폐시장(monetary market)과 사회시장(social market)이 있으며 전자는 노동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후자는 노동에 따른 관계의 증진을 중시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세가지 형태의 실험을 통해 상반되는 시장의 특성을 규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착안한 내용은 현금의 의미와 선물의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금은 화폐시장에서의 거래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반면에 선물은 사회적 시장에서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물을 주더라도 그 현금가치를 명시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선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Heyman&Ariely(2003)에서는 밝힌 바 있다. 즉 이 시나리오에서의 양주는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의 의미로 읽힐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11의 경우 부패행위의 상대방이 이번에는 친한 친구이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은 친한 친구로부터 삼겹살과 소주를 얻어먹는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또한 삼겹살과 소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 사이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성의 의미가 다소 희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나리오 11은 시나리오 7에 비해 관계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 9의 경우에는 상관이나 친구와 같은 관계 지향적이 아닌 사업가와의 거래 행위이다. 그렇지만 사업가는 직접적인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닌 ‘한약’이라는 선물을 공무원에게 준다. 이는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이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선물이라는 형식을 통해 경제적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12가 전형적인 형태라면 시나리오 4의 경우 전형적인 형태를 사소하게 만든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사소한 부패행위(petty corruption)를 가정하고 만든 시나리오이다. 이 이야기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준공무원이라 볼 수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대체되고, 사업가가 아닌 주변 식당 주인이 나온다. 그리고 인허가가 아닌 쓰레기를 잘못 투기한 것에 대한 묵인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한 끼 식사(5,000원) 상당으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 즉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교환행위로 부패를 바라볼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럴듯한 가장 작은 부패 행위라 생각하고 설정한 이야기이다. 이 또한 한끼식사의 금액을 명시하여 놓음으로써 사회적 의미 보다는 화폐적 의미로 이해되기를 유도하였다.

한편 부패의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의미가 담긴 교환 행위가 부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법, 윤리, 공익적 관점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부패행위들을 시나리오로 포함시켰다.

첫 번째 유형은 공익이나 국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3과 13에서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무상의 비밀이나 공무원 규정 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고 지출할 수 없는 품목을 지출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시나리오 3에서는 대외비를 제공하고 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야기를 들었으며 13에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식사와 술을 대접한 경우를 이야기로 들었다. 양자의 차이는 대외비를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 남용인가의 차이로 이에 대한 경중의 차이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3과 13은 법을 위배하였으나 공익적 의미가 담긴 성격의 교환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10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그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 관점에서는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 행위라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로 인식되리라 기대된다.

두 번째 유형은 경조사 등과 같이 사회적 의무로 여겨지는 행동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직자 행동 강령에서는 경조사와 같은 사회적 관습으로 이행되는 공무원들 간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이러한 행동은 공무원이 공적의무를 이탈한다는 점에서 부패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반면 경조사 행사 참석과 축의금 부의금 전달 같은 행동은 오랜 사회적 관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의무의 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 집단 외에서는 경조사비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선물 또는 청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모호한 성격의 행동들에 대해 종속 변수로 부패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2에서는 직장 상관의 조사에 가서 부의금을 10만원을 낸 경우를 상정한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배이지만 사회상규 비윤리적인 행

동이러기보다는 예의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시나리오 8에서는 시나리오 2와 달리 소속부서의 상관이 아닌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동이 발생한다. 부하직원은 상관과 달리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나리오 6은 특수한 형태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공무원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사회적 피해는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점에서 비윤리적 특성을 가진다. 즉 시나리오 6은 공무원 집단 내에서의 부정직한 행동이며 사회적 피해는 미미하지만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의 문장과 구성요소 의미를 재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시나리오의 측정과 내용

	시나리오	공무원	상대방	혜택	보상	의미
1	국회의원 박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주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 사업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연간 500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원	사업가	인허가	정치 후원금 500만원	경제 교환
2	공무원 김모씨는 소속부서의 과장님의 부친상에가서 부의금 10만원을 전달하였고, 이후 과장님은 공무원 김씨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였다.	공무원	공무원 상관	부의금	관계	호혜적 관계 사회적 의무
3	공무원 이모씨는 외국과의 협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대외비(외부사람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비밀)를 몰래	공무원	해외협상가	대외비	협상 성공	국익 증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성공하였다.					
4	서울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최모씨는 음식점앞 쓰레기 속에 분리수거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지만 묵인하는 대가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공짜식사(5,000원 상당)를 대접 받았다.	환경미화원	음식점 주인	위법 묵인	공짜 식사	경제 교환
5	판사 김모씨는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사업가)로부터 1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판사	사업가	유리한 결정	100만원	경제 교환
6	공무원 김모씨는 실제 초과근무는 2시간 25분 하였지만 4시간으로 기재하고 수당을 지급 받았다.	공무원			초과 이익	
7	공무원 이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장상관 부인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직장상관으로부터 좋은 양주를 얻어 마셨다.	공무원	직장상관 부인	인허가	양주	권위적 관계
8	공무원 김모씨는 소속부서의 부하직원의 부친상에가서 부의금 10만원을 전달하였고, 이후 부하직원은 공무원 김씨에 대해 좋은 분이라고 칭찬하고 다녔다.	공무원	공무원 부하	부의금	관계	호혜적 관계 사회적 의무
9	공무원 오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사업가로부터 몸에 좋은 한약을 선물 받았다.	공무원	사업가	인허가	한약	경제적 교환
10	공무원 박모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군대를 가야하는 청년 김군에게 대외비를 알려주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청년	병역 면제	-	소외 계층에 봉사
11	공무원 한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친구로부터 소주와 삼겹살을 얻어 먹었다.	공무원	친구	인허가	소주와 삼겹살	호혜적 관계
12	공무원 최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공무원	사업가	인허가	현금	경제적

	관련하여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200 만원	교환
13	공무원 강모씨는 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산지출범위를 초과하여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공무원	해외 협상가	음식 주류 제공	협상 성공	국익 증진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들은 첫 번째 연구문제인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현상에 대한 측정과 나아가 흑색부패 현상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유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데 종속변수로 기 능할 것이다.

2) 시나리오의 측정 결과

구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 래의 표는 시나리오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초통계를 지시하고 있다. 시나리 오를 기준으로 볼 때 부패한 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부터 가장 낮은 순서까지 나열하여 표를 구성하였다. 가장 부패한 행위라고 측정 된 시나리오는 5번으로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현금을 받은 행위이 다. 반면 부패하지 않은 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시나리 오 8번으로 소속부서의 부하직원의 부친상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 여 조의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이다.

<표 10> 시나리오의 기초통계

시나리오	1) 부패한 행위인지(이분형 변수)			2) 법이나 징계로 처벌 받아야하는지(4점)		
	관측수	비율	표준 편차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5	1,309	0.99	0.09	1,309	3.68	0.51
12	1302	0.96	0.19	1302	3.38	0.59
1	1310	0.96	0.20	1310	3.47	0.62
6	1308	0.95	0.23	1308	3.09	0.66
4	1310	0.82	0.38	1310	2.58	0.76
9	1308	0.80	0.40	1308	2.83	0.76
3	1308	0.79	0.40	1308	2.98	0.79
10	1306	0.78	0.41	1306	2.94	0.84
13	1299	0.77	0.42	1299	2.84	0.74
7	1307	0.76	0.43	1307	2.71	0.78
11	1306	0.63	0.48	1306	2.50	0.81
2	1311	0.32	0.47	1311	1.89	0.75
8	1307	0.25	0.43	1307	1.88	0.77

법이나 징계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에 관한 물음에서의 서열과 부패인지 아닌지의 서열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표준편차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소값은 0.51이고 최대값은 시나리오10으로 0.84이다.

또한 각 시나리오들에 대한 처벌 강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2와 8은 다른 양자를 제외한 다른 시나리오들과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들과는 달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 사회의 경조사 관행 상 1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시나리오2와 8사의 경우로 0.6414에 해당한다. 이는 두 시나리오 모두 경조사인 경우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시나리오 별 처벌강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표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시나리오7	시나리오8	시나리오9	시나리오10	시나리오11	시나리오12
시나리오1	1											
시나리오2	0.0674	1										
시나리오3	0.1322	0.1040	1									
시나리오4	0.1965	0.2286	0.3009	1								
시나리오5	0.3170	-0.1206	0.1794	0.1167	1							
시나리오6	0.2322	0.1233	0.2359	0.3803	0.3022	1						
시나리오7	0.2513	0.2634	0.1798	0.3620	0.1542	0.3076	1					
시나리오8	-0.0048	0.6414	0.1323	0.2478	-0.1915	0.0892	0.2957	1				
시나리오9	0.2906	0.2308	0.1841	0.3123	0.1899	0.3103	0.5755	0.2532	1			
시나리오10	0.1802	0.1299	0.2912	0.2298	0.1141	0.2583	0.2231	0.1338	0.2433	1		
시나리오11	0.1809	0.3018	0.2421	0.3549	0.0615	0.2785	0.5945	0.3458	0.5845	0.2060	1	
시나리오12	0.3112	0.0030	0.1838	0.1932	0.3634	0.3004	0.3298	-0.0175	0.4080	0.2321	0.2553	1
시나리오13	0.1544	0.1413	0.4161	0.3404	0.1303	0.2888	0.3446	0.2130	0.3188	0.2525	0.3544	0.2504

이제 측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살피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존재양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회색부패 및 흑색부패들간의 비교를 시도하는 것이다.

회색부패의 존재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Heidenheimer의 회색부패의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우선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응답값을 살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처벌 강도에 대한 표준편차의 값을 살피는 것이다. 즉 부패인지 아닌지, 처벌강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회색부패라 할 수 있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이의 값을 살핌으로써 이 시나리오가 회색부패현상에 가까운지 아니면 흑색부패나 백색부패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부패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아질수록 흑색부패에 아니다라고 말할수록 백색부패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이 50%에 가까워질수록 회색부패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처벌여부에 대한 4점척도의 응답값의 표준편차에 주목하였다. 표준편차는 응답값이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회색부패라는 것은 앞선 정의에 따를 때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응답값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관하여 부패이다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려고 한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5번이며,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8번이다. 95%이상 부패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시나리오는 5,12,1,6번 시나리오가 속한다. 95%이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 흑색부패(black corruption)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4,9,3,10,13,7,11번의 시나리오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고 82%에서 최소 63%까지 떨어진다. 다음으로 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4번(82%),9번(80%) 시나리오의 경우 서울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불

법투기의 목인의 대가로 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이며, 9번 시나리오에는 공무원이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이 아닌 한약을 선물 받은 경우이다. 4번과 9번의 시나리오에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9번은 한약을 4번은 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약의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5000원 이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응답자는 4번의 시나리오에 대해 2% 높게 부패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Heyman & Ariely(2004)의 실험에서 증명한 것이 재확인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선물이라도 현금을 명시해 두는 것과 아닌 것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현금을 명시해 두는 것은 선물을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는 반면에 선물만을 제공하는 것은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시나리오4는 9번보다 높은 비율로 부패라는 판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시나리오는 3번(79%), 10번(78%), 13번(77%)의 시나리오이다. 3번과 13번은 공무원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차이점은 3번 시나리오는 대외비를 해외협상가에게 주는 반면에 13번은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음식을 접대하였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즉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주는 혜택에서 차이가 나는데 대외비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을 초과집행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크기 때문에 3번 시나리오가 13번 시나리오에 비해 더 부패한 행위라고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해 혜택의 차이가 부패판단에 큰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번의 시나리오는 대외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3번의 시나리오와 동일하나 다른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는 것보다 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혜택을 준 내용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병역비리와 유사한 형태 즉 군대 면제를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부패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11번의 시나리오는 부패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76%, 63%로 떨어진다. 7번 시나리오와 11번 시나리오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치는 부정청탁의 경우와 유사하다. 7번의 소속 직장 상관과의 인간관계와 인허가의 대가로 받은 것이 양주라는 선물이며, 이를 나누어 먹고 친해졌다는 점이며 11번의 경우 7번과 달리 직장상사가 아닌 친한 친구이며 또한 양주가 아닌 소주와 삼겹살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유형은 호혜적 관계나 사적인 관계 그리고 현금이 아닌 친분을 증대 시키는 양주나 소주와 삼겹살 같은 것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부정청탁을 보다 관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 번째 집단은 뚜렷한 경제적 교환행위가 아닌 사회적 교환의 의미를 가지는 행위들-선물, 호혜적 관계, 친분-이 부패를 아니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알리며 이러한 요소들의 성격이 강해질수록 회색부패(gray corrup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끝으로 2,8번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초과한다(시나리오2:32<68, 시나리오8:25<75). 이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였지만 사회적 의무로 해석되는 경조사에서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반면 두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하나는 직장상관을 대상으로 했음(시나리오2)에 비해 다른 하나는 직장부하(시나리오8)를 대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직장상관과의 관계가 좋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개인적 이익을 기대해봄직 하다는 점에서 시나리오8에 비해 그렇다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집단 또한 두 번째 집단과 유사하게 회색부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동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용인 받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림 3> 부패이다 아니다의 응답비율



(※ 가로: 시나리오번호, 세로: 비율, 아랫부분: 부패이다의 비중, 윗부분: 아니다의 비중)

결론적으로 부패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고려한 회색부패의 존재여부는 시나리오 5,12,1,6의 경우는 흑색부패로 나머지 9개의 시나리오들은 회색부패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사항은 처벌여부와 사회의 악영향에 관한 표준편차이다. 이 응답 값은 각각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 값의 편차가 클수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처벌 정도에 대한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시나리오5, 12, 1, 6의 순서로 낮으며 그 값은 최소0.51에서 0.61사이에 분포한다. 이는 앞선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의 순서와 일치한다. 즉 어느 정도 부패 판단이 합의에 이른 경제적 교환행위에 유사한 부패는 처벌의 편차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시나리오들의 경우의 표준편차 값은 0.74에서 0.84까지 흩어져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의 서열과 표준편차의 크기의 서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과 부패가 인지 아닌지의 순서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표준편차의 값이 높은 10번의 경우 병역면제를 위해 공직의무를 위배한 것은 확실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도왔다는 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다음으로 높은 11번의 경우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강하지만 친한 친구라는 점, 그 친구로부터 소주와 삼겹살을 얻어 먹었다는 점 또한 경제적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환 행위의 특성이 특정한 사회적 의미가 우세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표준편차 즉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나리오 5,12,1,6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담긴 부패행동이라는 점에서 회색부패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처벌강도에 대한 각 시나리오 별 표준편차



지금까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회색부패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였다.

각 기준에 따르면 시나리오 5,1,12, 6의 경우 흑색부패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나리오 2,3,4,7,8,9,10,11,13의 경우 회색부패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시나리오 별 회색부패 유형의 탐색

본 연구에서의 시나리오들은 흑색부패로부터 회색부패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부패들은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어 관용되지 않는 부패로부터 관행화된 부패까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시나리오들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시나리오들 간의 특정한 유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부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구성할 경우 설문의 방법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들을 적절히 유형화 할 수 있다면 분석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부패 연구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시나리오 구성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문제에서 밝혔듯이 처벌강도에 대한 총 13개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따른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12와 같은 요인적재량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2> 처벌강도에 대한 요인적재량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Uniqueness
시나리오1	0.0682	-0.0555	0.4927	0.0826	0.0205	0.7405
시나리오2	-0.0247	-0.0579	0.0442	0.7498	0.0228	0.4745
시나리오3	-0.0821	0.6106	0.0203	-0.0059	0.0163	0.6577
시나리오4	0.1183	0.2418	0.0427	0.0549	0.2914	0.6416

시나리오5	-0.0480	0.0167	0.5582	-0.1345	0.0696	0.6462
시나리오6	0.0404	0.1364	0.3049	-0.0070	0.2809	0.6518
시나리오7	0.6963	-0.0264	0.0514	0.0190	0.0570	0.4450
시나리오8	0.0705	0.0476	-0.1207	0.6974	-0.0077	0.4154
시나리오9	0.6934	-0.0395	0.1726	0.0402	-0.0508	0.4287
시나리오10	-0.0220	0.3436	0.1750	0.1141	-0.0235	0.7872
시나리오11	0.7321	0.0813	-0.1237	0.0146	0.0294	0.4296
시나리오12	0.2419	0.0549	0.4687	-0.0471	-0.0678	0.6181
시나리오13	0.1739	0.5332	-0.0503	-0.0408	0.0257	0.6146

요인적재량의 값이 0.4이상인 것을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을 때 유형1에 속한 것은 시나리오 7,9,11이다. 유형2에 속한 것은 시나리오 3,13이라 볼 수 있다. 유형3에 속하는 것은 시나리오 1,5,12이다. 유형4에 속하는 것은 시나리오 2,8이다. 그리고 시나리오4,6,10은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선물형 회색부패

첫 번째 유형은 시나리오 7,9,11이 하나의 유형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 7,9,11의 공통점은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사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공무원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한약, 양주, 소주와 삼겹살과 같은 현금이 아닌 물품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7과 11은 직장상관이나 친구와 같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청탁을 들어준 성향도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7,9,11은 전형적인 경제적 부패 행위의 형식을 갖추긴 하였지만 가시적으로 경제적 교환행위로 보여지기 보다는 선물이나 사적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회색 부패의 관행화된 특성을 가진 부패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유형은 부패행위이기는 하지만 현금이 아닌, 선물이나 물건, 그리고 친분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의미가 담긴 회색부패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나리오들은 총1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부패인지 아닌지에 판단의 서열을 엄격함으로부터 측정하면 63%-80%에까지 걸쳐 있으며, 처벌강도에 대한 평균값은 4점 척도일 때 2.50-2.80으로 3점에 다소 못미친다. 즉 부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서는 중간그룹으로 볼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강도 또한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의 행동은 부정하되 그 결과 주고받는 것이 선물을 통한 호혜적 관계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관용된다라는 점에서 선물형 회색부패라 명명해보고자 한다.

2)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두 번째 유형은 시나리오 3,13이 한데 묶인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은 공무원이 외국과의 협상 중에 벌어지는 일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부정행동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외국과의 협상은 성공하며 여기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라는 국익을 얻는 것이 사회적 의미로 여겨진다. 두 시나리오 간의 차이점은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대외비를 제공하였고, 시나리오13의 경우에는 예산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부패의 내용이나 부정행동의 수준이 다르다. 그런점에서 대외비를 유출한 행동에 대해 부패라 생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본 요인의 공통점에 기반을 두어 이 유형은 ‘국익추구형 회색부패’로 명명하고자 한다.

3)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세 번째 요인은 시나리오1,5,12가 이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부패의 유형은 모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보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들은 실제 회색부패 존재 여부에 대한

탐구에서 부패수준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3개로(부패 여부에서 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95%가 넘음) 나타난 경우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시나리오1의 경우 그 주체가 국회의원이고, 5는 판사, 12는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유형은 경제적 교환행위로서 부패로 거의 확실히 인식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로 명명해 보고자 한다.

4)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네 번째 요인은 시나리오2,8이 한데 묶인 형태이다. 이 유형은 장례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경우이다. 즉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관례이거나 전통문화에 따른 의무로 여겨지는 행태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은 부패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공무원 사회내에서 경조사를 둘러싸고 직장상관이나 직장부하의 부친상에 참석하였다는 점에서만 차이난다. 직장상관의 경우가 직장부하일 때의 경우보다 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 차이의 배경에는 전자는 상관이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순수한 호의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두 시나리오가 가지는 공통점은 경조사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전통관습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점이 가장 크다. 이런 점에서 이 유형은 '사회관습형 회색부패'라 명명해 보고자 한다.

5)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다음으로는 유형으로 묶이지 않은 세 가지 시나리오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형으로 잡히지 않은 시나리오는 4,6,10번 시나리오로 총3개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애초의 연구 설계에서는 경제적 교환행위형 부패이지만 가장 사소한(petty)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요인적재량은 요인2 즉 혼합형 회색부패에 가장 가깝지만 그 값이 낮아(0.2586) 동일한 유형으로 판단되지 못하였다. 즉 시나리오4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교환적 성격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나리오4는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비율이 18%로 흑색부패라 인지되는 비율 5%미만 보다 높고, 처벌여부와 사회적 피해의 표준편차도 다른 회색부패 유형들만큼 높다는 점을 감안해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6)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다음으로 시나리오6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수급 사례이다. 시나리오6은 ‘이익추구형 회색부패’와 가장 가까운 요인적재량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나리오6이 부패한 행동이라 인식한 비율이 높고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회색부패와 유사하게 낮은 표준편차 값을 가진다. 또한 처벌 강도에 대한 평균값도 가장 높은 1.5.12의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6은 이익추구형 회색부패와는 동일한 유형으로 도출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유형의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라는 형태로 넓게 확산되어 간접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시나리오6은 ‘피해은폐형 회색부패’로 명명해 보고자 한다.

7) 배려형 회색부패

끝으로 시나리오10은 사회적 약자의 병역면제를 도와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다. 이 유형은 ‘국익추구형 회색부

패'와 요인적재량이 제일 유사하다. 그러나 시나리오10은 타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국익추구형 회색부패와 유사하나 사회적 약자를 도운 행동이라는 점에서 국익추구적 행동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시나리오10의 유형은 '배려형 회색부패'라 명명해 보고자 한다.

8) 회색부패 유형화의 시사점

이제까지 회색부패의 유형을 탐색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어떤 사회적 의미가 강조되는가를 중심으로 유형이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람들은 부패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기 보다는 그 행동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었다. 여러 가지 부정청탁과 관련된 행동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였다. 공직자에 대해 식사나 음식 접대는 3만원, 선물을 주는 것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의 경조사비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5만원 상승하였다. 김영란법 시행령의 기준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각 금액은 우리사회가 부패가 아니라고 관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선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조사와 같은 사회적 관습에 제일 관대하고, 다음으로는 선물, 음식접대의 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표 13> 회색부패의 유형

번호	유형	주요 특징	시나리오
1	선물형 회색부패	경제적, 사회적 의미가 혼재	7,9,11
2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공무원직무남용, 국익추구 목적	3,13

3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경제적 교환, 현금 거래 부패라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1,5,12
4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사회관습, 예의에 합당한 유형 부패라 생각하지 않는 비율 높음	2,8
5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사소한 경제적 교환형 부패	4
6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음 부패라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6
7	배려형 회색부패	사회적 약자를 돕는 유형	10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에서도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관측되고 있다. 시나리오2.8의 경우 10만원의 경조사비에 대해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8%, 7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서울시 환경미화원은 5,000원 상당의 부정접대에 대해서는 부패가 아니라 생각하는 비율이 18%에 불과해 매우 낮다. 경조사비의 관행과 관습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행은 부패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회색부패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관행으로 보여진다. 관행(慣行)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스며들어 있는 생활관습이라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공식적 규범이나 법과는 구별되는 관행의 존재는 회색부패의 영역에서 무엇이 부패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권화된 회색부패의 영역에서는 폐쇄된 소수의 집단을 옹호하는 논리로,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상식과의 괴리로 나타난다.

V. 회색부패 인식의 유관요인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다음으로는 회색부패의 시나리오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때 종속변수는 회색부패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회색부패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측정될 것이다. 이는 Heidenheimer(1978)의 회색부패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특성이다. 첫 번째는 각 시나리오에 대해 부패인지 아닌지의 이분형으로 측정되는 변수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에 대한 측정이다. 왜냐하면 하이덴하이머는 회색부패를 부패인지 아닌지 처벌강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부패라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회색부패의 기초분석을 위해 첫 번째로 측정된 부패인지 아닌지의 이분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변수로는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성별이다. 성별은 부패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분석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존재하는 변수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이는 부패 상황에 노출되고 실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부패를 관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양자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직업참여율이 높아지고 우리사회의 부패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조은경·이정주, 2006; 고길곤·조수연, 2012).

두 번째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연령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해 관대하다는 주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또한 젊

은 세대와 노년층의 세대를 비교하며 젊은 세대가 좀더 사회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패에 관대할 것이라는 연구가 존재한다(진종순·서성아, 2007; 조은경·이정주, 2006). 그러나 나은영·차유리(2010)의 한국인 가치관 변동(1979, 1998, 2010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젊은세대에서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기성세대에서 오히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보면 물질과 관련된 회색부패에 대해서는 오히려 젊은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회색부패에 관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적 통찰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가치를 학습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부패에 좀 더 엄격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진종순·서성아, 2007).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적 가치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입학 여부에 따라 부패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부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경험적 연구도 존재한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정부신뢰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패에 엄격한 성향을 가진다는 연구가 존재(박광국, 1995)하며, 소득이 낮은 사람은 부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를 더 엄격하게 볼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김준석 외, 2011).

다음으로 직업은 공공분야와 나머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패의 주체가 되는 내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면 외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부패 판단이 다르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Peters&Welch,1978; Chang&Kerr(2016). 다만 최근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패인식수준이 민간인 보다 높다는 보고도 존재한다(고길곤·조수연2012). 본 연구에서의 공공분야는 교육분야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이는 교육분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김영란법의 제정 시행으로 부패의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종교변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주로 종교의 특성에 따라 권위적인 종교문화를 가진 경

우에는 부패 감소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개신교적 정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부패 감소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Treisman, 2000). 그러나 각 종교가 각 나라마다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의 카톨릭문화와 개신교 문화는 외국의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Ariely(2012)의 실험에 따르면 종교적 가치관을 떠올리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도덕적 가치 내지는 공동선에 대한 가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거나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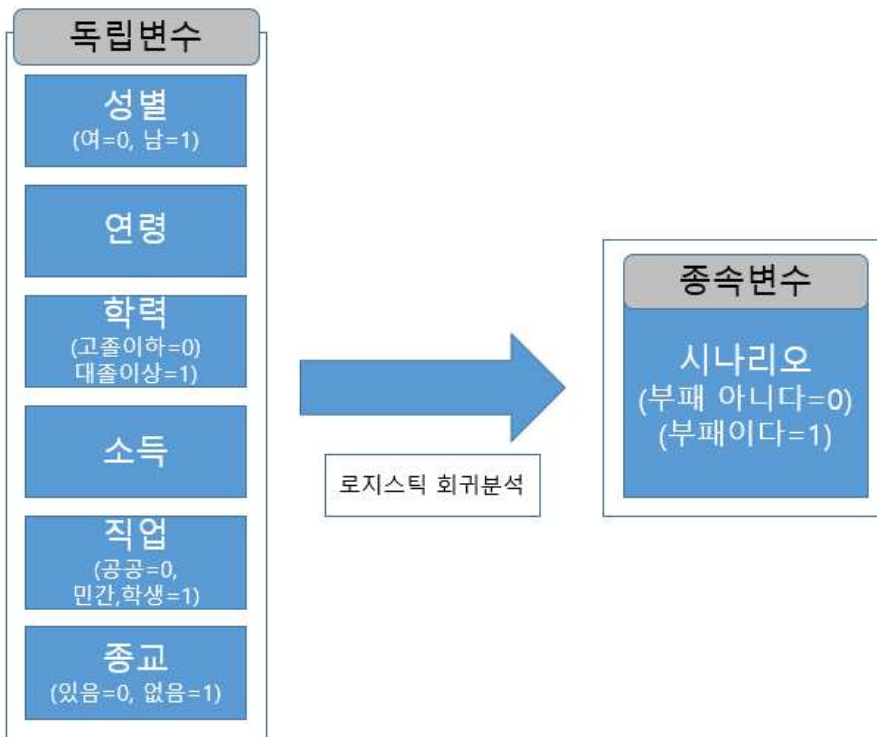
이제까지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에 관한 측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4> 기초분석에서의 독립변수 및 측정

성별	성별 : 1. 남자 2. 여자				
연령	나이: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학력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졸이하		대졸이상		
소득	귀하의 월 가계 소득 평균은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월200만원 미만	월200-300만원 미만	월300-500만원 미만	월500-800만원 미만	월800만원 이상
직업	공공분야		기타분야(사기업, 학생)		
종교	종교 有		종교 無		

요약하자면, 기초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부패인지 아닌지의 이분형 변수이며,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교이다.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임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종속변수는 부패가 아님과 부패임으로 판단되는데 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범위(부패아님, 부패맞음)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회색부패 기초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다음으로는 도출된 유형을 바탕으로 기존의 부패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탐구되지 못했지만 부패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되는 2

개의 변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활용되는 종속변수는 처벌강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패의 유형이다. 이 때 각 유형을 종속변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에 해당되는 시나리오들의 처벌강도를 단순합하는 방법과 요인점수를 가중치로 하는 요인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인점수를 활용하는 것은 각 시나리오들의 요인분석에 따른 요인적재량을 가중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각 요인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에서도 각 요인의 종속변수를 요인적재량을 가중치로 한 요인점수를 그 종속변수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인데 본 연구에서 탐구할 독립변수는 크게 두가지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적당한 거짓말에 대한 수용정도와 법이나 규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이다. 앞선 연구문제에서 지적하였듯이 개인의 거짓말에 대한 수용은 이론적으로 조건부 정당성에 대한 수용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개인이 속한 조직의 법, 규범에 대한 강조 정도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점에서 보면 개인과 사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네가지 유형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I유형)은 개인의 차원에서 조건부 정당성에 대한 수용이 낮고, 즉 개인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윤리 판단보다는 가치나 원칙에 충실하고, 조직 또한 법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문화에 속한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개인 모두 법과 도덕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중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II유형)은 개인은 엄격한 원칙을 중시하지만 조직은 관대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부패에 반대하지만 속한 조직은 사소하거나 모호한 부패에 무관심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개인은 조건부 정당성을 강하게 수용 즉 상황에 따라 적당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넓게 관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은 상황보다는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보면 법과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 명확한 흑색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 상황에 따라 개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대한 성향을 보일 것이라 예측된다.

끝으로 네 번째 유형(IV유형)은 조직 또한 법규범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 또한 상황적 논리를 강하게 받아들일 경우 회색부패와 흑색부패 모두에 대해서 관대한 성향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조직과 개인 모두 부패에 대해 관대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변수는 부패에 대한 접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부패에 대한 처방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지 아니면 제도나 사회문화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법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문화가 개인의 부패 판단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이 부패판단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양심적이지만 개인이 속한 조직문화는 법규범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와 개인은 비양심적이지만 개인이 속한 조직문화는 법규범의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사이의 비교는 어떤 정책이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더 적절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당한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거짓말이 아닌 ‘적당한 거짓말’으로 표현함으로써 지나친 거짓말로 오해되지 않게 의도하였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15> 적당한 거짓말 변수의 측정

질문: 적당한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그리고 조직문화가 법규범을 준수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6> 조직문화-법 규범 강조 정도

내가 속한 조직은 법이나 규정의 준수를 다른 어느 것보다 강조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이러한 거짓말과 조직문화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각각의 분포와 평균값을 구한다. 그러한 다음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3점을 아니다쪽에 소속시킬 것인지 그렇다쪽에 소속시킬 것인지 정한다. 왜냐하면 평균값이 3점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보통이다는 아니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평균이 3점이하이면 상대적으로 보통이다는 그렇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음 적당한 거짓말에 대해 수용하는 집단(0), 수용하지 않는 집단(1)로 나누고, 속한 조직이 법규범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규범을 강조하지 않는 집단(0), 법규범을 강조하는 집단(1)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0,0:I유형), (0,1:II유형), (1,0:III유형), (1,1:IV유형)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주된 변수는 ‘과거의 부패 경험’이다. 즉 과거의 부패 경험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에 익숙하고 적응하게 하기 때문에 부패에 대한 인식을 관대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공공선에 대한 의식수준과 과거부패경험을 결합한 변수를 형성하였다. 즉, 과거에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높았던 사람에게 부패경험은 부패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되는 반면에 공공선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부패 경험은 오히려 부패에 관대한 방향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과거 공공선에 대한 태도는 세가지 설문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간명화 하였다. 이때의 설문은 사회봉사나 사회정의 등의 설문은 개인의 가치관과 주관이 형성되는 시기라 볼 수 있는 중고등학교 시절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고, 도덕이나 윤리 수업 등에 대한 선호는 초등학교 시절까지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표 17> 과거-공공선

질문
초중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교과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 공감을 한적이 있는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또한 과거 부패 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과거에 얼마나 부패를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때 중고등학생 시절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개인이 직접 경험한 것 보다는 주변의 어른들의 행동을 경험한 사례가 더 많을 거라는 점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의 어른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한 행동을 본 적이 있었는지요?”로 설문을 하였고, 이 또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18> 과거 부패 경험

질문: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의 어른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한 행동을 본 적이 있었는지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2	3	4	5

위와 같은 연구분석을 위한 측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첫 번째는 “네가지 유형 간 부패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과거의 부패 경험은 과거의 공공선에 대한 의식수준과 상호작용하여 부패인식수준의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공공선과 과거부패경험의 상호작용 변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공공선 변수를 요인적재량을 가중치로 한 요인점수를 도출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부패 경험의 정도(1~5점)를 가중치로 곱하게 되면 과거 공공선의 점수에 과거부패 경험이 1~5배로 조정된 새로운 선형연속변수가 도출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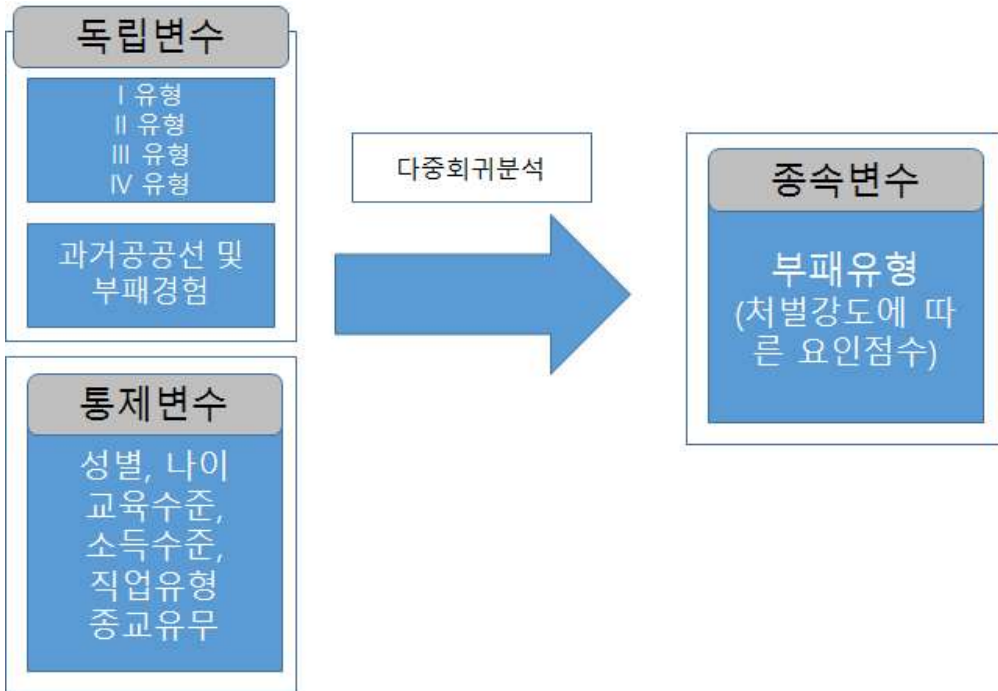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통제변수들은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직업유형, 종교유무이다.

종속변수¹⁶⁾는 요인적재량을 가중치로 한 요인점수이기 때문에 연속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에 바탕한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16) 요인적재량을 가중치로 하여 요인점수를 도출하면 표준화과정을 거쳐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로 수렴하게끔 구성된다. 그러하기에 요인점수를 활용한 분석은 계수값의 해석이 까다롭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회색부패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유형을 토대로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 상황과 경험에 따른 회색부패 인식과의 관련성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위에서 측정된 시나리오 별로 앞서 설명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때 종속변수는 각 시나리오에서 부패이다 아니다로 응답한 이분형 값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유형, 종교유무이다.

1)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1) 시나리오1

시나리오1은 국회의원이 기업가의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500만원을 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96%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 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3.47점으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직접적인 부당 거래행위이고 국회의원의 부정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1은 명백한 흑색부패에 가깝다.

시나리오1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이 해당된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시나리오1을 부패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남자가 여자보다는 유사한 부패상황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1을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보고된다(고길곤·조수연, 2012). 특히 최근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의 상승과 법, 규율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은 이러한 추세에 이유가 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1을 부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수준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득, 직업, 종교는 시나리오1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업이 공공분야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시나리오1의 특성상 명백한 부패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19> 시나리오1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1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0.563*	0.170	-1.900	0.057
나이	1.064***	0.020	3.270	0.001
교육수준	1.959**	0.664	1.980	0.047
소득	0.911	0.120	-0.710	0.478
직업	1.362	0.494	0.850	0.395
종교	1.040	0.298	0.140	0.890
상수	2.486	1.821	1.240	0.214
관측치:1291; Pseudo R2=0.0522; ***=p<.01; **=p<.05, *=p<.1				

(2) 시나리오5

시나리오5는 판사가 기업가의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100만원을 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99%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3.68점으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직접적인 부당 거래행위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판사의 부정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5는 명백한 흑색부패에 가깝다.

시나리오5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나리오5가 부패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총1,309명의 응답자 가운데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나리오5에 대해 부패가 아니라고 응답한 10명의 사회인구학적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정한 패턴이나 특성을 판별하기가 어려웠다.

시나리오5는 시나리오12나 1에 비해 받은 현금의 금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99%의 높은 비율로 부패라 응답하였다. 이는 판사라는 고도의 공정성

을 요구하는 직업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이런점에서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판사라는 직업인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0> 시나리오5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5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226	0.858	0.290	0.771
나이	0.978	0.040	-0.530	0.598
교육수준	0.617	0.666	-0.450	0.655
소득	0.646	0.218	-1.300	0.195
직업	0.498	0.429	-0.810	0.418
종교	2.187	1.562	1.100	0.273
상수	1500.626***	3257.539	3.370	0.001
관측치:1290; Pseudo R2=0.0433; ***=p<.01; **=p<.05, *=p<.1				

(3) 시나리오12

시나리오12은 공무원이 기업가의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96%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3.38점으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부패행위이고 공무원의 부정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12는 명백한 흑색부패에 가깝다.

시나리오12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교육수준, 종교유무가 해당된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12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한 흑색부패라 볼 수 있는 시나리오1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1

과 유사하게 부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수준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12를 부패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종교가 있는 사람은 도덕이나 양심에 근거해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성별, 소득, 직업은 시나리오12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업이 공공분야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시나리오12의 특성상 명백한 부패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른 부패인식의 격차는 어느정도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고 법이나 규범에 의할 때 명백한 부패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시나리오12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12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0.845	0.291	-0.490	0.626
나이	1.059**	0.025	2.470	0.013
교육수준	2.405**	0.926	2.280	0.023
소득	0.883	0.132	-0.830	0.406
직업	0.960	0.414	-0.090	0.925
종교	0.448**	0.169	-2.130	0.033
상수	5.938*	5.387	1.960	0.050

관측치:1283; Pseudo R2=0.0810; ***=p<.01; **=p<.05, *=p<.1

2)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 시나리오2

시나리오2는 공무원이 소속부서의 상관의 부친상에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전달하고 좋은 평판을 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32%의 응답자만이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1.89점으로 매우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례라 할 수 있는 경조사인점, 일반적으로 10만원의 경조사비가 지나치다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2는 회색부패 현상에 가깝다.

시나리오2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직업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2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경조사비를 매개로 한 회색부패라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는 것, 즉 법이나 규범을 위배한 행동에 대해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다른 시나리오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직업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2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조사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배한다는 것을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부패라 생각하는 반면, 민간분야나 학생들은 이것이 법규정의 위배인 것을 모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경조사비 10만원은 용인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판단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성별, 교육수준, 소득, 종교는 시나리오2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2는 68%의 사람들이 부패가 아니라고 보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무원행동강령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 준수와 같은 가치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 회색부패의 특성에 따라 사회인구학적으로 관련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2> 시나리오2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2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028	0.131	0.210	0.831
나이	1.041***	0.008	5.100	0.000
교육수준	0.773	0.136	-1.460	0.144
소득	0.995	0.067	-0.080	0.935
직업	0.437**	0.081	-4.460	0.000
종교	0.846	0.104	-1.360	0.174
상수	0.168	0.061	-4.930	0.000
관측치:1292; Pseudo R2=0.0625; ***=p<.01; **=p<.05, *=p<.1				

(2) 시나리오8

시나리오8는 공무원이 소속부서의 부하의 부친상에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전달하고 좋은 평판을 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25%의 응답자만이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1.88점으로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례라 할 수 있는 경조사인점, 일반적으로 10만원의 경조사비가 지나치다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8에 비해 직장부하라는 점에서 보다 수직적 질서가 아닌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패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8은 회색부패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시나리오8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소득, 직업, 종교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8을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경조사비를 매개로 한 회색부패라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는 것, 즉 법이나 규범을 위배한 행동에 대해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다른 시나리오들의 결

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직업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8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나리오2의 결과와 동일하게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조사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배한다는 것을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부패라 생각하는 반면, 민간분야나 학생들은 이것이 법규정의 위배인 것을 모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경조사비 10만원은 용인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판단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나리오8의 부패판단에 관대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앞선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조사비의 지출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지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이 경조사비로 10만원 정도의 지출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관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나 관행에 더 수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널리 관용되는 경조사 관행에 대해서도 관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시나리오8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8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072	0.145	0.520	0.606
나이	1.031***	0.009	3.580	0.000
교육수준	0.866	0.158	-0.790	0.431
소득	0.846**	0.061	-2.310	0.021
직업	0.621**	0.118	-2.500	0.012
종교	0.723**	0.094	-2.490	0.013
상수	0.244***	0.092	-3.760	0.000

3)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 시나리오3

시나리오3은 공무원이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외비를 누설한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는 79%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2.98점으로 3점에 조금 못미치는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또 다른 국익의 희생이라는 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공무원의 실적을 위해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행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시나리오13에서의 예산 낭비와의 경우와 비교되는 회색부패 현상에 가까운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3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나이, 종교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여자에 비해 남자가 이러한 유형의 회색부패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집단적 질서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3을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시나리오들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패에 엄격한 인식을 가지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시나리오3에 대해서는 반대의 성향이 나타난다. 즉 국익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발전국가 시절의 집단적 문화와 유사하게 국가발전을 위해 적당한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나리오3과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회색부패에

관대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유무는 가치관의 준거가 종교에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세계에 있을지의 확률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세속적 가치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더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하여 비밀을 거래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다 관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 소득, 직업은 시나리오3의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업의 경우 공공분야의 종사자가 보다 관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시나리오들에서도 누차 확인되었듯이 공공분야 종사자가 아닌 집단에 비해 훨씬 부패에 엄격한 정향을 가지지만, 시나리오3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공분야가 다른 유형의 부패들에 비해 공익을 추구하는 회색부패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표 24> 시나리오3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3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0.702**	0.104	-2.380	0.017
나이	0.984*	0.009	-1.760	0.078
교육수준	0.927	0.180	-0.390	0.697
소득	1.058	0.078	0.760	0.449
직업	0.805	0.152	-1.140	0.252
종교	0.739**	0.105	-2.130	0.034
상수	10.320***	4.230	5.690	0.000

관측치:1289; Pseudo R2=0.0123; ***=p<.01; **=p<.05, *=p<.1

(2) 시나리오13

시나리오13은 공무원이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

여 예산 지출범위를 초과하여 부정 사용을 한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는 77%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 값이 2.84점으로 3점에 조금 못 미치는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나리오3과 유사하나 대외비가 아닌 예산지출을 초과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패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약2%p 낮추었고, 처벌강도 또한 약 0.14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 협상가에게 혜택으로 지급한 대가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대외비에 비해 다소 예산을 부정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행동이라는 것이다. 즉 이는 시나리오3에 비해 더 회색부패에 가까운 현상을 다룬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다.

시나리오13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어떠한 변수에서도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직업유형,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나리오13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에 차이없이 부패판단이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익을 위하는 것과 부정행위간의 부패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조건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가진 가치관의 특성이나 부패 경험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시나리오13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13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0.848	0.120	-1.160	0.244
나이	1.006	0.009	0.660	0.511
교육수준	0.764	0.150	-1.370	0.170
소득	1.012	0.071	0.170	0.867
직업	0.991	0.181	-0.050	0.963
종교	1.118	0.152	0.820	0.413
상수	3.595***	1.400	3.290	0.001
관측치:1280; Pseudo R2=0.0031; ***=p<.01; **=p<.05, *=p<.1				

4)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시나리오4는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음식점 주인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82%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2.58점으로 평균인 2.5점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이익이 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높은 부패인식 비율은 이것이 현금으로 인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금의 거래는 보다 직접적으로 부당하고 부패한 행동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높은 부패비율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처벌강도는 친구와 삼겹살과 소주를 먹은 시나리오11에 비해서 0.08점 정도 높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선물이나 식사와 같은 우리 주변의 일상행위가 아니라 식사이지만 현금가치로 환원되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난 회색부패라 할 수 있다.

시나리오4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교육수준, 소득, 직업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4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는 나이가 많은 집단이 아닌 집단에 비해 사소한 부패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시민적 가치를 학습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하기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아닌 집단에 비해 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하는 성향을 가진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나리오4의 부패에 엄격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소부나 음식점 주인,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5,000원은 서민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소득이 낮은 집단은 이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은 이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엄격한 시각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도 직업은 공공분야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엄격한 부패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이나 규범 준수에 엄격한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성별, 종교는 시나리오4의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소한 인구학적 교환행위에 기반 한 부패행동은 종교적 가치관이나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6> 시나리오4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4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231	0.187	1.370	0.172
나이	0.983*	0.009	-1.820	0.068
교육수준	1.561**	0.289	2.410	0.016
소득	1.176**	0.091	2.110	0.035
직업	0.601***	0.116	-2.630	0.009
종교	1.154	0.171	0.970	0.333
상수	3.806***	1.568	3.240	0.001

관측치:1291; Pseudo R2=0.0177; ***=p<.01; **=p<.05, *=p<.1

5)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시나리오6는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95%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3.09점으로 전형적인 흑색부패 현상의 처벌강도 평균값보다는 0.4점 정도 낮지만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서는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반적으로 공유되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수령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강도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시나리오6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교육수준, 소득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교육수준은 시민적 가치를 학습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하기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아닌 집단에 비해 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하는 성향을 가진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나리오6의 부패에 엄격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사례의 상황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례인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인구학적 필요에 의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할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사례에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이거나 부정수급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나이, 직업, 종교는 시나리오6의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수급행위에 기반한 부패행동은 종교적 가치관이나 성별차이, 세대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 직업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시나리오들에서는 공공분야 종사자가 다른 분야 종사자에 비해 부패인식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나리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임보미(2016)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는 것에 관대한 인식을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표 27> 시나리오6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6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176	0.307	0.620	0.534

나이	1.011	0.017	0.670	0.506
교육수준	1.807**	0.541	1.980	0.048
소득	1.284*	0.168	1.910	0.057
직업	0.666	0.214	-1.270	0.205
종교	1.309	0.337	1.050	0.295
상수	3.684*	2.467	1.950	0.051
관측치:1289; Pseudo R2=0.0376; ***=p<.01; **=p<.05, *=p<.1				

6) 선물형 회색부패

(1) 시나리오7

시나리오7은 공무원이 직장상관 부인의 청탁을 들어주고 직장상관으로부터 양주를 얻어먹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76%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중간값이 2.5점에 가까운 값을 보여준다. 이는 직장상사와 양주라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은 점, 보다 주변의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건을 매개로한 회색부패에 가깝다.

시나리오7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교육수준, 직업유형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7을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물을 매개로 한 청탁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부탁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7을 부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수준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나리오에서도 공공분야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7의 행동을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보고된다(고길곤·조수연, 2012). 특히 최근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의 상승과 법, 규율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은 이러한 추세에 이유가 된다.

반면 성별, 소득, 종교는 시나리오7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이나 소득의 크기, 종교의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7과 같이 물건을 매개로한 청탁, 직장상관과의 관계 때문에 행하는 부정행동에 대한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28> 시나리오7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7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178	0.163	1.180	0.238
나이	1.017*	0.009	1.930	0.054
교육수준	1.832***	0.310	3.580	0.000
소득	1.039	0.070	0.570	0.566
직업	0.575***	0.099	-3.210	0.001
종교	0.948	0.129	-0.390	0.694
상수	1.063	0.397	0.160	0.869
관측치:1288; Pseudo R2=0.0418; ***=p<.01; **=p<.05, *=p<.1				

(2) 시나리오9

시나리오9는 공무원이 기업인의 청탁을 들어주고 기업인으로부터 몸에 좋은 한약을 받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는 80%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2.83점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시나리오7보다는 높고, 시나리오12보다는 낮은 값을 가진다. 시나리오9는 시나리오12와 달리 현금이 아닌 한약의 선물을 받았다는 점과 그 인구학적 가치를 환산하면 수십만원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

하다. 이런점에서 보면 부패인식비율과 부패처벌강도의 차이는 선물인지 현금인지의 차이와 한약의 값어치와 현금100만원의 차이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시나리오4의 경우 현금 값어치가 5,000원에 불과하지만 82%의 사람들이 부패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보상이 현금이나 아니면 선물이나가 더 부패인식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나리오9는 한약이라는 선물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 만드는 회색부패라 볼 수 있다.

시나리오9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교육 수준이다. 이는 시나리오7,11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선물을 매개로 한 회색부패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9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물을 매개로 한 청탁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부탁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9를 부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수준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별, 소득, 직업, 종교는 시나리오9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이나 소득의 크기, 직업의 유형, 종교의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9와 같이 물건을 매개로한 청탁, 친한친구와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부정행동에 대한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29> 시나리오9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9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0.892	0.136	-0.750	0.452

나이	1.050***	0.010	4.920	0.000
교육수준	2.077***	0.378	4.020	0.000
소득	1.126	0.082	1.640	0.102
직업	0.793	0.147	-1.250	0.210
종교	1.010	0.151	0.070	0.947
상수	0.335***	0.135	-2.720	0.007
관측치:1289; Pseudo R2=0.0776; ***=p<.01; **=p<.05, *=p<.1				

(3) 시나리오11

시나리오11은 공무원이 친한친구의 청탁을 들어주고 친구로부터 소주와 삼겹살을 얻어 먹은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는 63%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2.5점으로 상대적으로 중간값을 가지며 유사한 시나리오7, 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 11은 시나리오7,9와 같이 선물이나 물건을 통해 그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7은 직장상관, 9는 기업가이어서 시나리오11에서와 같이 그 관계의 친밀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소주와 삼겹살을 먹는 경우는 일상에서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7,9에 비해 부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비율이나, 처벌강도에 대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회색부패라 볼 수 있다.

시나리오11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교육수준이다. 이는 시나리오9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선물을 매개로 한 회색부패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9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물을 매개로 한 청탁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부탁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9를 부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수준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별, 소득, 직업, 종교는 시나리오11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이나 소득의 크기, 직업의 유형, 종교의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11과 같이 물건을 매개로한 청탁으로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30> 시나리오11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11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0.946	0.116	-0.460	0.647
나이	1.024***	0.008	3.130	0.002
교육수준	1.576***	0.250	2.870	0.004
소득	1.053	0.064	0.850	0.395
직업	0.795	0.124	-1.470	0.142
종교	1.130	0.135	1.030	0.304
상수	0.440**	0.148	-2.440	0.015
관측치:1287; Pseudo R2=0.0264; ***=p<.01; **=p<.05, *=p<.1				

7) 배려형 회색부패

시나리오10은 공무원이 소외된 청년의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해 대외비를 알려준 사례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78%의 응답자가 부패라고 판단하였으며, 처벌강도 또한 4점 최고점에 평균값이 2.94점으로 대외비를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나리오3의 부패라 생각하는 비율 79%, 처벌강도의 평균값 2.98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이런점에서 보면 시나리오3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정행위임에 비해 시나리오10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의미의 유사성을 가진다. 즉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나라를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회색부패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시나리오10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이다. Odds Ratio를 살펴볼 때, 성별의 경우 여자에 비해 남자가 이를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일관된 결과로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법이나 규범을 중시하는 남성 집단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고 하더라도 대외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패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나리오10을 부패라 생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점점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패를 엄격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부패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 11을 부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수준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10의 회색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하게 나타난다. 이 또한 본 연구의 일관된 결과로 공공분야의 종사자들이 법이나 규정의 위배를 더 엄격하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득, 종교는 시나리오11의 부패 판단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의 크기, 종교의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11과 같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한 부패판단은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가치관이 보다 세속적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부패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표 31> 시나리오10의 부패판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관계

시나리오10	Odds Ratio	표준오차	z	P>z
성별	1.308*	0.190	1.850	0.064
나이	1.018*	0.009	1.900	0.058
교육수준	1.812***	0.318	3.390	0.001
소득	0.963	0.067	-0.540	0.591
직업	0.599***	0.109	-2.830	0.005
종교	0.803	0.115	-1.530	0.126
상수	1.590	0.624	1.180	0.238
관측치:1287; Pseudo R2=0.0405; ***=p<.01; **=p<.05, *=p<.1				

8) 분석결과의 종합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되는 변수는 교육수준, 직업, 종교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아닌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부패를 엄격하게 인식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는 교육은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직업유형인데, 공공분야 종사자가 사기업과 학생집단에 비해 엄격한 부패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관행화된 부패현상에 대해 공공분야 종사자는 법이나 규범에 의거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분야의 종사자들은 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 비해 부패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세속적 가치관을 작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에 대해서도 더 엄

격한 인식을 가지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 나이, 소득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음의 방향, 또는 양의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성별의 경우 시나리오 1,3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엄격한 인식을 가지지만 시나리오10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는 시나리오10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기에 집단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여성문화에 비해 집단의 규율을 중시하는 남성문화에 익숙한 남자가 더 엄격한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다.

나이의 경우 대체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나리오3,4의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패를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시나리오3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시나리오4에서는 사소한 인구학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소득의 경우에는 시나리오4,6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패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반면 시나리오8에서는 부패를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시나리오4,6의 경우에는 사소한 인구학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공감할 수 있기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시나리오8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경조사비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에서 무리한 비용이 아니고 비슷한 소득 집단에서 관행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관대하게 이해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 기초분석 결과의 종합

시나리오		설명변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직업	종교
1	이익추구 흑색부패1	여>남	+	+			
5	이익추구 흑색부패2						
12	이익추구 흑색부패3		+	+			유>무
7	선물형 회색부패1		+	+		공>사	
9	선물형 회색부패2		+	+			

11	선물형 회색부패3		+	+			
2	사회관습 회색부패1		+			공>사	
8	사회관습 회색부패2		+		-	공>사	유>무
3	국익추구 회색부패1	여>남	-				유>무
13	국익추구 회색부패2						
4	사소한 이익추구 회색부패		-	+	+	공>사	
6	피해은폐 흑색부패			+	+		
10	배려형 회색부패	여<남	+	+		공>사	

이상의 점에서 보면 관행화된 회색부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는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패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이나 규범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것을 통해 사회의 부패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적절한 홍보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관행화된 회색부패에 대해서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가 더 관대한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일상에서 관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에 김영란법과 같은 법의 시행과 그 처벌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등을 지급한 민간인까지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회색부패의 상황에 따라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나리오의 특성에 공감하는 집단과 아닌 집단 또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이해하는지 아니면 외부자적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이해하는지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나리오에 담긴 상황이 소득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반대의 반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그 시나리오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집단이 더 관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회색부패를 연구할 때 이를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해당

시나리오가 법이나 공식규범을 위배하였는지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관되게 공공분야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부패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공분야 종사자가 시나리오들이 법이나 규범을 위배한 것인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이다.

3. 회색부패의 상황과 경험

1) 적당한 거짓말과 조직문화

우선 시나리오7,9,11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석한 선물형 회색부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관심변수인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유형은 IV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선물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유형과 III유형은 그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에 가장 관대할 것이라 예상한 IV유형에 비해 가장 엄격할 것이라 예상한 I유형의 입장이 강한 처벌을 바랄 것이라는 입장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개인가치관은 엄격하지만 조직문화는 관대한 II유형형과 반대로 조직문화는 엄격하지만 개인가치관은 관대한 III유형형은 개인과 조직문화 모두 관대한 IV유형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물형 회색부패와 같은 모호한 회색부패 상황에서 조직과 개인의 가치성향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 회색부패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추구형 회색부패는 시나리오3,13이 결합된 유형이다. 우선 첫 번째 관심변수인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I유형은 IV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국민추구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I유형형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I유형은 그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에 가장 관대한 IV유형에 비해 가장 엄격한 I유형의 입장이 강한 처벌을 바랄 것이라는 것은 지지된다. 그리고 개인가치관은 엄격하지만 조직문화는 관대한 II유형형 또한 IV유형에 비해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는 II유형형이 국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을 지급하고 예산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개인이 상황적 정당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국익추구형 회색부패의 논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직문화는 엄격하지만 개인가치관은 관대한 III유형은 개인과 조직문화 모두 관대한 IV유형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 상황에 맞게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는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가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환형 회색부패는 시나리오1,5,12가 결합된 유형이다. 이는 현금을 중심으로 이익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회색부패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우선 첫 번째 관심변수인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유형은 IV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국익추구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II유형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유형은 그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에 가장 관대한 IV유형에 비해 가장 엄격한 I유형의 입장이 강한 처벌을 바랄 것이라는 것은 재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인가치관은 관대하지만 조직문화는 엄격한 III유형형의 경우에도 I유형형의 계수의 크기와 거의 유사하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가치관은 엄격하지만 조직문화는 관대한 II유형형은 IV유형과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이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부패 임이 명확한 회색부패 현상에 대한 부패인식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명확하게 부패라고 인식되는 현상에 대해 조직이 이를 어기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예견되면 개인은 이에 대해 엄격한 부패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고 조직의 문화는 관대한 II유형형의 경우 IV유형형의 인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명백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보다는 조직의 규율이나 문화가 더 중요하게 부패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관습형 회색부패는 시나리오2,8이 결합된 유형이다. 이는 가장 부패라 생각하는 응답률이 낮으며, 또한 부패 처벌에 강도에 대한 평균값도 가장 낮은 유형이다. 우선 첫 번째 관심변수인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유형, II유형, III유형 모두 IV유형에 비해 처벌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습형 회색부패의 시나리오의 특징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나리오2,8의 경우 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 또한 금액의 크기보다는 부정청탁과의 직접 관련성에 근거하여 부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이용욱, 2016).

다만, 본 시나리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부패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 예고안을 보면 경조사비는 1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잘 준수되지 않는 규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통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사회관습형 회색부패의 시나리오는 다른 회색부패와 달리 보다 부패가 아닌 백색부패에 가까운 회색부패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IV유형, II유형, III유형, I유형 사람들이 부패라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아무런 유

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는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시나리오 4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처벌강도가 4점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이를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유형과 II유형은 IV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I유형은 그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에 가장 관대한 IV유형에 비해 가장 엄격한 I유형의 입장이 강한 처벌을 바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이 지지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가치관은 엄격하지만 조직문화는 관대한 II유형 경우 IV유형에 비해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상황에 따라 조건부 정당성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사소한 부패라 하더라도 현금을 매개로 한 부패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II유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III유형은 IV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III유형과 IV유형은 개인이 상황적 정당성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조직문화가 법규범을 강조하는지의 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점에서 보면 조직이 아무리 규범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 조건부 정당성을 받아들이면 사소한 부정행위에는 눈감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아무리 세세한 규범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피해가 작거나 부정행위의 크기가 적은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해은폐형 회색부패는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시나리오 6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라는 내용의 시나리오이다. 이 또한 처벌강도가 4점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유형은 IV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피해은폐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I유형과 II유형형은 그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은폐형 회색부패가 많은 사람들이 부패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려형 회색부패는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시나리오 10에 대한 분석이다. 이 시나리오는 공무원이 선의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대외비를 유출한 경우이다. 이 또한 처벌강도가 4점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IV유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유형은 IV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배려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I유형과 II유형형은 그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려형 회색부패가 대외비를 지급하는 부정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단에 혼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가치관 측면에서 그리고 조직문화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IV유형에서의 입장과 구별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33> 회색부패의 상황

유형4와의 비교	유형1	유형2	유형3
선물형 회색부패	0.135* (0.080)	0.084 (0.083)	0.053 (0.085)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0.178** (0.073)	0.108 (0.076)	0.137* (0.078)
경제교환형 흑색부패	0.152** (0.073)	0.158** (0.075)	-0.043 (0.077)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0.070 (0.074)	-0.047 (0.077)	0.117 (0.079)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488** (0.260)	1.255 (0.226)	1.387* (0.254)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1.360* (0.247)	1.246 (0.236)	1.073 (0.205)
배려형 회색부패	1.398* (0.240)	1.315 (0.236)	1.159 (0.210)
※ ***=p<.01; **=p<.05, *=p<.1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형1과 유형4 사이에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I유형은 개인과 조직문화 모두 부패에 엄격하고 IV유형은 개인과 조직문화 모두가 부패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I, III유형은 부패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값들을 나타낸다. 다른 결과값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패턴은 조직의 문화가 법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면 명확한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부패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이나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모호한 부패상황에서 조직의 규범 강조여부에 관계 없이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부패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보면 회색부패 현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패상황에서 조직이 규범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뿐 아니라 현실속에서 쉽게 부딪치는 모호한 부패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수준 또한 고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부패경험과 공공선

과거부패경험과 과거공공선이 상호작용한 변수를 적용했을 때 총7개의 부패유형 가운데 사회관습형 회색부패를 제외한 모든 부패 유형에 대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부패경험과 과거공공선의 상호작용은 선물형 회색부패의 처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의 공공선이 높았던 사람의 과거 부패경험은 부패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시키고, 과거의 공공선이 낮았던 사람의 과거 부패경험은 부패에 대한 순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일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선물형 회색부패를 어떻게 이해 및 해석 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과거의 부패경험과 공공선에 대한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립된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익형 회색부패의 경우, 과거부패경험과 과거공공선이 상호작용한 변수를 적용했을 때 매우 유의미하게 국익형 회색부패의 처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동일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국

17) 한편, 부패경험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34의 오른쪽에 그 계수값과 표준오차를 표시해 두었다. 부패경험만을 두고 살펴보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회색부패에 대해서는 부패 경험의 부패 처벌에 대한 인식수준과 유의하게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색부패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패경험이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에 적응하고 현실에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도 만든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특히 회색부패의 인식에 있어서 과거의 부패경험은 일상의 회색부패에 대해서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관습형 회색부패의 경우, 부패경험이 유의하게 부패처벌에 관대한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관습형 회색부패가 많은 사람들이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과거의 부패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사회관습적 성격이 강한 회색부패에 대해서 관대한 성향을 가지게 만들수도 있다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익형 회색부패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과거의 부패경험과 공공선에 대한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립된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교환형 흑색부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흑색부패나 회색부패와 상관없이 과거의 공공선이 높았던 사람의 과거 부패경험은 부패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시키고, 과거의 공공선이 낮았던 사람의 과거 부패경험은 부패에 대한 순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관습형 회색부패는 시나리오2.8이 결합된 유형이다. 이는 가장 부패라 생각하는 응답률이 낮으며, 또한 부패 처벌에 강도에 대한 평균값도 가장 낮은 유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사비 10만원을 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부패라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관습형 회색부패에서의 시나리오는 다른 부패유형들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회색부패라 볼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경험이나 과거의 공공선의 의식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회관습형 회색부패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특별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소한 이익추구형,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배려형 회색부패의 경우에도 과거부패경험과 과거공공선이 상호작용한 변수를 적용했을 때 매우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리고 과거부패경험과 과거공공선이 상호작용한 변수를 적용했을 때 매우 유의미하게 배려형 회색부패의 처벌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색부패 및 흑색부패에 관계없이 일정정도 수준이상의 부패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 과거의 부패경험과 과거 공공선의의식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부패에 대한 민감도, 즉 비판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여기서의 계수값은 Odds' Ratio이다. 이 시나리오들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나리오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서열형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표 34> 회색부패와 부패경험

부패유형	부패경험*과거공공선	부패경험
선물형 회색부패	0.371*** (0.140)	-.001 (.055)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0.440*** (0.128)	.006 (.050)
경제교환형 흑색부패	0.624*** (0.127)	.228*** (.050)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0.167 (0.130)	-.172*** (.050)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2.092** (0.655)	.917 (.109)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3.088*** (1.039)	1.355** (.171)
배려형 회색부패	2.294*** (0.701)	1.484 (.175)
※ ***=p<.01; **=p<.05, *=p<.1		

3) 회색부패 발생에 관한 이론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각 시나리오들은 부패의 특성과 패턴에 따라 적절히 유형화가 가능하다. 특히 현금거래행위인가 아니면 물건이나 선물을 중심의 거래행위이냐에 따라 다른 패턴이 존재하고 이를 유형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색부패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행해온 전통문화냐에 따라서도 유형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의 배경에는 사람들의 생각의 습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교환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행동은 인구학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다. 그것이 선물이든, 현금이든, 경조사비든 관계없이 동일한 경제가치는 동일하게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회색부패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즉, 동일한 10만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비로 활용된 것인지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사람들은 정반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색부패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은 부패현상과 우리 일상의 관용되는 행동의 결합에 있다.

이러한 회색부패 현상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의 과거경험, 가치관과 속한 조직문화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교육 수준은 일관되게 부패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적절한 교육은 사람들의 비판적 이해력을 신장시켜 단순히 시나리오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와 문제점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공공분야 직무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부패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부패는 내부자에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용되는 회색부패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용되는 회색부패가 민간에서도 관용된다는 점, 관용되는 회색부패의 시나리오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공분야 내부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 최근 김영란법 제정으로 공공분야의 부패인식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은 공공분야가 기타분야에 비해 높은 부패인식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¹⁹⁾.

나아가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문화의 특성, 그리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부패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해당 부패의 유형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색부패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와 속한 조직의 문화가 법규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황의 논리에 따라 관용되는 회색부패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관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르려는 경향이 상호작용

19) 단,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특권화된 회색부패의 경우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내부자들의 이익추구행동이기때 내부자(공무원)은 관대하고 외부자(국민들)은 엄격하리라 예상된다.

용하면서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과거에 지냈던 공공선에 대한 의식과 과거부패경험의 상호 작용은 사회관습형 회색부패를 제외하고 모든 부패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부패처벌강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적절한 시민 및 윤리 교육은 그 사회가 부패가 만연한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5> 회색부패의 상황과 경험

변수	부패 유형						
	선물형 회색	국익추구형 회색	이익추구형 흑색	사회관습형 회색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	피해은폐형 흑색	배려형 회색
II유형		+			+		
III유형			+				
I유형	+	+	+		+	+	+
과거공공선과 과거부패경험	+	+	+		+	+	+
성별			남>여			남>여	남>여
나이	+			+	-		
교육수준	+		+				
소득수준							
직업유형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종교유무							

* "집단A>집단B"의 의미는 A집단이 B집단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미.

개인은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와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가 범규범을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범규범을 중시하는 I유형과 정반대인 IV유형은 회색부패 판단에 차이나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부패는 IV유형은 I유형과는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IV유형에 속하

는 개인은 개인의 가치관으로부터, 결과중심의 조건부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법이나 규정의 준수에 대한 부담 또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조직에 의해 강제 받지 않을 경우 이익추구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조직만 법규범을 중시하는 경우, 또는 개인만 양심을 중시하는 사회에 속할 경우 다른 결과들이 기대된다. 조직만 법규범을 중시하는 경우 확실하고 명확한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모호한 부패의 경우에는 관대한 정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조직이 아닌 개인만 양심을 중시할 경우 국익을 추구하거나 사소한(petty) 부패행위처럼 결과는 좋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II, III유형의 공통점은 선물형, 사회관습형, 배려형, 피해은폐형 회색부패에 대해서는 IV유형의 태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개인과 조직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유형은 개인과 조직 모두 상황에 따라 법규범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유형에 가깝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이런 점에서 보면 개인과 조직 모두 법이나 규범,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회색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공선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패에 노출되더라도 오히려 문제의식을 강화시키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기여는 회색부패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는 데 있다.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은 집단 간 차이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집단의 속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개념 또한 모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과 사회의 관습을 대비시켜 회색부패의 개념을 관행화된 회색부패와 특권화된 회색부패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환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고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이 실제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가능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Peters&Welch(1978)의 연구를 토대로 부패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발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상황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단이나 처벌강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총 13개의 시나리오로 측정된 부패인식의 정도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시나리오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공공분야 종사자 인지 아닌지, 종교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 일관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것은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는 사회의 관행으로 수용되지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법, 규정의 규제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패인식수준의 결과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높은 부패인

식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회색부패는 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총4개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색부패의 유형은 각 부패의 상황이나 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는 패턴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이나 물건을 매개로 하는 유형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거래행위인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익적 의미가 강하거나 사회 전통문화의 관습에 따라서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문화의 특성, 그리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부패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해당 부패의 유형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색부패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와 속한 조직의 문화가 법규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회색부패에 대해 관용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관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르려는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회색부패 현상이 사회의 관습과 관행과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직접적인 회색부패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곧 부패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망라하고 이들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처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관심은 김영란법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란법은 회색부패 현상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흑색부패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법이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은 과도한 회색부패를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당한 행동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사회적 관행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계선의 명확한 구분은 29,900원과 30,100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기는 하지만 회색부패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백색행위인 것이고 후자는 흑색부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사라진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사라진 회색지대의 의미는 기존의 관행과 결부되어 의미화 되던 회색부패가 이제는 공식규범과 결부되어 명확하게 의미화 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명확한 법규정의 존재는 사람들이 부패판단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부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의한 과도한 식사, 선물, 경조사에 대한 경계선 설정은 또 새로운 형태의 부정청탁 행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관행에서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연결되는 부패 문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2014년 이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²⁰⁾. 2016.6.22.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100개의 추진과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 사

20) 자세한 사항은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http://www.norma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의 관행화된 많은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입법적 노력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적으로 양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숨겨진 관행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선해야할 관행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 관행의 결과라 볼 수 있는 부정수급 등과 같은 부정한 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한 행동을 관행화 시키는 이유에 대해 우선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회색부패가 발생하는지 회색부패가 발생하는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를 특권화된 회색부패와 관행화된 회색부패로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탐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행정, 정책에 심각한 위협일 것이라 예상되며 추후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많은 폐쇄적 엘리트 계층에서 그 관행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를 탐구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회색부패의 현상을 망라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현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부패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변수간의 관계들에 대해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친다는 점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 시간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이후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에 기반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숙. (2014). 부정부패현상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시각 : Dan Ariely의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를 읽고. **서울행정학회 포럼**, 4, 22-29.
- 고길근, 조수연. (2012).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韓國行政學報**, 46(3): 213-239.
- 김육, 송미영. (2006). 연구논문: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30-360.
- 김신복. (1999). 공무원교육 50 년 평가와 발전방향. **행정논총**, 37(2): 119-145.
- 김준석, 조진만, & 엄기홍. (2011).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343-371.
- 김태일, 서주현. (1998).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32(3): 199-215.
- 김판석. (1999). 정부인력 선발방식의 개선-행정고등고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7(2): 147-184.
- 김청택. (2016). 특집논문: 구조방정식모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 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17(1): 1-29.
- 박광국. (1995). 관료부패현상에 대한 인식도 평가. **한국행정연구**, 137-158.
- 박흥식. (2002).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사례.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 통제, **이론과 실제**: 59-104.
- 박흥식. (2003). 내부고발에 대한 유교 윤리 및 집단주의 태도의 영향. **행정논총**, 41(3): 105-126.
- 박흥식. (2003). 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이기주의적 시각을

-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2): 221-225.
- 변지은 등. (1997).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 107-122.
- 심준섭. (2015). 일반논문: 행정학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 활용: 문제점
검토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9(3): 453-485.
- 엄정식. (2012). 거짓말에 관하여. **철학과 현실**, 235-244.
- 유홍림. (1997). **정치학의전통: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 윤건수. (2015).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 자리문화. **한국행정학보**. 49(4):
1-28.
- 윤대혁. (2005). 윤리경영의 유형과 조직특성이 조직구성원의 결과행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2(3): 69-95.
- 은종환, 정광호. (2015).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 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2): 237-268.
- 이국운. (2012a).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법철학연구**, 15(2):
81-108.
- 이국운. (2012b). 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후마니타스.
- 이시영 등. (2016). 내부고발자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Q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미발표 논문)
- 이영록. (2003). 특집 2: 미군정기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권승렬안] 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4: 135-160.
- 이용욱. (2016). 부정청탁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영. (2007). **기업윤리-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삼영사.
- 장이랑, 박흥식. (2014).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관계 및
윤리적 리더십 조절 효과의 추정. **행정논총**, 52(4): 165-190.
- 전진영, 김선화, 이현출. (2009).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NARS 현안보고서, (45).
- 진덕규 등. (2016). 한국의 정치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조은경, & 이정주. (2006).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0(4): 491-509.
- 진종순, & 서성아. (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論叢*, 45(3): 233-257.
- 하버마스 (2000).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 박영도 공역). 서울: 나남출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0: 61-177.
- 한진환 (2011). 윤리경영이 조직신뢰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4(4): 2225-2244.
- Acemoglu, D. (1995). Reward structures and the allocation of talent. *European Economic Review*, 39(1), 17-33.
- Adsera, A., Boix, C., & Payne, M. (2003). Are you being served?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9(2), 445-490.
- Akerlof, G. A. (1980). A theory of social custom, of which unemployment may be one consequ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49-775.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 G., & Nuijten, M. (2007). Corruption and the secret of law: An introduction. *Corruption and the Secret of Law. A Legal Anthropologist Perspective. Aldershot/Burlington: Ashgate*, 1-26.
- Andvig, J. C., & Moene, K. O. (1990). How corruption may

- corrup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1), 63-76.
- Ariely, D. (2012).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New York, NY: Harper
- Atkinson, M. M., & Mancuso, M. (1985). *Do We Need a Code of Conduct for Politicians?: The Search for an Elite Political Culture of Corruption in Canada*.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anfield, E. C.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Free Press.
- Banuri, S., & Eckel, C. C. (2012). Experiments in culture and corruption: A review.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064).
- Barnett, T., & Vaicys, C. (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ethical work climate on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7(4), 351-362.
- Barr, A., & Serra, D. (2010). Corruption and culture: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11), 862-869.
- Benerjee, R. (2016). Corruption, norm violation and decay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7(May), 14-27.
- Bond, T. (2015). *Standards and ethics for counselling in ac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Ltd.
- Brass, D. T. et al. (1998). Relationships and Unethical Behavior: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14-31.
- Burt, B. A., Loesche, W. J., Eklund, S. A., & Earnest, R. W. (1983). Stability of *Streptococcus mutatis* and Its Relationship to

- Caries in a Child Population over 2 Years. *Caries research*, 17(6), 532-542.
- Cameron, L., Chaudhuri, A., Erkal, N., and Gangadharan, L. (2009). Propensities to engage in and punish corrupt behavior: Experimental evidence from Australia, India, Indonesia and Singapo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7), 843-851.
- Charron, N. (2016). Do corruption measures have a perception problem?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orruption among citizens and expert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147-171.
- Colombatto, E. (2003). Why is corruption tolerated?.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6(4), 363-379.
- Cressey, D. R., & Moore, C. A. (1983). Managerial values and corporate codes of ethic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5(4), 53-77.
- Damico, A. J., Damico, S. B., & Conway, M. M. (1998). The democratic education of women: High school and beyond. *Women & politics*, 19(2), 1-31.
- De Sardan, J. O. (1999). A moral economy of corruption in Afric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7(01), 25-52.
- Doherty, R. W. (1997). The emotional contagion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1(2), 131-154.
- Dolan, K., McKeown, B., & Carlson, J. M. (1988). Popular conceptions of political corruption: implications for the

- empirical study of political ethics. *Corruption and Reform*, 3(1), 3-24.
- Dong, B.D. et al. (2012) Conditional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 609-627.
- Elster, J. (1989). Social norms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 99-117.
- Evans, K. (1995). Competence and citizenship: towards a complementary model for times of critical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8(2), 14-27.
- Emerson, R. M. 1962.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31-41.
- Ferrell, B., & Coyle, N. (2008).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goals of nursing*.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isman, R., & Miguel, E. (2007). Corruption, norms, and legal enforcement: Evidence from diplomatic parking tic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5(6), 1020-1048.
- Fehr, E., & Falk, A. (2002).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centives. *European economic review*, 46(4), 687-724.
- Ford, R. C., & Richardson, W. D. (1994). Ethical decision making: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3), 205-221.
- Galor, O., & Stark, O. (1990). Migrants' savings, the probability of return migration and migrants' perform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63-467.
- Gardiner, J. A. (1970). *The Politics of Corruption: Organized Crime in an American City*.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Gibbons, K. M. (1990). Toward an attitudinal definition of corruption. In Heidenheimer, A. J., Johnston, M., & Le Vine, V.T. (1990)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 165-171.
- Gledhill, J. (2004). Neoliberalism.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332-348.
- Grabosky, P. N., Braithwaite, J., & Wilson, P. R. (1987). The myth of community tolerance toward white-collar crim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20(1), 33-44.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60-1380.
- Granovetter, M. (2007).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rruption. *On capitalism*, 15.
- Griffin, D. H. (1996). *Fungal physiology*. John Wiley & Sons.
- Gronbeck, B. E. (1990). Popular culture, media, and political communication. *New directions in political communication*, 185-222.
- Gupta, A. (1995). Blurred boundaries: the discourse of corruption, the culture of politics, and the imagined state. *American ethnologist*, 22(2), 375-402.
- Hair, J. F. et a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ller, D., & Shore, C. (2005). *Corrup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Pluto Press.
- Harrison, L. E., & Huntington, S. P. (2000).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NY: Basic books.
- Harrison, G. W., & List, J. A. (2004). Field experiments. *Journal of*

- Economic literature*, 42(4), 1009-1055.
- Hasty, J. (2005). *The press and political culture in Ghan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Heidenheimer, A. J. (1989). PROFESSIONAL KNOWLEDGE AND STATE
POLICY IN COMPARATIVE HISTORICAL-PERSPECTIVE-LAW AND
MEDICINE IN 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1(4), 529-553.
- Heidenheimer, A. J., Johnston, M., & Levine, V. T. (1970). *Political
corruption*.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24, 26-27.
- Heyman, J., & Ariely, D. (2004). Effort for payment a tale of two markets.
Psychological science, 15(11), 787-793.
- Hofstede, Geert, Bram Neuijen, D. D. Ohayv and Geert Sanders,
(1990). Measuring Organizational Cultures: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Across Twenty Cas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2), 286-316.
- Hollinger, R. C., & Clark, J. P. (1983). *Theft by employees* (Vol. 126).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Horning, D. N. (1970). Blue collar theft: Conceptions of property,
attitudes toward pilfering, and work group norms in a
modern industrial plant. *Crimes against bureaucracy*,
46-64.
- Humphrey, C., & Sneath, D. (2004). Shanghaied by the
bureaucracy: bribery and post-Soviet officialdom in
Russia and Mongolia. *Between Morality and the Law:
Corruption, Anthropology and Comparative Society*,
Ashgate, Aldershot.
- Huntington, H. P. (2000). Us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
science: methods and applications. *Ecological*

applications, 10(5), 1270-1274.

- Huntington, S. P. (2006).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usted, B. W. (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9-359.*
- Inman, R. P. (1978). Testing political economy's 'as if' proposition: is the median income voter really decisive? *Public Choice, 33(4), 45-65.*
- Izraeli, D. (1988). Ethical beliefs and behavior among manager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7(4), 263-271.*
- Jackson, M. & Smith, R. (1995). EVERYONE'S DOING IT! CODES OF ETHICS AND NEW SOUTH WALES PARLIAMENTARIANS' PERCEPTIONS OF CORRUPTION.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4(4), 483-493.*
- Jackson, M., & Smith, R. (1996). Inside moves and outside views: an Australian case study of elite and public perceptions of political corruption. *Governance, 9(1), 23-42.*
- Johnston, M. & Hao, Y. (1995). China's Surge of Corruption. *Journal of Democracy, 6(4), 80-94.*
- Johnston, M. (1996). The search for definitions: the vitality of politics and the issue of corrup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8(149), 321-335.*
- Johnston, M. (2005).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T. M. (1991). Ethical decision 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16, 366-395.
- Kim, J., & Kim, J. B. (1997).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Rice-Cake Expenses in Korea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6, 549.
- Kimberly, J. R. (1976). Organizational Size and Structuralist Perspective: A Review, Critique and Propos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71-59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 Klitgaard, R. (1988). *Controlling corruption*.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publisher not identified.
- Laczniak, G. R., & Inderrieden, E. J. (1987). The influence of stated organizational concern upon 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6(4), 297-307.
- Lambsdorff, J. G., & Cornelius, P. (2000). Corruption, Foreign Investment and Growth. The Africa Competitiveness Report 2000/2001. In JD Sachs, S. S., & Warner, A. (ed.) *World Economic Forum* (pp. 43-102). Oxford, UK: Oxford University.
- Lambsdorff, J. G. (2002). Making corrupt deals: contracting in the shadow of the law.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8(3), 221-241.
- Lambsdorff, J. G. (2006).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what do we know from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n Rose-Ackerman, S.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 economics of corruption one* (pp. 3-51).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hleifer, A., & Vishny, R. (2000).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1), 3-27.
- Lazarus, R. S. et al., (1952). The effects of psychology strain upon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49: 293-317
- Lewis, N. (1982). *A dragon apparent: travels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New York, NY: Hippocrene Books.
- Lipset, S. M., & Lenz, G. S. (2000).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s. In Harrison, L. E., & Huntington, S. P. (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pp. 112 - 124). New York, NY: Basic Books
- Lomnitz, C. (1995). Ritual, rumor and corruption in the constitution of polity in modern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1(1), 20-47.
- Losada, A. et al. (200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familism scale in a sample of dementia care givers. *Aging and Mental Health*. 12(4), 504-507.
- Malec, K. L., & Gardiner, J. A. (1987). Measurement issues in the study of official corruption: A Chicago example. *Corruption and Reform*, 2, 267-278.
- Mathews, M. C. (1987). Codes of ethic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isbehavior. *Research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policy*, 9, 107-130.
- Mancuso, M. (1993). The ethical attitudes of British MPs: A typology. *Parliamentary Affairs*, 46(2), 179-192.
- Mars, G. & Gerald, M. (1982) *Cheats at work: an anthropology of*

- workplace crime*. London: George Allen & Unwin (publishers) Ltd.
- Mauss, M. (1925/1990).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London: W.D. Halls.
- McCabe, D. L., & Trevino, L. K. (1993). Academic dishonesty: Honor codes and other contextual influenc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2-538.
- McCabe, D. L., Trevino, L. K., & Butterfield, K. D. (2001). Dishonesty in academic environments: The influence of peer reporting requirem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9-45.
- Melgar, N., Rossi, M., & Smith, T. W. (2010).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1), 120-131.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4), 371.
- Milgram, S. (1964). Group pressure and action against a perso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2), 137.
- Milgram, S. (1965). Some conditions of obedience and disobedience to authority. *Human relations*, 18(1), 57-76.
- Mishra, A. (2006). Persistence of corruption: Some theoretical perspectives. *World Development*, 34, 349-358.
- Morzol, I., & Ogorek, M. (1992). Shadow justice. J. Wedel, ed.
- Murphy, K. M., Shleifer, A., & Vishny, R. W. (1993). Why is rent-seeking so costly to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409-414.
- Nelson, L. D., & Kuzes, I. Y. (1995). *Radical Reform in Yeltsin's*

Russi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ME Sharpe.

- Nye, J. S. (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2), 417-427.
- Olken, B. A. (2009). Corruption perceptions vs. corruption rea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7), 950-964
- Pardo, I. (2004). *Between morality and the law: Corruption, anthropology and comparative society*. Ashgate Publishing..
- Parry, J. (2000). The "Crisis of Corruption" and "The Idea of India". *Morals of legitimacy: Between agency and system*, 12, 27.
- Peters, J. G., & Welch, S. (1978). Political corruption in America: a search for definitions and a theory, or if political corruption is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politics why is it not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politics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3), 974-984.
- Persson, A., Rothstein, B., & Teorell, J. (2013). Why anticorruption reforms fail—systemic corruption as a collective action problem. *Governance*, 26(3), 449-471.
- Polanyi-Levitt, K. (2001). Reclai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 UNRISD Conference “Need to Rethink Development Economics,” Cape Town, South Africa, September.
- Posner, B. Z., & Schmidt, W. H. (1984). Values and the American manager: An updat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6(3), 202-216.

- Power, C., Higgins, A., & Kohlberg, L. (1989). The habit of the common life: Building character through democratic community schools. *Moral development and character education: A dialogue*, 125-143.
- Rabin, M. (1998). Psychology and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1), 11-46.
- Rivkin-Fish, M. R. (2005). *Women's health in post-Soviet Russia: the politics of interven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occa, J. L. (1992). Corruption and its shadow: an anthropological view of corruption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130, 402-416.
- Rose-Ackerman, S. (1978). *Corruption: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New York: Academic Press.
- Rose-Ackerman, S.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Ackerman, S. (2006). Political corruption and reform in democracies: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aring Political Corruption*, 45-62.
- Russell, J. (1980)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61-1178
- Sah, R. K. (2007). Persistence and pervasiveness of corruption: new perspectives. Corruption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Some consequences of local osmosi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1(8), 2573-2598.
- Sandholtz, W., & Koetzle, W. (2000). Accounting for corruption: Economic structure, democracy, and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1), 31-50.
- Sandholtz, W., & Gray, M. M. (2003).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 national corrup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4), 761-800.
- Sandholtz, W., & Taagepera, R. (2005). Corruption, culture, and communism.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5(1), 109-131.
- Schneider, J., & Schneider, P. (1999). Is Transparency Possible? The Political-Economic and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of Cold War Conspiracies and Subterfuge in Italy. *States and illegal practices*, 169-198.
- Schneider, J., & Schneider, P. (2008). The anthropology of crime and criminaliz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7, 351-373.
- Scott, J. C. (1969). Corruption, machine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4), 1142-1158.
- Scott, J. C. (1972).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Prentice Hall.
- Serra, D. (2006). Empirical determinants of corruption: A sensitivity analysis. *Public Choice*, 126(1-2), 225-256.
- Shelley, L. (1994). Post-Soviet organized crime. *Demokratizatsiya*, 2(3), 354-355.
- Shelley, L. I. (1995). Privatization and crime: The post-Soviet exper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1(4), 244-256.
- Shore, C. (2005). Culture and corruption in the EU: reflections on fraud, nepotism and cronyism in the European Commission. Corrup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131-155.
- Shore, C., & Haller, D. (2005). Introduction-sharp practice:

-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corruption. *Corrup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1-26.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mart, A. (1993). Gifts, Bribes, and Guanxi: A Reconsideration of Bourdieu's Social Capital. *Cultural Anthropology* 8(3):388-408.
- Smith-Crowe, K., & Warren, D. E. (2014). The emotion-evoked collective corruption model: The role of emotion in the spread of corruption with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25(4), 1154-1171.
- Stark, D. (1992). From system identity to organizational diversity: Analyzing social change in Eastern Europe. *Contemporary Sociology: A Journal of Reviews*, 299-304.
- Steidlmeier, P. (1999). Gift giving, bribery and corruption: Ethical management of business relationship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2), 121-132.
- Tirole, J. (1996). A theory of collective reputations (with applications to the persistence of corruption and to firm qualit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3(1), 1-22.
- Torfason, M. T., Flynn, F. J., & Kupor, D. (2013). Here Is a Tip Prosocial Gratuities Are Linked to Corrup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3), 348-354.
- Torgler, B. (2006). The importance of faith: Tax morale and religiosit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61, 81-109.

- Torsello D. (2011). The ethnography of corruption: research themes in political anthropology (Working Papers). Retrieved from Goteborgs Universitet site: http://qog.pol.gu.se/digitalAssets/1357/1357836_2011_2_torsello.pdf
- Traxler, C., & Spichtig, M. (2011). Social norms and the indirect evolution of conditional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s*, 102(3), 237-262.
- Treisman, D.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Trevino, L. K., & Youngblood, S. A. (1990). Bad apples in bad barrels: A causal analysis of ethical decision-mak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4), 37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
- Truex, R., (2010). Corruption, Attitudes, and Education: Survey Evidence from Nepal. *World Development*. 39(7), 1133-1142.
- Uslaner, E. M. (2004). 5 Trust and corruptio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76.
- Victor, B., & Cullen, J. B. (1988). The organizational bases of ethical work climat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01-125.
- Van Schendel, W., & Abraham, I. (Eds.). (2005). *Illicit flows and criminal things: States, borders, and the other side of*

- globaliza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Wedel, M., & Kamakura, W. A. (2012). *Market segmenta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Vol. 8)*.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Welch, S., & Peters, J. G. (1977). Attitudes of US state legislators toward political corruption: some preliminary finding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45-463.
- Yang, M. (1994). The art in Guanxixue: Ethics, tactics, and etiquette.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 Yang, M. M. H. (2002). The resilience of guanxi and its new deployments: A critique of some new guanxi scholarship. *The China Quarterly*, 170, 459-476.
- Zerilli, L. M. (2005). *Feminism and the Abyss of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ey-Ferrell, M., & Ferrell, O. C. (1982). Role-set configuration and opportunity as predictors of unethical behavior in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35(7), 587-604.

부록1 설문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301호 02-880-4098, 010-4377-3299

표 1-3

2016

회색부패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	--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은종환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경험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줄 아오니 본 설문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성해 주신 자료는 반드시 동 연구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은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암호화 되어 적절히 관리 보관 될 것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총 5개 분야의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에다 솔직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

1. 본 설문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값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관리됩니다.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2. 작성 중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은종환 ☎(010)4377-3299 E-mail : olooitw1@snu.ac.kr

1.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문1-1~12번에서는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며 해당 하는 부분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문1-1) 성 별 : 1. 남자 2. 여자

문1-2)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문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졸미만	고졸	대졸이상
①	②	③

문1-4) 귀하의 월 가계 소득 평균은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월200만원 미만	월200-300만원 미만	월300-500만원 미만	월500-800만원 미만	월8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종교	무교
①	②	③	④	⑤

문1-6) 현재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직장, 학교)의 유형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행정부 무원	아보인 무원	공기업,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사기업	대학, 대학원생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문1-7) 현재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직장, 학교)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7년미만	7년-11년미만	11년 이상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문1-8) 현재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원, 대리이하 7급이하	계장, 팀장 6,5급	과장급이상 4급이상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문1-9) 현재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직장, 학교)의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0명이하	100-300명이하	300-500명이하	500명 초과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예, 서울지역)

문1-10) 현재 속한 부서(팀, 과)의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인니까?

4명이하	5-8명	9-15명	16명이상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문1-11) 주로 하시는 업무에서 외부인(고객, 일반국민)을 대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인니까?

거의없음	조금있음	상당히 빈번함	매우 빈번함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문1-12) 출근, 통학 등 외출을 하실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 하십니까?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자가용	도보, 자전거	기타
①	②	③	④

문1-1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①	②	③

2. 과거경험 및 가치관

※ 문2-1~6번에서는 선생님의 과거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있다	없다
부모님 중 공무원, 군무원(교사, 교수 등 교직원 포함)으로 근무한 분이 계신지요?	1	2
4촌 이내 친척들 가운데 공무원(교사, 교수 등 교직원 포함)으로 근무한 분이 계신지요?	1	2
초등학교 시절 학교 전체 학생회 또는 학급 반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요?	1	2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전체 학생회 또는 학급 반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요?	1	2
함께 살거나 살았던 가족 중 국가유공자(군복무, 공공기관 근무 등)가 계신지요?	1	2
4촌 이내 친척 중 국가유공자(군복무, 공공기관 근무 등)가 계신지요?	1	2

※ 문2-7~11번에서는 과거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초중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교과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 공감을 한적이 있는지요?	1	2	3	4	5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1	2	3	4	5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1	2	3	4	5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1	2	3	4	5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의 어른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한 행동을 본 적이 있으셨는지요?	1	2	3	4	5

※ 문2-12~24번에서는 평소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시하는 질문을 읽은 뒤 선생님의 경험 및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기해 주십시오.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적당한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다	1	2	3	4	5
불법만 아니라면 이기적인 행동은 비난하면 안 된다	1	2	3	4	5
나는 혼자일 때 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겁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기분이 좋다	1	2	3	4	5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1	2	3	4	5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1	2	3	4	5
나는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1	2	3	4	5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1	2	3	4	5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가족사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1	2	3	4	5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	1	2	3	4	5
나는 선물을 주고 받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3. 동료관계 및 주변인의 영향

※ 문3-1~8번에서는 평소에 선생님께서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에서의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시하는 질문을 읽은 뒤 선생님의 경험 및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기해 주십시오.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	1	2	3	4	5
나는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와 나의 꿈과 미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들과 개인적인 일로 자주 만난다	1	2	3	4	5
나와 친한 사람들은 가족을 제외하고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사람들이 많다	1	2	3	4	5
내가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에서 상하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편이다.	1	2	3	4	5
나는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선후배보다는 동년배들과 친하다	1	2	3	4	5
나는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들과 정치이슈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 한다	1	2	3	4	5
나의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 커피, 볼펜, 종이 등 물품을 자기 것처럼 아껴 쓴다	1	2	3	4	5

※ 문3-9~14번에서는 평소에 선생님의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시하는 질문을 읽은 뒤 선생님의 경험 및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기해 주십시오.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울적하다가도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5
주위에 화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TV 뉴스에서 겁먹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한다	1	2	3	4	5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덩달아 긴장된다	1	2	3	4	5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1	2	3	4	5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사랑의 감정이 차오른다	1	2	3	4	5

4. 직장 및 일터 환경문화

※ 문4-1~9번에서는 평소에 선생님께서 주로 속한 조직의 문화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시하는 질문을 읽은 뒤 선생님의 경험 및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기해 주십시오.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속한 조직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승진, 임금)를 적절히 지불한다	1	2	3	4	5
학연, 혈연, 지연 등 인맥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승진 등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은 조직구성원이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따르기를 바란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목표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은 법이나 규정의 준수가 다른 어느 것보다 강조한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은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의 윤리 강령을 어기면서도 실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의 인권교육, 성인지 교육은 실제로 구성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	2	3	4	5
내가 속한 조직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운영된다.	1	2	3	4	5

5. 회색부패인식

※ 문5-1번~13번까지 질문은 각각 사회행동 별로 응답자 본인이 실제 생각해온 것(인식)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제시하는 이야기를 읽은 뒤 선생님의 경험 및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5-1) 국회의원 박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주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 사업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연간 500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원 박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국회의원 박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국회의원 박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2) 공무원 김모씨는 소속부서의 과장님의 부친상에서 부의금 10만원을 전달하였고, 이후 과장님은 공무원 김씨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였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3) 공무원 이모씨는 외국과의 협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대외비(외부사람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비밀)를 몰래 제공하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성공하였다.

공무원 이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이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이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4) 서울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최모씨는 음식점앞 쓰레기 속에 분리수거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지만 묵인하는 대가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공짜식사(5,000원 상당)를 대접 받았다.

최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최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최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5) 판사 김모씨는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사업가)로부터 1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판사 김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판사 김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판사 김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6) 공무원 김모씨는 실제 초과근무는 2시간 25분 하였지만 4시간으로 기재하고 수당을 지급 받았다.						
김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7) 공무원 이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장상관 부인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직장상관으로부터 좋은 양주를 얻어 마셨다.						
공무원 이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이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이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8) 공무원 김모씨는 소속부서의 부하직원의 부친상에서 부의금 10만원을 전달하였고, 이후 부하직원은 공무원 김씨에 대해 좋은 분이라고 칭찬하고 다녔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김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9) 공무원 오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사업가로부터 몸에 좋은 한약을 선물 받았다.						
공무원 오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오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오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10) 공무원 박모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군대를 가야하는 청년 김군에게 대외비를 알려주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공무원 박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박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박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11) 공무원 한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친구로부터 소주와 삼겹살을 얻어 먹었다.						
공무원 한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한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한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12) 공무원 최모씨는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평상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최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최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최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13) 공무원 강모씨는 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산지출범위를 초과하여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공무원 강모씨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공무원 강모씨의 행동은 법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공무원 강모씨의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 응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Gray Corruption

Jonghwan E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search about gray corruption. Until now on, the concept of gray corruption was distinguished by group. This concept is ambiguous. So, this study revised the concept of gray corruption that from character of group to Formal Rules and Social Custom. As a result, there are two distinguished gray corruption, named by Customized Gray Corruption and Privileged Gray Corruption.

Furthermore, in order to explain this phenomenon,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with the existing economic exchange theories, suggesting that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describe various gray corruptions through social exchange theory.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at can b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f Peters & Welch(1978), this study systematically arranged the corruption of the scenario.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measure various gray corruption symptoms, depending on the context in which it is socially tolerated, the strength of the judgment corruption judgment and penalties were found to be variously displayed.

The extent of corruption recognition measured at a total of 13 pieces of scenario, various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cenario. In particular level of education, whether workers in public area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ligion, were found to be a consistent relationship. In particular, recognition level of the civil service is higher than in other populations.

The gray corrup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enario, it was classified that four types. Type of gray corruption was able to confirm that are distinguished by the features of the situ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each corruption. We were able to know the separated types depending on whether a direct cash transaction acts or type for the gifts, and the things mediated. In addition, it was able to classified by the public interest and the type also by customs of traditional culture.

And perception of corruption is influenced by personnel valu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past experience of corruption with past public goodness. Also, corruption's circumstances is important role about corruption's judgement.

Fundamentally, gray corruption circumstances is deeply linking to the social custom. So, strong regulation is not effective solution to the corruption. It is important to divide people's thinking between social custom and corruption.

Nevertheless, serious quest for gray corruption can be seen to

be still many missing. In particular, in the present study, even though divided into privileged gray corruption and customized gray corruption, did not complete the quest the privileged gray corruption. Quest for the privileged has been gray of corruption, our social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be a serious threat to the policy, there must be research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this study that it did not cover the phenomenon of various gray corruption.

Keywords: Gray Corruption, Gimyoungnan law, fraud, corruption, social exchange theory, perception of corruption

Student Number: 2013-30694